

여명사

홍익대학교 . 여학생회 . 여명 편집부

〈발간사〉

너, 그리고 나

‘평양축전 참가하여 여성해방 앞당기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당황해하며 자신없는 목소리로 겨우 따라 외치곤 했다. 이렇듯 여성해방에 대한 인식은 열악하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대부분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대협이 89년에 인수경과 함께 평양축전에 참가했으며, 여성운동이 자주·민주·통일을 이루는 것임을 확실히 했기에 우리는 90년을 도약의 해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에 서운함(?)으로 태어나 살림밑천이라고 위로받고 그저 귀여운 딸, 사랑스런 아내로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 똑같이 배워도 취업문에서는 찬밥신세고, 결혼 후에는 가사노동과 육아, 그리고 또 일터로 몰려나와야 하는 고달픈 여성들.

어려서부터 자신을 인간으로 느끼기 보다 먼저 여성으로 느껴버린, 그리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저래야 한다’로 자라면서 어머니가 된 후 자신의 딸에게 똑같은 삶을 강요하는 여성들.

자주여성의 모습으로…….

편집부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단호히 거부하며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자주여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이 아닌 함께 어우러지는 강인한 모습으로, 소외된 모든 사람과 함께 억압의 사슬을 당당히 끊고 일어서는, 역사를 거역하지 않고 창조하는, 이 땅 한반도의 자랑스런 딸로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이에 여명4호는 좀 더 구체적인 목소리로 다가가고자 하며,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 땅이 완전히 자주화되고 민주화되고 통일되는 그날까지 여성해방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가장 단호한 모습으로 일어설 것이며 여명4호는 그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지금 비록 우리가 여러가지 모습으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여명4호 속에서 하나되는 모습으로 뜨겁게 만날 것을 기대한다.

〈격려사〉

“왜, 사냐건”

“왜 사냐건, 그냥 웃지요”라는 김상용 시인의 한 귀절을 무척이나 즐겨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서 열달을 ‘혹 아들이 아닐까’ 하는 못사람들의 바램에 기죽어지내다가 “서운하시겠습니까”라는 간호사의 인삿말로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성들의 인생은, “여자”라는 단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삼중지도, 칠거지악이라는 봉건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요받아야 했고, 여자는 곱고 순종적이어야 하고, 말수가 적어야 한다느니 집안에서 일 잘하고, 소처럼 묵묵해야만 여자다운 여자로 평가받을 수 있었고, 여전히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다는 현대사회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모든 것에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오셨기에 더이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으로서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불평등과 봉건적 이데올로기가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핍박받는 민중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본가 식민지 민중의 피땀으로 살아가는 미제국주의가 그들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여성노동자에게는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저임금을 강요하고, 여성농민에게는 지나친 노동량을 강요하고, 전업주부들에게는 무보수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 사회적노동에의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고, 청년 여학생들에게는 결혼제일주의의 인식을 유포하여 식민지 조국의 지식인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안일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대학4년을 무의미하게 보내게 하고, 모든 남성들에게는 남성우월주의를 심어줌으로써, 철저한 분열통치로써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제국주의와 독점자본가들의 이윤추구 논리속에 우리 여성들은 예속과 굴종속에 허우적대고

소미아(제5대 여학생회회장)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핏박과 착취에 시달리는 민중의 일어섬만이 그들의 해방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 우리 여성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이 사회구조적 모순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제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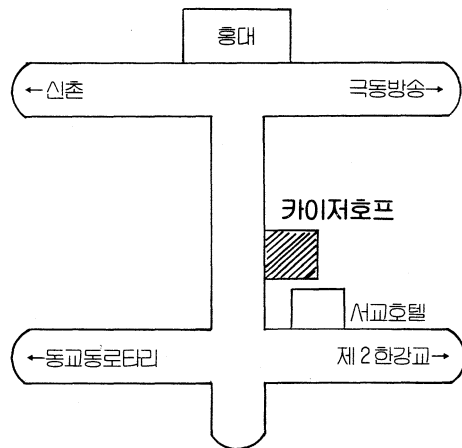
여명4호는, 홍익의 2,700여 여학우들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옳게 인식하고 계층상승의 과정으로써 대학생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명의 한쪽 한쪽은 홍익의 여학생 모두에게 소중하게 기억되고, 실천의 토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고개 내밉니다. 아픈만큼 성숙한다는 한갓 유행가 가사에 지나지 않는 말이 새삼 생각날 정도로 여명4호의 성숙이 그간 얼마나 많은 진통으로 자기발전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옳은 평가에서, 여명4호의 편집위원들의 손끝마다 마디의 정성에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명4호를 만들어내는 이들과 여명4호의 독자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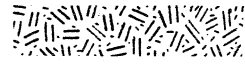
이에, 왜 사냐고 누가 묻거든 이 땅 허리잘린 조국의 하나됨을 위하여, 자본가와 노동자로 확연히 갈라선 이 땅의 주인으로 우뚝 일어서기 위해서, 인간해방의 서광을 안아오기 위한 인간여성으로서 '나'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살겠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명' 편집위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명제작에 도움을 주신 기획사와 인쇄소 노동자 여러분들 및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내면서 글을 마칩니다.

카이저 호프

여명 4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짜임글 I



- 1) 한국 여성운동의 현단계
- 2)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동·서독관계

한국 여성운동의 현단계

이 승희(한국여성연구회회원)

글의 순서

1. 들어가는 말
2.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흐름
3. 80년대 여성운동의 발전
4. 민중여성운동의 여성해방 이념
5. 민중여성 운동조직의 현황
6. 맺음말 :
90년대 여성운동의 과제와 전망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는 여성운동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전진이 40여년간의 역사적 단절을 뚫고 이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987년을 기점으로 민족민주 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자리매김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운동이 이념과 조직을 정비하고 실천에 임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과학적 여성해방이념을 정립하고 대중조직으로 자신을 정비한 여성단체들이 87년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이 단체들을 중심으로 목적의식적인 여성운동이 추동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87년 이후 이러한 여성운동의 성격을 이념, 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현재 우리 여성운동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하는가를 전망하기 위한 하나의 정점이 될 것이다.

2.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흐름

먼저 현재 우리 여성운동의 위치를 우리나라 여성운동사상에서 개괄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운동의 역사에서 변혁적 여성운동이 어떠한 과제를 설정하고 어떻게 투쟁하였고 그 결과 무엇을 쟁취하였으며 왜 좌절되어 40여년간의 단절이 초래되었는가를 보면서 현재의 여성운동을 조망할 때 비로소 현단계 여성운동의 도달점과 지향점 그리고 싸워나가야 할 대상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여성운동사를 볼 때 여성운동은 자본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되며 제국주의 발달에 조응하여 발전하여 왔다.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시기에서부터 여성운동은 계급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상호의존적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주의당의 지도하에 여성을 계급투쟁의 전선에 동원하기 위한 여성운동이 계급운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진행되었고 러시아 혁명에서 계급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중요성이 증명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의 시기에 식민지 종속국에서 여성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진전되면서 운동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이론적·실천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민중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방기할 경우 여성은 매관세력에게 장악당하여 결국은 제국주의 지배를 유지시키는 근간이 된다는 것이 인식되었고 여성운동은 여성을 민족해방운동에 동원하기 위한 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동시에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사회운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성운동은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운동으로...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시작되었다. 19세기말 자생적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걷기도 전에 반식민지화되어버린 조선에서 여성해방이념이 배태된 이래 해방직후에 이르기까지 여성운동은 그 이념이나 대변하는 계급이해에 따라 몇가지 갈래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는데 크게 보면 두가지 흐름으로 대별된다. 식민지에서의 해방과 계급해방이 이루어져야 식민지 민중의 절반인 여성도 해방될 수 있다고 보는 여성운동, 즉 당시 사회변혁의 과제인 반제반봉건을 여성운동의 과제로 설정한 여성운동과 반제의 과제를 설정하지 않고 봉건적 억압으로부터의 여성해방 즉, 남녀평등한 여권의 확립을 목표로 한 부르조아 여성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식민지에서의 여성운동이 반제의 과제를 설정하지 않을 때 그 운동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계급의 이해에 봉사하는 반민중적 여성운동으로 전락함을 식민지에서의 여성운동의 경험에서 충분히 보아왔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험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유평등 사상에 입각한 여성해방 이념에 의해 여성억압적인 봉건적 관습의 개혁 및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여권의 확립을 달성하려한 여성운동은 독립협회 등의 여성교육계몽운동으로 시작되고 식민지화 이후 기독교 여성들의 운동으로 이어진다. 봉건적 억압의 철폐를

목적으로 교육계몽운동의 차원에서 진행된 여권적 여성운동은 가장 먼저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독자적 조직을 갖춘 운동으로 실천되지는 못하였다.

또하나의 여성운동의 흐름은 1920년대에 시작된다. 3·1운동 이후 민족운동 전반이 계급분화를 경험하듯 여성운동도 프롤레타리아 계급 여성운동이 시작된다. 20년대 일제의 산업자본이 진출하면서 정미업과 면화가공업 등 식량과 원료수출에 부속된 특정부문이 편중적으로 발전하였고, 이 산업에 단순, 미숙련 노동자로 여성이 주로 고용됨으로써 여성노동자가 창출되어 식민지에서 민족적, 계급적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육계몽 차원의 여성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받아낼 수 없으면서 식민지 여성의 고통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해방을 모색할 새로운 운동이 요구되어졌다. 여기에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여성청년 지식인들이 사상운동, 청년운동으로 축적되었고, 이들이 여성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인 투쟁에 촉발되면서 마르크스주의 여성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1924년 5월 [조선여성동우회]로 시작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여성해방운동과 교육계몽운동 차원의 여권적 기독교 여성운동은 1927년 [근우회]로 통합되나 1930년 이후 근우회가 해산된 이후 다시 분리된다.

그후 기독교 여성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선전·계몽하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 일제의 손에 돌아나는 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며, 마르크스주의 여성운동은 계급조직의 여성부로 재조직되어 적색노조, 적색농조 부인부로 여성활동가

들이 결집, 여성대중과의 결합을 모색하였다. 근우회 해산 이후 “노동부인은 계급투쟁의 일부분으로 지하운동에 꾸준히 참가했고” 따라서 30년대 마르크스주의 여성운동은 20년대 지식인 여성 중심에서 지식인 여성들이 노동여성, 농가부인과 결합을 모색하는 시기에 이른다.

해방이 되면서 이 두가지 여성운동의 흐름은 좌·우익 여성운동으로 나누어져 이어진다. 전반적인 사회세력이 좌·우익으로 분리되면서 여성운동도 둘로 분리되는데 친일경력이 있는 기독교계 여성들은 우익 정치세력에 가담하면서 남녀평등한 여권의 확립을 내세우는 조선여자국민당, 한국독립촉성애국부인회 등의 단체를 조직하였다. 우익여성세력들은 친일경력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여성정책도 부재했으며 대중운동에 대한 인식부족과 대중적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여성대중을 위한 일상활동을 거의 벌이지 못했다. 이들은 유명 여성명사 중심으로 우익 정치단체들의 정치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여성들을 동원하는데 주력하였다. 1946년에는 반탁운동을, 1947년에는 단정수립지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활동하였는데 좌익여성운동에 비해 이론적, 조직적 열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미군정의 정책적 지지를 받으면서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한편, 해방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여성해방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신념하에 민족해방을 위해 여성도 함께 투쟁하는 여성운동을 간고하게 벌려나갔던 여성운동을 기반으로 조선부녀총동맹이라는 단체가 조직되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운동은 폭발적으로 고양되게 된다. 조선부녀총동맹은 노동여성대표, 농촌여성대표, 활동가대표

들이 대표권을 갖고 모여 구성하였는데 전국적인 지도체계를 갖추고 노동여성, 농가부녀, 소시민주부, 인텔리여성 등 광범위한 여성들의 지지와 참여속에 일상 활동과 정치활동을 수행하였다.

미군정의 정책은 시작부터 좌익세력의 고립과 타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미군정과 대결하면서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수행하여 독자적인 자주적 독립국가를 건설하려 한 사회세력은 결국 패배하였고 그 결과 남한에는 이승만과 한민당 중심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게 된다. 여성운동은 미군정에 등에 업은 우익세력의 득세와 미군정에 의한 좌익세력의 패퇴로 결론지어졌다. 남한에서 좌익여성운동은 탄압과 체포로 소멸, 지하화 되었다.

이렇게 미군정하에서 변혁적 여성운동이 실패한 이후 한국여성운동은 50년대를 거쳐 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여성대중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운동이었다기 보다 기껏해야 상류층 지식여성들의 여가선용적 활동에 그쳤고 5·16이후로 이어지면서도 독재권력의 충실한 하수인이었으며, 여성해방을 위한 운동과는 더욱 더 거리가 멀어졌다. 남한에 외세의 지원하에 친미반공정권이 세워진 이래 여성운동도 한쪽 방향으로만 고정되어 친미 반공적 여성운동으로 일관한 것이다. 분단이후 한국여성운동은 체제유지적, 어용적, 지배계급 여성중심적이었으며, 그럼으로써 한국사회의 모순으로 고통당하는 여성대중의 문제해결과 무관한 이름만의 여성운동으로 유지되었다.

이상에서 우리 여성운동의 흐름을 간단히 훑어보았다. 우리나라의 소위 여권적 여성운동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여권운동이 달성했던 여성의 법적, 제도적 평등조차 달성하지 못했다. 부르조아 여성운동은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붙어 오르면서 여성운동의 양상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작에서부터 식민지에서의 부르조아계급의 약화라는 특성으로 인해 미약한 측면을 보이고 있으며, 진보적 성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 외세가 부여해준 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으며 따라서 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여권운동의 특징이다. 한편 여성해방을 여권의 확립이 아니라 여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완전해방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변혁운동의 기본과제인 반제와 반봉건의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고 본 여성운동은 일제의 지배하에서 대중운동으로, 지하운동으로, 무장투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어왔으나 미군정하에서 외세에 의해 맥이 끊긴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빛나는 전통이 끊겨버린 것이다.

3. 80년대 여성운동의 발전

여성운동의 단절의 역사는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비로서 복원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70년대에 이미 싹이 트고 있었다.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붙어 오르면서 여성운동의 양상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70년대 여성대중들의 자연발생적인 투쟁속에서 진정한 여성운동의 주체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민중적 여성운동이 태동되고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극심한 착취에 분노하면

서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있던 여성 지식인들이 먼저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75년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여성인간선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70년대 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격렬해지고 Y.H여성노동자들은 결국 유신독재가 무너지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 그러나 80년의 봄은 다시 겨울로 회귀하여 5공독재가 시작되었다. 진보적 여성운동의 모색도 역시 지연되었다. 민주노조가 파괴되면서 여성노동운동 활동가들은 거리로 쫓겨났으며, 혹은 좌절로 혹은 결혼으로 노동현장을 떠나면서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은 80년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여성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진보적 여성운동의 모색은 1983년 여성평우회의 창립으로 비로소 가시화되었다. 여성평우회는 여성해방이념이 명확한 내용을 갖추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정립된 것도 아니었으며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갖고 진보적 여성운동을 실천해 나가게 된다. 여성평우회는 여성운동의 주체를 근로여성, 농촌여성, 도시빈민여성, 도시주부로 상정하였고, 여성운동은 전여성의 인간화운동이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비인간적 요소를 타파하려는 총체적 운동이 되어야 하며, 통일을 향한 민주 의지를 토대로 삼고 여성으로서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전개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여성평우회는 여성운동의 위상을 실천을 통해 확립하기도 전에 운동노선을 둘러싼 논쟁의 와중에서 와해되어 버리고 그 이후 여성운동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여성평우회운동의 반성속에서 과학적 여성해방이념의 정립이 시급

하게 요청되었고 민중적 여성운동은 지식인 여성들의 생존권지원 운동이 아닌 민중 여성운동으로 정립되어야 할 가능성과 필연성이 객관적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1986년 후반기 여성운동단체들은 기층 여성의 생존권 보장운동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생존권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권인숙 성고문사건 이후에는 성고문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부패한 독재권력과 독점자본에 대한 싸움을 벌려나갔다. 87년 5월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전체 사회운동의 힘이 반독재 연합전선을 형성함에 따라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의 구심도 전면적인 반독재 투쟁으로 모아졌다. 여성들의 민주화투쟁은 시청료거부운동, 최루탄추방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6·18 최루탄 추방운동은 87년 6월 투쟁의 기폭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87년 민주화대투쟁에 참여하면서~~ 여성운동의 정치적 투쟁력이 급격히 고양되었으며 이를 여성대중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로 연결시켜야 할 필요성이 여성운동의 당면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기반으로 87년 이후 88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여성운동단체들이 속속 결성되었다.

1987년 2월 18일 생존권대책위, 성고문 대책위를 모태로 21개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족하였다. 1987년 3월 21일 70년대 민주노조 출신의 여성노동자와 여성평우회출신의 활동가들이 결합되어 여성노동자 운동단체인 한국여성노동자가 창립되면서 비로소 여성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문제와 여성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문제해결을 위해 운동하는 단체가 만들어졌다. 87년 9월 특정계급계층에 집중하지 않는

여성민우회가 결성되었고, 뒤를 이어 지방에서 민우회와 비슷한 성격의 제주여민회, 충남여민회, 대구여성회, 경남민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회, 전북여성회, 거창여성회가 창립되었다. 이상과 같이 87년 이후 새롭게 창립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여성문제를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구조로 인해 여성이 당하는 억압과 종속, 차별과 착취의 문제로 정의하면서 여성해방은 궁극적으로 여성문제의 근원인 한국사회 모순구조가 타파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한국여성운동은 대남성투쟁이나 여권확장운동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모순구조를 해결하려는 운동, 즉 변혁운동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지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운동의 과제도 전체 변혁운동의 과제와 동일한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이라는 일반과제와 여성의 생활상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즉, 여성문제의 제기과 선전과 해결) 여정대중을 변혁주체로 형성시킨다는 특수과제가 설정되었다. 80년대 후반 이러한 여성운동의 흐름을 단절된 전통의 복원이라고 보는 것은 운동의 오랜 단절과 서구여성해방이념의 영향으로 한국여성해방을 위한 올바른 여성운동의 이념이나 이론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거둬들어 왔던 혼란에서 벗어나 바른 궤도에 정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4. 민중여성운동의 여성해방이념

80년대 후반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여성운동은 민중여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을 억압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운동이라는 의미에서 민중여성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민중여성운동은

여성해방은 궁극적으로 여성문제의 근원인 한국사회 모순구조가 타파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어떠한 여성해방이념의 운동이며, 조직화의 정도는 어떠한가? 이 장에서는 여성해방이념을 다음 장에서는 조직의 현황을 보기로 한다.

여성해방이념의 핵심적 내용은 여성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방법에 관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여성운동은 성차별이 무엇에서 기인하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여성해방이념에 따라 운동의 방향, 내용이 달라졌다. 여성해방이념은 여성운동의 나침반으로써의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올바른 이념을 정립한다는 것은 여성해방의 관건이 된다.

80년대 여성운동은 여성해방이념 정립을 바르게 정립하여 여성문제 인식에서 성차별의 특수성에 과다하게 경도하여 발생했던 인식상의 오류에서 벗어나 여성문제의 본질을 기본 모순과의 규정성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진로를 바르게 설정하게 되었다.

한국사회 여성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문제의 올바른 규명은 40년 이상의 우회기간을 거쳐야 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운동의 전통이 단절됨으로써 우리 여성운동의 역사적 발전속에서 여성해방이념의 발전이 도모된 것이 아니라 서구 특히 미국여성해방이념의 직수입으로 이념의 내용이 채워졌고 그 폐해는 곧바로 여성문제의 본질을 규명하는 문제인식에서의 오류로 나타났으며 이어 여성운동의 방향

과 진로를 잡지 못하는 실천상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여성평우회운동 단계에서 까지만 해도 여성문제란 무엇이고 무엇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다. 가부장제라는 개념이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나타내는 것으로 막연히 사용되면서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로 자본주의와 엇비슷하게 가부장제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실천상에서 여성운동의 과제로 풀어낼 때는 가부장제는 가부장적 문화 즉, 성차별적 문화와 의식으로 규정되었다.

여성평우회 이후 여성운동의 방향을 잡기위한 한국여성운동의 주체와 대상, 과제 등의 규명을 위해 여성억압의 구조, 여성문제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과 착취, 여성의 가사노동 전담, 여성의 성의 상품화로 나타나는 여성문제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여성문제는 지배종속적인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자본과 노동간의 모순에서 파생하는 문제의 일종인가? 여러 이론들이 검토되고 비판된 후 여성문제의 본질은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이나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관계인 생산관계가 여성문제를 주조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자본에 의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지배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노동에 대한 차별과 착취가 발생하며 여성의 가사노동 전담은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유지된다.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 전담으로 노동력 재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자본은 노동력 재생산비를 낮춤으로써 임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지배종속적인 남녀관계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소수의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비소유자를, 생산수단을 소유한 남성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여성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다.

이에 따라 여성문제를 남녀관계와 계급관계가 병렬적으로 상호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이론 즉,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양자를 여성억압구조로 설정하는 이론은 오류임이 지적되었다. 여성문제의 본질은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이나 지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관계인 생산관계에 있다. 즉, 여성문제는 계급문제에 의해 주도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문제가 보편적 모순이라고 한다면 여성문제는 특수한 모순으로 관찰된다고 하는 여성문제 인식에 다르면서 잘못된 여성문제 인식이 여성해방의 이념차원에서 수정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와 여성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문제, 즉 사회적 노동에서의 배제와 가사노동의 전담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노동에서의 차별과 착취의 문제, 그로 인해 남성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종속의 문제 등 외에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덧붙여지고 있다. 첫째, 근대적 법적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전근대적 가족법으로 여성의 법적 권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둘째,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과 착취의 정도가 극심하다.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밑받침으로 고도경제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여성농민, 도시빈민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봉건적인 성차별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넷째, 매춘여성문제가 심각하다. 자본주의의 성의 상품화와 제국주의의 성침탈이 겹쳐지면서 매춘여성의 수가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수와 거의 맞먹을 정도이다.

이러한 한국여성문제의 특수성은 한국 사회 모순구조의 특수성의 반영이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문제는 식민지사회이면서 자본주의사회인 한국사회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운동도 반외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이때 여성운동의 대상은 자연히 외세와 국내 독재권력과 독점자본이 되며 여성운동의 주체는 광범한 민주세력으로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도시 소시민 등 계급계층 여성들이 된다. 여성운동은 계급계층 내에서 구축된 여성부문과 그 공고한 연합을 일컫는 것이다. 물론 여성노동자운동과 여성농민운동이 여성운동의 핵심역량으로 여성운동을 이끈다.

5. 민중여성 운동조직의 현황

87년을 정점으로 창립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 각지에서 활발한 조직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서울에는 한국여성노동자회(87.3), 여성민우회(87.9), 여성의 전화(85)가 있고, 인천에는 인천여성노동자회(87.1), 부천에는 부천여성노동자회(89), 수원에는 수원여성회(89), 대전에는 충남여민회(87.12), 대구에는 대구여성회(88.1), 부산에는 부산여성노동자의 집, 부산민주청년회 여성분과, 마산에는 경남여성회(87.4), 광주에는 광주전남여성회(88.2), 전주에는 전북민주여성회(88.2), 제주도에는 제주여민회(87.11)가 있다. 강원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각도에 여성운동단체가 있는 셈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문제는 식민지 사회이면서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사회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 여성단체가 거의 동시적으로 결성되게 된 것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부천시 성고문사건 대책활동, KBS 시청료 거부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적 의식이 높아졌으며 이는 곧바로 87년 6월 18일 최루탄 추방운동으로 연결되었다. 6월 민주화투쟁에 여성들이 전국에서 참여하였으며 대통령선거에서는 공정감시단 활동으로 다시 한번 여성들이 결집되었다. 여성들의 투쟁 경험이 축적되고 전반적인 사회운동이 고양되면서 여성대중을 목적의식적으로 묶어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각지에서 이 요구와 필요성을 즉각적으로 단체결성을 통해 현실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중앙에서는 축적된 여성운동의 경험이 있었고 각 지방에서는 여성운동의 경험은 없었으나 지역의 민주화운동이 지역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경험한 여학생들이 축적되고 여성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여성활동가가 배출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여성운동의 구체적인 조직현황을 여성노동자운동, 여성농민운동, 전업주부운동, 노동자부인운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1) 여성노동자운동 1985년 현재, 여성

노동자계급은 236만으로 전체 여성의 40%이다. 이 중 단순사무원이 52만, 단순 판매원이 21만, 서비스직이 47만, 생산직이 110만이다. 여성노동자운동은 이들이 노동하는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이다. 여기에는 노동조건에 관한 여타의 문제와 차별임금, 모성보호, 평생노동권의 문제 등 여성의 독자적 문제가 포함된다. 70년대 노동운동에서는 여성노동자의 특수한 문제는 운동의 과제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노동문제가 해결되면 여성노동자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여성문제의 제기는 오히려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바로 잡혀지면서 노동운동의 대열을 강화시키는 여성노동자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축적으로 여성노동자운동의 의미,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노동운동내에서 실천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여성노동자운동은 생산직의 경우, 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 운동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의 여성노동자운동은 단위노조와 지역별 노조협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단위노조에서 여성노동자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노조협의회는 여성국이나 여성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의 발전전망은 단위노조 여성부가 산별연맹 여성부로 묶이고 이것이 다시 전국적인 지도기관화에 편제되어 노조에서의 여성노동자운동을 추동하게 될 것이다. 노조에서의 여성노동자운동의 상황을 보면 이제 막 노조의 간부나 여성간부들이 여성부들의 필요성과 여성노동자들의 요구, 즉 차별임금이나 모성보호, 결혼·

임신·퇴직철폐 등의 여성노동자 문제가 노조의 요구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다.

여성노동자운동단체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중사업을 전개하는 단체와 전문지원 활동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구나 공간이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성남민주여성회는 대중조직으로 조직의 위상을 세우고 있으며 부산여성노동자의 집은 현재 공간이지만 대중조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단체도 지역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것을 축으로 전국적인 단위가 결성됨으로써 통일과 단결의 중심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사무, 판매, 서비스직의 경우 역시 운동의 조직적 실천단위는 노조와 여성노동자 운동단체이다. 금융, 보험, 은행, 병원, 백화점과 대형서점에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노조여성부의 필요성이 홍보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사무직 여성노동자운동 단체는 생산직에서처럼 독자적인 대중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가 보다 조직대상을 주부와 함께 설정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많고 있다. 여성민우회와 여성의 전화의 사무직 여성분과에서는 노조와 연관을 갖고 교육을 실시하고 여타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여성단체는 초기에 생산직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대개 사무직 여성쪽으로 집중해가고 있다. 대구여성회의 경우 회원구성이 대졸 인텔리여성, 사무직여성들이 많았음에도 사업방향을 생산직 여성노동자에 맞춘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사무직 여성노동자에 주력하기도 하였다.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은 대구지역 해고여성노동자 중심으로 여성노동자회가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전남회도 생산직의 경우는 노조여성부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노조조차 꾸려지고 있지 않은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에 주력하기로 하고 있다.

(2) 여성농민운동 여성농어민층은 1985년 현재 160만명으로 전체 여성의 27.1%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은 누구나 주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의 노동력 유출이 극심해지면서 중요한 농업노동력으로서 농민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농민운동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84년에 비로서 농촌여성이 아니라 여성농민이 농민운동의 주체로 설정되고 여성농민운동이 변혁운동의 한 부분운동으로 개념화되었다. 여성농민들의 투쟁력이 남성못지 않다는 것도 이후 농민운동에서 검증이 되었다. 85년 전국 소몰이시위에 여성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87년 88년 수세, 의보, 농산물 생산비 보장투쟁 고추싸움 등에서 여성농민들의 진출이 눈에 두드러졌다. 그러나 여성농민대중을 조직화할 수 있는 기반은 앞에서 본 것처럼 협소하였고 또한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여성농민운동단체의 모색이 지연되어왔다.

목적의식적인 여성농민운동의 지도는 카톨릭농민회 여성부, 기독교농민회 여성부, 카톨릭여성농민회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분회형태로 여성농민을 조직화해왔다. 그러나 카톨릭과 기독교농민회의 여성부의 경우 여성농민의 독자조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는 한계가 있고 여성농민운동을 전담하고 있는 카톨릭여성농민회의 경우는 조직화의 범위가 경기도 지역에만 한정되고 있으며 여성농민대중 속에 뿌리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과 여성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한 자주적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국여농위가 결성

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85년부터 여성농민운동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여성농민운동의 통일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것이 가시화된 것은 88년 3월 1일-2일 전국 여성활동가 간담회에서였다. 이 회의에서 여성농민조직 활동화방안에 대해 논의가 되면서 교육과 선전투쟁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국여성농민 조직활성화 위원회를 꾸리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어 전국여농위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이땅의 자주민주통일과 여성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한 자주적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국여농위가 결성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농민대중을 토대로 한 조직의 구심이면·군·도 단위에서 꾸려질 수 있었던 점과 특히 전남북의 도단위 여농회준비위원장과 각 면·군단위에서 여성농민대중조직이 건설되면서 여성농민운동을 미약하나마 하나의 체계로 꾸려낼 수 있었다. 이와함께 전민연의 결성과 전국적인 농민운동 조직인 전농연의 출범 등이 조직결성을 서두르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국 여농위가 결성되면서 카톨릭여성농민회는 기구적 성격의 한계를 인식하고 여성대중조직의 건설을 위해 경기도 여성농민위원회의 결성과 함께 해산을 하였다.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역별 조직의 수준과 내용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군여성농민회가 결성되거나 결성준비중이며 도단위에서도 여성농민준비위원회와 여성농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각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화성, 여주, 안성, 남양주에 면·군단위 조직이 있으며 경기도 여농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충남에서는 충남여농조직 활성화를 위한 모임이 꾸려지고 있다. 충북은 활동가모임이 구성되어 있을 뿐으로 괴산군을 제외하고는 초보적이다. 활동가들이 도단위로 모여 군단위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이다. 경남은 아직도 단위 논의체계를 꾸리지 못하고 있으며, 거창여성농민회가 결성되었을 뿐이다. 경북은 경북여농회 준비를 위한 소모임이 결성되어 있다. 총 24개 군중 10개군 여농조직이 구성되면 경북 여농회 준비위를 결성하기로 하고 있다. 전남북에서 유일하게 여농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다.

전국 여농위의 활동방향은 각 도·군·면단위의 여성대중조직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교육선전과제개발을 통해 현장활동을 최대한 지원하여 각급 단위 여성농민운동의 내용적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하는 전국적 구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조직된 도·군·면과 미조직 단위의 조직화를 통해 실질적인 여성농민운동의 통일된 전국적 조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전국여농위의 과제가 된다.

(3) 전업주부운동

현재 전업주부의 수는 약 600만이 조금 넘는 정도이다. 그러나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부들의 운동은 반공여용단체들의 전유물이었다고 주부들의 활동이 운동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대중

운동의 영역으로 주부운동이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 것은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노동운동에만 집착해 있었던 편향성에서 벗어나 운동의 주체세력을 광범한 민주세력으로 설정하게 됨으로써 대중운동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민족민주운동의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여성운동도 전업주부의 생활상의 이해를 전체운동의 이념과 연결시켜 이슈화하고 이들을 정치세력으로 조직화하여 전체운동의 전선에 묶어낸다고 하는 새로운 인식하에 주부운동이 각 단체의 운동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단계 주부운동은 조직과 실천에서는 명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주부운동을 모색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여타 계층의 여성들의 조직화 활동과 병행시키면서 팀단위로 주부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인텔리주부와 간호원, 은행원, 대학교직원, 사무원, 판매원 등을 동시에 조직화하고 있다. 지방여성운동단체들과 여성의 전화, 여성민우회가 대표적인 예이다. 여성의 전화는 주부운동의 경험이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성폭력추방운동을 다양한 차원에서 벌려나가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주부들을 거주지역 중심으로 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주부운동의 대중조직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노동자부인운동

노동자계급부인의 경우 취업과 전업주부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다. 이들은 육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부인의

운동은 남편의 노동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으로 출발하였다. 가족협의회, 가족실천위원회, 가족투쟁위원회 등으로 결집된 노동자 부인들은 노동자 계급의 일성원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노조지원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노동자 부인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억압 차별당하는 여성으로서의 문제를 해결하여 자주적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동아건설 창동노조, 오산 아주파이프, 안양 경원제지, 지하철노조, 부천 삼령정밀, 마산 삼미금속 등에서 가족위원회를 노동자부인조직으로 바꿔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 부인조직은 노조와의 연계는 물론 여성노동자 운동단체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5. 맺음말 :

90년대 여성운동의 과제와 전망

이상에서 87년 이후 여성운동의 성격을 이념과 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에는 교육, 선전, 조직 등의 여성단체들의 일상활동과 정치투쟁은 다루어지지 않은 극히 불완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성운동의 현단계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중여성운동의 대중적 조직기반은 아주 협소하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여성단체들이 대중조직의 전망을 세우기는 했지만 지금은 활동가 조직에 불과하다. 민중여성운동단체들이 우리나라 전체 성인여성인구의 몇 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곧 현재의 상태가 분명해진다. 따라서 현재 여성운동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대중성을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대중을 조직화할 것인가이다.

아직도 자기 대중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지 못한 단체들은 우선 하나의 계급계층에 치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개별 여성단체가 명실상부한 대중조직으로 설 때 여성단체연합도 공투체가 아닌 정치적 구심체로서의 자기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각 여성단체는 하나 하나의 사업을 조직화로 수렴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자기 대중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지 못한 단체들은 우선 하나의 계급계층에 치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민우회가 88년 12월 총회에서 생산직 분과를 폐기하고 주부와 사무직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나 지방여성단체들이 사무직여성들로 조직대상을 집중해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여성운동은 민주적인 여성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투쟁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이 성공하면서 법개정운동에 자신감을 갖게된 것도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반봉건성과 비민주성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근대적인 법적권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족법, 에이즈 예방법, 매매춘방지법, 모자복지법 등의 개정운동이 여성운동의 중요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민중여성운동의 정치투쟁력이 낮다. 정치투쟁은 '여연'이 전민련에 참여하여 함께 하는 공투에 그치고 있다. 이는 여성운동과 정치투쟁을 분리시킬 위험이

있다. 여성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의 정치세력화이다. 여성들이 정치세력으로 조직화될 때 비로소 여성해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중여성운동의 중요과제는 여성운동이 어떻게 정치투쟁을 수행할 것인가인데 이는 여성대중의 정치의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중여성운동의 정치적 대중선전력을 여연 차원에서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단체간의 정치적 입장을 통일해가려는 노력과 이를 회원단체내 회원들과 공유해나가면서 정치투쟁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90년대 여성운동의 과제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여성운동에서의 여성노동자 운동의 지도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것은 물론 여성노동자 운동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단위 여성노동자운동의 조직적 기반을 넓혀나가는 것과 지역단위의 전국적 결집이 현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운동의 지도력이 담보될 때 여성단체연합이 정치적 구심체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계급 계층 여성운동간의 연대, 각 지역내 연대, 전국적 연대, 잇슈별 연대가 활성화되면서 연대의 질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고립분산적으로 진행되던 여성운동에서 통합적 여성운동으로, 형식적 연대에서 내용적 연대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여성단체연합의 힘에 의해 연대운동이 발전할 수도 있지만 연대운동의 발전에 의해서 여성단체연합의 힘이 강화될 수 있다.

셋째, 전국여성농민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전국적 조직화가 이루어진 여성농민운동을 여성단체연합내로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성농민운

동은 여성노동자운동과 더불어 여성운동의 핵심역량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여성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선전의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고 또한 대중운동 활동가가 대폭 증가되어야 하며 그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여학생운동과 여성운동간의 논의와 활동의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운동의 여성대중의 요구와 이해에 근거할 때 비로소 여성대중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를 정확하게 판별해내기 위한 연구작업이 필수적이다. 여성운동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적 연구를 해내는 여성학술운동의 확산과 발전이 여성운동의 또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여섯째, 여성운동의 일반과제(자주, 민주, 통일)와 특수과제(여성에 대한 제차별의 철폐)를 통일시켜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이 분리될 때 여성운동은 탈정치운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과제에 대한 정치투쟁이 앞서나갈 때 여성운동은 대중과 분리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과제와 특수과제의 배합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대중의 정치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대규모의, 전국적인 정치교육 선전이 타 운동단체와 여성운동단체의 연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90년대는 결코 밝지 않게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민중여성운동은 꺾임없이 힘차게 발전해나가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벽을 이끌어야 한다. 여성대중이 바로 그 힘이다. 90년대를 여성대중에 의한 여성대중의 여성운동으로 마감할 때 우리사회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동서독 관계

-연구방법론과 원전의 근거를 중심으로-

이 철희 (고대 대학원 비교정치 석사수료)

-글의 순서-

- I. 글을 시작하며
- II. 연구방법론과 분석의 문제들
- III. 변화의 주요특징과 그 이해
 - 1) 프롤레타리아독재와 민주주의
 - 2) 당의 지도적 역할
- IV. 동·서독 관계
- V. 약간의 결론적 정리와 전망

"이제 누군가 부패하지 않은 마르크스주의를 대중의 지식이 되게끔, 있는 그대로의 발굴작업을 맡아야 한다" (레닌, 『국가와 혁명』).

"그러나 주어진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마르크스주의 자라면 가능한 것(what is possible)으로 부터가 아니라 현실적인 것(what is real)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레닌, 「전술에 관한 편지」).

I. 글을 시작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권의 '변화' (이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는 '개혁', '혁명', '수정',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에 대한 시작정립은 매우 절박한 이론적·실천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변화의 '총제상'에 대한 '총제적' 이해

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 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 침묵은(의도적인 것이든, 무지에 의한 것이든) 곧 실천의 방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현실운동이 요구하는 실천적 과제라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 운동의 발전을 담보해줄 유력한 이론적·정치적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80년대 운동의 집약적 표현인 ‘운동의 과학화’ 테제에 충실하고자 할 경우,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현실운동의 몇가지 부분에 있어 발전을 장애하고 있는 ‘일시적 지체와 혼란’을 해소 하는데에 중요한 계기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학’이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과학이 요구하는 바는 첫째, 다른 나라들, 특히 역시 자본주의적인 다른 나라들이 경험하고 있거나 최근에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그 나라의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문제의 한 나라에서 움직이고있는 세력, 집단, 정당, 계급 그리고 대중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정책이 단지 한 집단이나 정당의 욕구나 견해, 그리고 의식 및 투쟁태세의 수준에 따라 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¹⁾

위의 언급은 대단히 중요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과학이 타국의 경험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인용에서는 ‘자본주의국’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데, 그것은 인용문의 집필 당시가 러시아혁명 직후(1920)라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혁명과 이행(건설)은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현재적 조건에서 타국의 경험에서 타국은 사회주의권이나 자본주의권 모두를 포괄한다. 이러한 논리는 전제한다면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과학’의 요구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타국의 경험을 고려하는것은 일면적으로 이해될 경우 교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타국의 경험을 고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보편성은 특수성을 매개로 관찰된다는 유물론철학의 변증법이라는 방법론을 견지하여야 한다. 타국의 경험은 일반성이 관찰되는 과정이지만 그 매개인 특수성을 무시하고 형식적 일면성에 집착하는 것은 교조주의의 기본적 법칙이다.

다른 한편 보편성이 관찰되는 특수성을 ‘원칙적 차이’로 인식하여 특수성의 보편화로 전락하는 경우도 지적되어야 하겠다. 변증법의 핵심은 보편성이 관찰되는 매개인 특수성이 그 ‘형태상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동일한 구체화라는 것이다.

타국 경험을 고려하는 두번째 방법론적 원칙은 ‘경험의 요약’(summing up of experience)²⁾이다. ‘경험의요약’이란 마

1)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 소아병』(둘베개:1989). p. 89.

2) 레닌, 『국가와 혁명』. 칼마르크스『프랑스 혁명 3부작』(소나무:1987). p. 369. ‘경험의 요약’이란 개념의 「국가와 혁명」. 2장. 3장을 볼 것.

르크스·레닌주의에 있어 '이론과 실천의 통일'태세를 담보하는 방법론적 원칙이다. '경험의 요약'은 '관료적 경고', '지적 속물의 관점', '일반적 진리의 단순한 논리적 전개'와는 대비된다. 즉 경험의 요약은 "기껏해야 각 시기의 구체적, 정치적 조건들에 의해 필시 수정될 수 있는 일반적임무들만을 설정할 수 있을 뿐인 '공식들'을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⁴⁾에 불과한 관련적 경고, 지적 속물의 관점, 일반적 진리의 단순한 논리적 전개의 방법론이 아니라 이론을 '행동의 지침'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론 작업인 것이다.

'경험의 요약'은 대체로 3가지 구성부분을 갖는다. ①하나의 투쟁(광의의)이 지니는 '그 투쟁의 의미, 제사건의 전반적 진행과정상 그 투쟁의 역할, 그리고 이전의 투쟁형태에 대한 그 투쟁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②①의 분석을 통하여 투쟁의 좀 더 고차원적인 제형태의 기술 등의 '기술적 제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전술상의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다. ③그 교훈이 새로이 시사하는 바에 비추어 '과학적 이론'을 재검토(무원칙적인 '수정'(revision)이 아니라!)하는 것이다.

세째로 타국의 경험을 고려한다는 것은 앞의 인용문의 둘째 부분과 관련하여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타국의 경험을 고려할 경우 고려의 대상이 되는 나라의 경험을 그들 스스로의 '내재적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분석·연구하는 것이 과학의 요구이자 현실운동의 요청이다.

발전법칙'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타국의 경험을 유평파아적 낙관의 근거나 반동적 비판의 토대로 사용하는 것은 변증법에 대한 의도적 우롱이다. 그 나라의 경험을 규정하고 있는 모두를 고려하고 그들 제요소간의 '특수한 관계'를 포착·해명하여야 한다.⁴⁾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분석·연구하는 것이 과학의 요구이자 현실운동의 요청이다. 그리고 그 분석·연구의 방법론적 원칙·기제로써 경험의 요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적 논의는 현재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관하여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혼란을 올바르게 질서지우고 그들 해석의 '목적성'을 폭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규명은 이데올로기적 투쟁이자 현실적 투쟁이다.

「이 글은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연구방법론과 원전의 근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큰 논의 속에서 동서독의 관계를 특화시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

4) 과학이 요구하는 둘째 사항은 한 나라에서 '지도'가 '대중'을 어떻게 포섭 견인할 것인가의 제1원칙으로도 의미를 지닌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적·전략적 원칙이다.

다. 따라서 이 글의 한계는 정태적이며 원론적이라는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하는 것은 그것이 현재의 실천적 요구에 답하는 적절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II. 연구방법론과 분석의 문제들 (problematic)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의미하는 합의와 이론적 과제를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의 ‘혁명 이후 사회’의 위기와 새로운 혁명이 그 이전의 어떠한 위기보다도 심각한, 마르크스주의의 유례없는 위기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순수이론적 설명과는 전혀 다르게 ‘혁명 이후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된 프롤레타리아 정치와 국유화·계획화가 국가주의적 ‘당=국가체제’의 강화를 통해 참으로 놀랄만한 ‘좌익독재’ 및 생산력의 낙후성과 결합된 특유한 새로운 ‘카스트’, 따라서 새로운 불평등 구조를 확대재생산해왔다는 것이 의문의 여지없이 드러남으로써 역사 진보에서 갖는 그것들의 원리적 의미자체가 위협받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극복시도로써의 새로운 혁명이 그 구체적 양상과 속도 및 수준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복원과 창조적 발전으로 보기 어려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구체

제의 수호자들의 비판이나 부르조아적 모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객관적 현실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의 폐기와 다당제의 수립, 공산당 자체의해체와 사회민주당 또는 비마르크스주의적인 새로운 좌파정당으로의 변신, 그리고 비마르크스주의 세력의 주도에 의한 연립정부구성-동독은 공산당이 주도-과 국호의 변형등의 사태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레닌으로의 복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발전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출발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도 지금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전인류적 가치 우위론과 인간적 민주적 사회주의론) 그러므로 이제 정치적으로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의미, 권력의 독자적인 행사 방식과 그 제형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따라서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넘어서는 질적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정치적 실권’의 가능한 구체적 실현형태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국유화와 계획화의 의미, 시장경제의 성격과 역할, 국유화와 사유의 결합 및 계획과 사상의 변화, 따라서 진정한 사회화의 의미와 그 가능한 구체적 실현형태 등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국주의와 ‘혁명 이후 사회’의 상호침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체관계 성격과 영향 등의 문제를 ‘혁명 이후 사회’의 위기와 새로운 혁명의 살아있는 현실에 비추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되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⁵⁾

5) 이 병천, 「현대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말』, 2월호. p.157.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되듯 인용문의 필자는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위기’, 즉 “위기는 프롤레타리아 정치, 국유화·계획화 그자체의 위기이며 새로운 혁명의 주요한 경향성은 탈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경향성을 띠고”⁶⁾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그는 사회주의권의 현재적 변화를 탈스탈린주의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혁명’ 이후 사회의 위기를 단지 스탈린주의의 위기로만 보면서 새로운 혁명을 사회주의의 강화-마르크스주의의 강화·발전으로 이해하고 있다. (스탈린주의)에 대해 상상 가능한 최대의 변호론인 그 역사적 필연성과 진보성론, 부분적 왜곡 전체적 긍정론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것은 ‘혁명 이후 사회’의 내적 모순과 위기에 대한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전면분쇄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변형된 형태의 또 하나의 ‘당=국가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과 실천의 진리성이 ‘본래의’ 마르크스주의, ‘본래의’ 레닌주의 속에 순수한 형태로 간직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혁명 이후 사회’의 위기와 새로운 혁명에 대한 해석에서는 이들과 견해가 다르지만 그것이 오늘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갖는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혁명’ 이후 사회의 위기를 단지 스탈린주의의 강화 - 마르크스 주의의 강화·발전으로 이해하고 있다.

의미에 대해서는 놀랄만한 불감증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역시 마르크스주의의 진리성이 미리 보증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자와 차이가 없다.”⁷⁾

오늘날의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매우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 ‘심각한 오류’의 내용을 방법론의 논의와 관련하여 하나 하나 따져보기 이전에 우리는 다음의 경우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변혁의 곤란과 실패를 심술궂게 기뻐하며 혼란을 일으키며 과거로의 복귀를 선전하는 것-모든 이러한 것이 부르조아 인텔리겐차의 계급투쟁의 수단이며 방법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이러한 것에는 속지 않을 것이다.”⁸⁾

위의 경구를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기적의 부적’이 아니라는 것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경험주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몽

6) 위의 논문, 위의 책. p.158.

7) 위의 논문, 위의 책. p.157.

8) 레닌, 「위대한 발기」. 레닌『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하여』(삶과 함:1989). p.148.

상가들 예언집이나 종교적 교리서로 인식할 경우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절대로 '과학'이지 않다. 이론은 이론으로써의 자기독자성은 갖지만 절대성을 갖지 않는다. 이론은 실천과의 굳건한 통일속에서만 자기 독자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위기로 간주하는 것은 이론과 실천의 '구분'을 '형이상학적 분리·대립'으로 파악하는 스킨라적 현학에 다름아니다.

물론 위기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사용하고, 원전의 암송에만 길들여져 있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목적의식성이라는 측면에서 견해의 건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의식성이 객관화되는 계기나 조건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목적의식성의 주관적 열망으로의 전략에 이르는 첩경이다. 이러한 문제의 지금까지 소개된 몇가지 견해는 '최악의 무원칙과 동요'에 다름아니며 현실의 계급투쟁에서 부르조아의 방법론의 타류에 휩쓸리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론으로써 변혁에 복무하고자 하는 (이 표현도 매우 민감한 정치적 견해를 담을 수 있는 것이지만 상식적인 의미로 채용한 것이다)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지배계급에 속하였던 인물이 프롤레타리아의 진영에 가담하고자 할 경우 지적되어야 한다고 한 두가지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가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실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현실적 교양자료(resl educative elements)를 운동에 가지고 와야만 할 것이다. ...

(반대로 이들은-필자주)우선 자신이 새로운 과학을 깊이 연구하는 대신에, 각자는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온 견해에 이렇게 저렇게 꿰어맞추려 하였으며, 재빠르게 자기 자신의 사적(私的)과학을 만들어 즉시 이 과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들에게는 각 사람마다 자기의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로 만약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다른 계급 출신자들이 참가하고자 한다면 우선 필요한 조건은 그들이 부르조아적, 소부르조아적 및 이와 유사한 편견의 잔재를 가지지 말고, 전적으로(whole-heartedly)프롤레타리아적 전망(세계관: outlook)을 수용하는 것이다."⁹⁾

여기서 오해의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언급할 것도, 이글을 특정 입장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글에서 다른 견해의 인용은 '대자적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적의 부적', '교조'로 이해하거나, 그것의 논리적 귀결인 '일반적 진리의 단순한 논리적 전개' 그리고 이를 논리적으로 전제한 후

9) Marx, 「Circular Letter to Bebel, Liebknecht, Bracke and Others」. Tuckered 『The Marx-Engels Reader』(Xlorton Company: 1978). p.554.

의 ‘관료적 경고’, ‘지적 속물의 관점’과는 대립되고 대비되는 이해방법론의 합리적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관한 해답은 ‘경험의 요약’이라는 개념에서 도출된다.

‘경험의 요약’이 전형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1871년을 전후한 프랑스 혁명을 정리한 마르크스의 작업이었다. 마르크스는 1848~51년의 경험이 시사하는 교훈을 도출하여 이론을 ‘재검토’한다. 재검토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정리된 채로 제출된 이론을 무매개적으로 고수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형이상학적 화석화의 태도가 아닌, 즉 생동하는 대중의 혁명적 투쟁의 경험을 ‘역사적 경험의 견고한 토대에 엄격한 토대를’¹⁰⁾ 두면서 운동의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이미 제출된, ‘추상화된 형태로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용어와 표현으로 취급된’ 이론을 ‘교정’하고 ‘보안’하는 것이다.

1870년을 전후한 빠리꼬핀의 경험에서 마르크스는 ‘경험의 요약’을 통하여 국가들을 교정하고 있다. 요컨대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란 추상화된 테제적 원칙은 ‘경험의 요약’ 등과 같은 구체적 계기·매개에 의해 현실적으로 확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권의 ‘현재적’ 변화를 연구·규명하는 것은 변화가 되고 있는 구체적 조건에 대한 검토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론을 ‘행동의 지침’으로 파악하는, 관점없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위기’로 파악하는 것은 주관적 진의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오해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아무런 주저없이 그리고 완결된 결론의 제출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방법론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라는 규정은 도덕주의적 판단에 오염되지 않을 경우 문제의식의 건강성을 담아낼 수 있는 과학적 용어일 수 있다. 하지만 위기란 용어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면 ‘전환기’란 용어, ‘변화’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론 수준에서의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나아가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후자의 수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실화 수준의 문제는 곧 인간실천의 문제이며 동시에 지도의 과학성 문제이다.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아무런 주저없이 그리고 완결된 결론의 제출을 준비하는 사전작업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대적 사건이나 변화에 대한 분석·연구는 다음의 인용에서 그 방법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큰 사건들과 일상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소사건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곧바로 궁극적인 경제적 원인들까지 거

10) 레닌, 「국가와 혁명」 소나무. 앞의 책. p.371.

슬러 올라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오늘날 처럼 전문화된 기술수준의 인쇄매체로 인하여 풍부한 자료들이 제공되는 시대에 있어서도 산업 및 세계시장에서의 교역의 움직임과 생산 방법상의 제변화를 낱알이 추적하여 특정시점에서 이와같은 매우 복잡하고 항상 변화하는 요인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들을 도출해내는 것을 영국 자체내에서도 불가능한 일로 남아 있다.

더우기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은밀하게 작용한 다음에 돌발적으로 강력하게 표면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특정시기의 경제사에 대한 명확한 개괄은 결코 동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연구는 오직 자료의 수립 및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결과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 여기서 통계는 필수적인 참고자료이며, 통계는 항상 사건발생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당대의 역사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를 불변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 관련된 시기의 초기에 존재한 경제적 상황을 전체시기에 대해 주어진 것이나 바꾸어질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앞에서 확실히 존재하는 사건 자체로부터 발생하며 따라서 마찬가지로 뚜렷이 목격될 수 있는 제변

화만을 주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 유물론적 방법은 정치적 갈등들을, 경제적 발전의 결과로 마주치게 된 제사회 계급 및 계층에 속하는 각 분파의 각 이해관계 사이의 투쟁에 까지 소급 추적하고, 특정 정당들이 이 같은 계급 및 계층에 속하는 각 분파의 다른 적절한 정치적 표현으로써 제시되는 데에 멈추어야만 하는 것이다"¹¹⁾

즉 유물론적 연구 방법론은 "수년간에 걸친 발전과정에 내재된 내적 인과관계를 논증하는 것, ...즉...정치적 사건들을,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제요인의 제결과라는 것으로까지 소급 해석하는 것"¹²⁾이다. 따라서 연구·분석한 "가능한 것"이라는 제약에 우리를 묶어 주어야 하며, 부인할 수 없는 제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써 주요 제사건과 그 운동의 주된 변천을 설명해 주며 아울러 차후의 그리고 미구(未久)의 사태발발이 인민에게 알려 줄 방향에 관한 단서를 제시해 주는 합리적 제원인을 발견" 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제 분석의 문제들에 관하여 정리하여보자. 그것은 한마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 요약된다.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은 마르크스가 1848년을 정점으로하는 유럽혁명의

11) 엥겔스,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서문」. 소나무, 앞의 책. p.12~13.

12) 위의 논문, 위의 책. p.12.

과정에서 최초로 이론적 태반을 얻게되고 1875년 「고타강령비판」에서 정식화시키고 있다.

먼저 1848년의 경험에 관한 프롤레타리아독재론에 관한 정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모든 혁명의 근본문제는 권력의 문제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마르크스는 인민의 혁명적 독재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그는 대담하고 단호하게 모든 중세의 잡동사니를 제거할 수 있는, 즉 왕정과 함께 토지 소유자들에게 종말을 가져다 주고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적으로 완수 되도록 배려하는데 적합한 진정으로 혁명적인 권력을 세우자고 인민대중을 고무하였다. ‘모든 과도적 국가체제는 혁명후에 독재, 그것도 정력적인 독재를 필요로 한다.’* 인민의 혁명적 독재가 갖는 주요 과제중의 하나를 마르크스는 낡은 국가기구의 제거, 즉 반동세력이 몸담고있는 ‘낡은 기관들의 잔재’를 제거하는 것부터 찾았다.

레닌은 마르크스가 제시한 혁명적 독재라는 구호와 함께 중요한 것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단계에서부터 하나의 혁명적 권력을 조직하는 일로써 이러한 권력은 민주적 변혁을 보장해 주는데 이에

모든 혁명의 근본문제는 권력의 문제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마르크스는 인민의 혁명적 독재라는 구호를 제시

따라 그권력의 과제는 ‘반혁명(Konterr-evolution)을 방지하고 인민의 주권에 모순되는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제거하는 것’*** 이 된다고 썼다.”¹³⁾

그리고 「고타강령비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를 후자로 이행하는 혁명적 변혁기가 가로놓여 있다. 이에 조용하여 하나의 정치적 이행기가 있는데, 이 이행기에 국가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다.”¹⁴⁾

이에 관하여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하고 있다.

“하여간 국가란 투쟁과 혁명의 과정에

* Karl Marx 「Die Krisis und die Kontrerevolution」. MEW, Bd, 5, S.402.

** 같은 글, S.402.

*** W, Lenin, 「Zwei Taktiken der Sozialdemokratie in der demokratischen Revlution. L W, BD, 9, S.123-124.

13) 소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 『칼 마르크스 전기』(소나무:1989). P.260.

14) 마르크스 「고타강령비판」. 칼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프롤레타리아당강령』(소 나무:1989). P.98.

서 적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기 위한 과도적인 제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자유로운 인민·국가를 운운하는것은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프롤레타리아가 아직 국가를 필요로 한다면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적을 억압하기 위해서이므로 자유를 언급할 수 있게되는 순간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는 더 이상 존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 대신에 언제나 공동체 Gemeinwerem라는 말을 쓰자고 제안합니다. 이 말은 불어의 '꼬핀'에 꼭 들어 맞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독일어입니다."¹⁵⁾

프롤레타리아독재는 필연이며 그의 임무는 폭력을 통한 반항세력의 제거와 구 사회의 잔재를 제거하는 권력이라 정리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원칙이다. 이에 관해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계급의 존재는 오직 생산의 발전에 있어 특정 역사적 국면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2)계급투쟁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며, (3)이와같은 독재 그 자체는 단지 모든 계급의 폐지, 그리고 계급없는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¹⁶⁾

그런데 문제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내용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독재'라는 용어로 인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약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레닌의 프롤레타리아독재론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강제나 독재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상당히 긴 인용이지만 살펴보자.

"또 한편으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이행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독재의 주요한 원인에 의하여, 혹은 두개의 주요한 방향에서 독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첫째로 착취자들의 반항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근절할 수 없는데, 착취자들의 부, 그들이 조직과 지식의 우월성을 즉시로 박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가중된 빈민들의 정권을 전복하려고 시도 한다는 것은 피치못할 일이다. 둘째로 모든 대혁명 특히 사회주의 혁명은 설사 외국과의 전쟁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부에서의 전쟁 즉 국내전쟁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데, 이 국내전쟁은 외국과의 전쟁보다 더 심한 파괴를 의미하며-한편으로부터 다른 편에로의 동요와 전향의 수천수만의 경우를 의미하며-최대의 불안상태와 불균형상태와

15) 엥겔스, 「엥겔스 브라케에게 보내는 편지」. 위의 책. p.118.

16) Karl Marx. 「Class struggle and Mode of Production」(Marx to Joseph Wwgdemeyer), Tuckered. 앞의 책. p.220.

혼란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낡은 사회의 모든 와해적 요소는 불가피적으로 그 수가 극히 많고 또 주로 소부르조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왜냐하면 모든 전쟁과 모든 위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부르조아를 파산·멸망시키는 까닭이다.) 그것은 이러한 심각한 변혁 시에는 ‘자기 본때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와해적 요소가 ‘자기 본때를 나타낸다’는 것은 범죄, 불량행위, 매수, 투기 및 각종 추행으로 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처리하자면 시간과 철완(鐵腕)이 필요하다. (방점은 원저자)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완결적 정리는 다음의 두인용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계급투쟁의 종결인 것이 아니라 새 형태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의 연장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승리한 그리고 자기의 수중에 권력을 틀어 쥔 프롤레타리아가 패배는 당하였으나 근절되지 않았고 소멸되지 않은 그리고 반항을 정지하지 않고 도리어 반항을 강화하고 있는 부르조아를 반대하여 수행하는 계급투쟁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근로자들의 전위대인 프롤레타리아와 근로자들의 수많은 비프롤레타리아층(소부르조아, 소경영자, 농민, 인텔리겐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계급 투쟁의 종결인 것이 아니라 새형태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의 연장이다.

차 등등)과의 혹은 그들의 대다수와의 계급적 동맹, 자본을 반대하는 동맹, 자본의 완전한 전복과 부르조아의 반항 및 그들의 복고적(復古的)시도에 대한 완전한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동맹, 사회주의의 중국적 건설과 공고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맹의 특수한 형태이다. 이것은 특수한 종류의 동맹이며 이것은 사회주의의 확고한 지지자들과 거의 동요하는 동맹자들과의, 때로는 ‘중립자’들과의 (이러한 때에는 동맹은 투쟁에 대한 협정으로부터 중립에 대한 협정으로 된다) 동맹이며 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동일하지 않은 계급들 사이의 동맹이다.”¹⁷⁾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본질은 오직 폭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주로 폭력에 있는 것도 아니다.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주요한 본질은 근로대중의 선봉대이며 그들의 전위대이며 그들의 유일한 지도자인 프롤레타리아의 조직성과 규율성에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목적은 사회주의를 건설하

17) 레닌, 「소비에트정권의 당면과업」, 앞과 함. 앞의 책. pp.60-61.

18) 레닌, ‘연설 「자유와 평등의 구호로 인민을 기만하는 데 대하여」의 출판에 즈음한 서문’. 앞과 함, 앞의 책. pp.129-130.

고 사회의 계급으로의 분열을 폐절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근로자로 만들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의 기반을 청산하는데 있다. 이 목적은 단번에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상당히 장기적인 과도기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생산의 재편성이 곤란한 일이기 때문이며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근본적 변혁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소부르조아적 및 부르조아적 경영의 습성이 거대한 힘을 오직 장기간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프롤레타리아가 농민과 일반적으로 모든 소부르조아층들을 영도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독재, 한 계급의 권력, 그의 조직성과 규율성의 힘이 필요하며 자본주의의 문화, 과학 및 기술의 모든 성과에 의거하는 그의 집중화된 힘이 필요하며 일체 근로자들의 심리에 대한 그의 프롤레타리아적 친근성이 필요하며 분산적이고 보다 덜 발전되고 정치적으로 보다 덜 확고한 농촌근로자 또는 소생산자에 대한 그의 권위가 필요하다.”¹⁹⁾

프롤레타리아독재가 이와같은 내용을 갖는 것으로 정리한 다음의 문제는 그 구체적 권력체계, 권력의 작동기제, 지도원칙에 대한 발의일 것이다. 이 부분은 그 구체적 현실화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정리하여보자.

Ⅲ. 변화의 주요 특징과 그 이해

1.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마르크스나 레닌이 그 원형으로 제시한 ‘꼬뮌’을 참고로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은 그 ‘근본적 특징(본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권력의 원천을 의회에서 사전에 심의되어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그들의 지방적 구역에서의 인민들의 직접적인 주도권,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장악’이다.

(2) 인민들로부터 유리되어 있고 인민들에 대립되어 있었던 기관들인 경찰과 군대의 전 인민의 직접적인 무장으로의 대치, 그리고 그러한 권력 아래서의 국가 질서는 무장한 노동자, 농민들 스스로에 의해서, 무장한 인민들 스스로에 의해서 유지된다.

(3) 관료주의(officialdom), 관료제도(bureaucracy) 역시 마찬가지로 인민들 스스로의 직접적인 지배로 대치되거나 혹은 적어도 특별한 통제하에 놓인다. 그리고 그들은 선거로 선출된 관리들로 될뿐 아니라, 또한 인민들의 요구가 있으며 즉각적으로 소환에 응해야 한다. 그들은 단순한 대리인의 지위로 축소된다. 즉 그들은 높은 부르조아적 수준의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을 가진 집단으로부터, 그 보수가 정상적인

19) 레닌, 「헝가리 노동자에게 보내는 인사」. 위의 책. p.134~135.

노동자의 통상적인 급료를 초과하지 않는 특수한 ‘공복’(公僕)으로서의 노동자들로 된다.”²⁰⁾

위의 인용을 ‘이중권력’이라는 러시아적 특수성의 ‘사상’하고 ‘일반’을 추출한다면 다음의 인용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에트 정권의 본질은 자본주의에 의하여 압박받고 있는 바로 그 계급들 즉 노동자와 반프롤레타리아트(남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나마 항상 자기의 노동력을 팔게 되는 농민)의 대중조직이 전체 국가권력, 전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유일한 기초로 되었다는 점에 있다. 심지어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조아 공화국에 있어서도 법률상으로는 평등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수천가지 방법과 간책에 의하여 정치생활과 민주주의적 권리 및 자유로부터 배제되어온 다름아닌 그 대중이 오늘날 민주주의적인 국가통치에 인입되어 거기에 정상적으로 변함없이, 또 결정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다…….

넓은 민주주의 즉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는 누구보다도 바로 근로대중이 통치기관에서 배제되게끔 조직되어 있었다. 소비에트 정권 즉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반대로 근로대중을 통치기관과 접근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소비에트적 국가조직에 있어서의 입법, 행정 양권의

소비에트 정권의 본질은 노동자와 반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조직이 전체 국가권력, 전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유일한 기초로 되었다는 점에…

통합과 공장과 같은 생산적 단위에 의한 지역적 선거구의 교체는 바로 이러한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²¹⁾(방점은 필자)

요컨대 프롤레타리아독재와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로 소비에트 민주주의는 국가통치에 근로자들의 대중적 조직들을 정상적으로 참가시킴으로써 온갖 국가의 완전한 조락을 지체없이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²²⁾로 정리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독재에서 강제와 ‘하층의 창조력’이 어떻게 결합되는가 하는 그 관계를 보면 관료주의, 독재에 대한 ‘형태적 일면성’을 극복하고 현재 사회주의권의 다당제, 공산당의 권력독점 포기 등이 온전하게 이해될 것이다. 강제 및 지도와 창조력의 특수한 결합관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문제는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개별적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소비에트 정권의 근본원칙과 과연 양립할 수 있느냐

20) 레닌, 「이중권력」. 레닌 『레닌과 사회주의 혁명』(태백:1989). p.164.

21) 레닌,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테제 및 보고」. 앞과 함, 앞의 책. p.106~107.

22) 위의 논문, 위의 책. p.108.

하는 원칙적 문제이며 둘째로 이 경우가—혹은 이 전례가라고 해도 좋다—주어진 구체적 시기에 있어서의 정권의 특수임무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

만일 우리가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국가, 즉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강제의 필요성을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강제의 형식은 소녀의 혁명적 계급의 발전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다음에는 예컨대 장구한 반동적 전쟁의 유산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 그 다음에는 부르조아 혹은 소부르조아의 반항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트적(즉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개인의 독재권의 적용 사이에는 아무런 결정적인 원칙적 모순도 없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와 부르조아독재와의 차이는 전자가 그 공격을 착취당하는 다수를 위하여 착취하는 소수에게 돌리고 있다는 데 있으며, 또 그 다음에는 근로피착취 대중과 또한 이 대중을 역사적 창조어로 각성시키며 쫓아낼 수 있도록 구성된 조직(소비에트조직은 이러한 조직에 속한다)—개별적 인물을 통하여서도—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현한다는 데 있다.

둘째 문제 즉 현 시기의 특수임무의 견지에서 본 개인의 독재권의 의의에 관하여 말하여야 할 것은 모든 대규모의 기계공업—즉 사회주의 물질적 생산적 원천과 그 토대—이 몇 백 몇 천 몇 만명 사람들의 공동노동을 추진시키는 무조건적이며 엄격한 의사의 통일을 요구한다는 것이

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한 역사적으로나 명백한 것이며 사회주의에 관하여 생각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항상 그것을 사회주의의 조건이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면 의사의 가장 엄격한 통일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그것은 수천명의 의사를 한 사람의 의사에 복종시킴으로써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²³⁾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본질적으로 ‘개인에 의한 지도권의 행사’와 모순되지 않는다. 문제는 개인, 집단 등의 형태적 규정이 아니라 그 내용적 본질이다. 그리고 ‘강제’로 철저히 대중의 참여와 그들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승인되도록 하는 ‘지도’의 내용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민주주의를 위해 대중집회, 자각적 규율을 강조한다.

“‘대중집회’를 다만 혼란과 무질서와 소유자적 이기주의의 폭발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부르조아나 멘세비키나 노바야 지즈니파는 그것을 조소하며 더우기 그것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떠드는 때가 매우 많다. 그러나 대중집회가 없이는 피착취 대중을 착취자들에게 강제당하던 규율로부터 의식적, 자발적 규율로 결코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대중집회—이것은 또한 근로자들의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그들이 활기를 펴는 것이며, 새로운 생활로 각성되는 것이며, 또 그들 자신이 약질 분자(착취자, 제국주의자, 지주, 자본가)

23) 레닌, 「소비에트 정권의 당면과업」, 앞과 함, 앞의 책. pp.64~65.

를 숙청하여 버린 그 활무대 위에서의 그들의 제1보이며, 그들 자신과는 인연이 없는 귀족들의 정권이나 부르조아 정권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비에트 정권의 제원칙에 따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사대로 우리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그 활무대 위에서의 제1보이기도 한 것이다.”²⁴⁾(방점은 저자)

이상의 프롤레타리아독재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인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소비에트 민주주의—즉 구체적으로 적용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사회주의적 성격은 첫째로 근로 피착취 대중이 선거자로되며 부르조아가 제외된다는 데 있으며 둘째로 선거의 온갖 관료주의적 형식과 제한이 철폐되고 대중 자체가 선거 규정과 선거기간을 결정하며 피선거자를 소환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데 있으며 셋째로 근로자의 전위대—대산업 프롤레타리아—의 가장 우수한 대중적 조직체가 형성되어 전위대로 하여금 가장 광범한 피착취 대중을 지도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을 독자적 정치생활에 인입하고 그들을 그들 자신의 경험에서 정치적으로 교양할 수 있게 하며, 그리하여 진실로 전체주민이 관리하는 것을 배우며 또 관리하기 시작하는 데로 제1보를 내디딘다는 점에 있다.

이것이 러시아에서 적용된 민주주의의

만일 우리가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국가, 즉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강제의 필요성을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특징인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최고형태이며, 부르조아지에 의한 민주주의의 왜곡과의 절연이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로의 이행이며, 국가가 조락하기 시작하게 하는 제조건에로의 이행이다.”²⁵⁾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관료주의를 방지하고 척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원칙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혁명가나 사회주의의 신봉자나 공산주의자로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연쇄 전체를 붙잡기 위하여 또는 다음 고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확고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서 잡아 쥐어야 할 연쇄의 특수한 고리를 매개 시기에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사건의 역사적 연쇄에 있어서는 고리의 순서와 그 형태, 그 연결방식과 그 상호차이는 야장이 만든 보통 철쇄와 같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그렇게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소비에트 기관의 관료주의적 왜곡과의 투쟁은, 근로자 내지 피착취자라는 의미에

24) 위의 논문, 위의 책. p.67.

25) 앞의 논문, 앞의 책. p.69.

서의 ‘인민’과 소비에트와의 연결의 견고성과 이 연결의 융통성 및 탄력성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다…….

소비에트 조직과 소비에트 정권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부단한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에트의 성원들을 ‘국회의원’ 혹은 관료로 전화시키려는 소부르조아적 경향이 있다. 전체 소비에트 성원들을 실제적으로 관리에 참가시킴으로써 이러한 경향과 투쟁하여야 한다. 소비에트의 각부(各部)는 많은 지방에서 인민위원부와 점차 융합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전화되고 있다. 우리들의 목적은 인민을 남김없이 실제적으로 관리에 참가시키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매 걸음—그것은 다양할수록 더욱 좋다—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연구하고 체계화하며 일층 광범한 경험으로써 검열하며 법률화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목적은 개개의 근로자가 8시간의 생산노동 ‘임무’를 마친 후에 국가적 의무를 무보수로 수행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회주의의 종국적 공영화의 답보는 이러한 이행에만 있는 것이다. 이 변화는 새롭고 곤란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수많은 암중모색과 오류와 동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없이는 아무리 급격한 전진운동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²⁶⁾(방점은 저자)

“다름아닌 소비에트와 근로 ‘인민’과의 친근성은 소환 및 기타의 밑으로부터의

통제의 특수형태를 창조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특히 극력 발전시켜야 한다…… 소비에트를 어떤 고정적이고 자기 민족적인 기관으로 전화시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우리들이 오늘날 순전히 집행적인 기능의 일정한 모멘트에 있어서 일정한 사업과정을 위하여 무자비하게 확고한 정권과 개인의 독재를 단호하게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소비에트 정권을 왜곡할 온갖 가능성을 없애며 관료주의라는 잡초를 끊임없이 새로 새로 뽑아버리는 밑으로부터의 검열방법들이 더욱 다양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²⁷⁾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탈스탈린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스탈린주의는 혁명 이후 격화되는 계급투쟁과 이행의 물질적 기초·마련이라는 상황적 강제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합리적 핵심들을 왜곡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있어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앞에서 상세히 살핀 대로 사회주의건설을 ‘오직 한 가지 길’—경제적 조건의 새로운 기초를 노동자 자신이 밑으로부터 개조하는 길—만을²⁸⁾ 인정하는 ‘하층의 창조력에 기초한 그 어떤 새로운 국가’²⁹⁾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고대 로마의 잔인한 법률에 의하여 전체 근로자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계급의식의 끊을 수 없는 유대으로써 그들을 결합시키면서 통치”³⁰⁾하게 된다.

26) 위의 논문, 위의 책. pp. 70~71.

27) 위의 논문, 위의 책. p. 72.

이와는 달리 스탈린주의는 목적의 정당성을 일방적 강제로, 그 강제의 형식을 대중의 수준, 분위기, 의식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화시켜 강요한 것에 그 핵심이 있다. 이에 관하여 고르바초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레닌 이후에 역사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사회건설의 방법과 형식에 대한 탐구는 잔혹한 사상적·정치적 투쟁의 형태를 띠었다. 스탈린은 대중의 혁명적 조급함에, 모든 대중운동에 고유한 유포의 아적이고 균등주의적인 경향들에, 기대되는 목표들을 가장 빠르게 성취하려는 전위적 열망들에 과감하게 승부를 걸었다. 그리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창조적 판단, 즉 선택적 가능성을 몹시 제한하였고 마르크스의 이론에 토대하고 당 강령의 범주에도 있는 다양한 견해와 시각의 입지를 남기지 않는 통합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사회주의 사상은 더욱 더 권력만능의 명령적 관료주의 행정체계의 형태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또 다른 결과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현실, 인도주의적 이상과 실제 사이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게 된 것이었다. 관료주의적이고 흑심하게 중앙 집권화된 경제·정치체제는 그 자체의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탈스탈린 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법칙대로 움직였다. 그리고 이론을 왜곡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해야만 했다. 즉, 이론은 이것이 마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회주의의 올바른 모델인 양 서술하면서, 이러한 행위의 ‘정당성’의 환상을 만들어내고, 즉 실재를 정당화해야만 했던 것이다.

‘위대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구실로 개개의 가장 몰인정한 수단들이 정당화되었다. ‘정치적 합목적성’은 도덕적 근원의 정치를 추구하는 ‘형식적 합법성’보다 공식적으로 우위에 놓였다. 인간의 도덕성과 정의에 입각한 규범과 원칙들을 유린하고 권위적 관료주의체제는 보편인류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사회생활과 행위의 ‘독특한’ 규범을 사회의식 속에 집요하게 심어 놓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하였다.³¹⁾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사회주의 이론에

28) 레닌, 「노동자·병사·농민·대의원·소비에트 제3차 전러시아 대회」, 앞과 함, 앞의 책. p. 36.

29) 위의 논문, 위의 책. p. 44.

30) 위의 논문, 위의 책. p. 48~49.

31) 고르바초프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 『사회와 사상』통권 제17호(한길사:1990 1월호). p. 138.

있어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방법론의 복원이며, 현실적으로 '인민권력의 강화' '하층의 통제력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의 발전-강화이다.

2. 당의 지도적 역할

먼저 당의 '간판'까지도 꺼려야 하는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과 그것의 현실적 형태인 공산당의 권력독점이 폐기되는 상황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실천적 실패·파산으로 이해되는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레닌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만약 중앙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 받은 무능한 인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면,물론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선거원칙과 지방분권을 통해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것의 적용은 전혀 광범위한 정도로 허용될 수 없고, 전제아래서 수행되는 혁명사업에는 아주 유해하기조차하다. 어떠한 규칙도 이것을 방지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한 수단은 모든 보조그룹의 결의에 시작하여, 뒤이어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에 자신들의 호소문을 보내고, (최악의 사태가 되면) 전적으로 무능한 당사자를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동지적 영향력'이란 조치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³²⁾

위의 언급은 당의 무능에 대한 해결의

원칙을 제고한다. 당의 무능은 실제로 당구성에 무능하고 심지어 위험하기조차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데에서 논리적 가능성과 현실적 가능성이 있게 된다. 특히 최고의 지도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인사가 무능하고, 오류·편향에 빠져 있으면 당전체가 그것에 매몰되기 쉽다. 이럴 경우 이러한 무능을 해소하는 방법은 그 당사자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거의 형식은 당내의 '하층의 창조력'에 기반하거나, 전체 근로대중의 '통제력'에 기반하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당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실제로 동구의 경우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지도권을 행사하는 인사가 총살당하기도 하고, 당이 나누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비공산당원에 의해 국가권력의 지도권이 행사되는 상황까지도 연출된다. 또한 제거되는 인사들은 무능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부패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의 제거를 가져온 원인은 무능과 부패 등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합리적 핵심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왜곡'한데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행동의 지침', '실천의 방법론'이 아니라 변명의 수단에 불과하였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무능과 부패의 당사자들이 애초부터 그러하였던 것이

32) 레닌, 「우리의 조직적 임무에 관하여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

레닌, 『2차 당 대회: 혁명주의와 기회주의 사이의 분열』9레닌저작선 2-I). (전진: 1988). p.210~211.

아니라 그들의 정책과 지도가 제반 현실적 조건과 결합하였던 시기를 초월하여, 나아가 내용적 관철의 다양한 형태를 고민하지 못하고 일면적 형태를 고집하게 되면서부터 부패와 무능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무릇 공산주의에로 이행이라는 사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수백 수천의 새로운 투쟁수법, 방법수단을 시험하여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은 완성할만한 견인성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당이 나누어지는 것은 ‘청당’(淸黨)의 문제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참으로 공산주의적인 작업에 관한 당의 요구성의 끊임없는 제고와 관련된 청당은 국가권력기구를 개선할 것이며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편으로의 농민들의 궁극적 이행을 비상히 촉진할 것이다.”³³⁾

청당은 정당한 과정이다. 청당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중의 ‘대중운동’에 의한 것이든, 당 자체의 자기정화이든 청당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당하다. 따라서 사회주의권에서 당이 나뉘고, 당의 명칭이 개칭되는 것은 대중의 ‘대중운동’이 요구하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채택할 수 있는 ‘청당’인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은 대중의 ‘대중운동’이나, 당의 자기변화

**공산당의 권력 독점이
폐기되는 상황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실천적 실패 파산으로
이해되는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노력이나로 대체로 두가지 형태로 유형화된다. 이 두가지 유형을 관통하는 관련된 논의는 ‘오류’에 대한 당의 태도이다.

“자신의 오류에 대한 정당의 태도라는 것은 그 당이 얼마나 진지한지, 실제로 자신의 계급과 근로인민 대중들에 의한 의무를 얼마나 다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관료주의체제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기준 가운데 하나이다.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 그 원인들을 밝혀내는 것, 오류로 이런 상황을 분석하는 것, 오류를 바로잡을 수단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바로 이것이 당의 징표요, 바로 이것이 당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계급, 나아가 대중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다.”³⁴⁾

당은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에서 당의 임무는 이중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첫째로는 자본을 반대하는 혁명투쟁

33) 레닌, 「위대한 발기」. 앞과 함, 앞의 책. p. 157.

34)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앞의 책. p. 59-60.

에 있어서의 자기의 헌신적인 영웅적 행동으로써 전체 근로 피착취 대중을 전취하며, 부르조아를 타도하고 그들의 온갖 반항을 분쇄하기 위하여 전체 근로대중을 전취하고 조직하고 제도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전체 근로 피착취대중과 또 모든 소부르조아 계층을 새로운 경제건설의 길로, 새로운 사회적 연관, 새로운 노동규율, 새로운 노동조직의 창조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바 이 새로운 노동조직이란 과학과 자본주의적 기술의 최고수준을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생산을 창조하는 자각한 노력자들의 대중적 연합과 결합하는 것이다.³⁵⁾

당은 오류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백수천의 방법을 실험하는 견인성과 그것을 ‘경험의 요약’이라는 매개를 통해 선택·개조·발전시키며 대중이 국가통치에 ‘정상적으로, 변함없이, 또 결정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참가하도록 추동하며 대중운동을 활성화시키며, 대중이 ‘자각적 규율’을 체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전위대인 것이다. 이것이 당의 지도적 역할이 의미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고르바초프가 ‘당의 할 일’을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제안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칙과 가치들에 입각한 이론작업들, 즉 우리 현실의 실제와 세계의 경험을 분석하는 작업들을 확대함으로써 예측활동을 하는 것”³⁶⁾으로 규정하는 것은 마르크스-

**당은 오류를 두려워하지 않고
않고 수백수천의 방법을
실험하는 견인성과 그것을
‘경험의 요약’이라는
매개를 통해 선택·개조·
발전시키며...**

레닌주의에서의 이탈이 아니라 그것으로의 회귀, 그것의 복원인 것이다.

동구에서의 다당제수용, 당의 분리 등은 원칙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 속에서, 그간의 오류와 실패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조용하고자 하는—비록 수동적이었지만—것이 내용적 본질이며, 그 형태는 내용의 외화에 다름아닌 것이다. 일당제와 다당제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제반 구체적 조건에 근거하여 당의 지도적 원칙이 ‘합목적성’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동렬의 형태적 차이 이상의 의미는 없다. 물론 형태적 차이가 당연히 내용상의 차이를 동반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핵심은 다당제는 민주주의, 일당제는 독재라는 이분법적 등식을 거부하는 것이며, 내용이 관철되는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당의 지도적 역할’이 헌법 조문에서 삭제되는 것은 당의 지도적 역할이 공산당의 권력독점과 관료주의화에 대한 거부이지 그 고유한 임무와 내용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35) 레닌, 「위대한 발기」. 앞과 함, 앞의 책. p.146.

36) 고르바초프, 앞의 논문, 앞의 책. p.151.



사회주의권, 특히 동구의 변화는 당의 지도적 역할이 그간 대중에게 인식된 잘못된 관행과 강제의 원인으로 작용해온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기에 당의 지도적 역할이라는 내용 조차도 위협당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일반적 경향성은 그것의 내용적 관철이다—물론 시간과 혼란을 동반하겠지만.

공산주의자 그리고 그들의 조직화된 역량인 당은 “모든 형식에 통달하는 일, 최대한 빨리 한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보완하고 한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대체하며 우리 계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생겨나지 않은 온갖 변화에 대해 자신의 전술을

적용시키는 것을 배우는 일”³⁷⁾을 임무로 한다. 그러니 “혁명적 계급인 프롤레타리아의 전위, 곧 선진적인 부대가 진실로 되고자 하는, 그리고 그에 덧붙여 폭넓은 프롤레타리아 대중들뿐만 아니라 비프롤레타리아, 피착취근로 인민대중을 지도할 수 있기...는 공산당은 도시와 공장 ‘주민들’ 그리고 시골뜨기까지도 가장 간단하고 알기쉬우며, 가장 분명하고 생생하게 선전하고 조직하며 선동할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³⁸⁾ 없으며, 나아가 그들 스스로가 ‘몸으로써 경험하는 것(대중들 자신의 정치적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³⁹⁾

37)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돌베, 앞의 책. p.116.

38) 레닌, 위의 책. p.123.

39) 레닌, 위의 책. p.104.

이상에서 사회주의권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들에 대한 완전한 근거한 이해는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야기한 요인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이므로 경제적 변화와 그와 관련하여 그리고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지닌 정치적 변화를 포괄하여 설명하는 것이 온전한 연구·분석일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유물론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그리고 현실적 자료의 부족,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요인은 '생산력의 정체'와 '생산관계의 부분적 질곡화'라고만 정리해 두면서 생략한다.

IV. 동서독 관계

동독의 변화는 앞에서 논술한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장애할 정도의 다른 특징적 변화는 없다. 동독의 변화는 생생한 하루하루의 경과와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전체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동일하다.

그런데 문제는 동·서독관계 즉, 독일통일이다. 독일의 통일은 '베를린장벽'의 철거 및 개방이라는 구체적 조치가 상징하는 이상의 실제적 진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서독의 콜수상이 통일에 대한 10개항의 구상을 발표하였고, 동독의 모드론 수상은 4개항의 통일안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 통일의 문제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추구하는 '평화공존'전략(유럽에 구체화된 형태로의 '유럽공동의 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통일문제의 역사성이 내장하고 있는 예각적 쟁점이 동독의 '변화'라는 새로운 조건속에서 어떻게 변형·해소·합의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형내지는 합의와 관련한 동·서독간의 구체적 접촉과 조치 그리고 국제적 노력은 여전히 미약하거나 초보적 형태에 국한되고 있다.

현재적 수준에서 동·서독관계를 논하는 것은 '통일방안상의 차이를 추출하고, 전세계적인 전략적 변화를 포함한 제반흐름의 일반적 경향성을 밝히는 것에 멈출 수밖에 없다. 통일방안상의 차이는 통일의 '조건'에 기본적 대립이 있다. 그들은 비록 연방제를 공히 주장하고 있지만 서독의 콜수상이 제안하는 바는 흡수통합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동독의 그것은 '군사중립'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독의 콜수상은 동독에 대해 공산당이외의 정당이 참여하는 자유선거의 실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도입을 협상의 절대적 조건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독을 서독에 흡수하려는 성격, 즉 자본주의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동독의 중립화통일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동독은 국가연합적 성격을 갖는 조약공동체, 국가연합, 양국공동기구에의 주권양도를 차례로 거쳐 통일된 연방국가에 이르는 4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독일의 '군사적 중립'을 규정하는 것인데, 이는 유럽에 구축되어 있는 냉전체제의 해체와 나토라는 군사적 대결체제의 해소라는 목적의식성과 관련이 있다.

동·서독의 통일을 양국간의 관계로 축소시켜보면 양국내에 존재하는 다른 정치세력간의 연합과 연대가 어떻게 합의를 산출할 것인가, 그리고 합의의 물질화된 조건을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V. 약간의 결론적 정리와 전망

이 글의 본래적 목적이 연구방법론과 원전의 근거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당황과 혼란, 불감증’을 극복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사전작업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글이 완결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 글이 감당해야 할 한계이다. 이 글이 한계를 지닌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몇가지 결론과 전망은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담고 있는 ‘합리적 핵심’은 ‘근로대중의 정치적 결집력과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를 새로운 형태로 재조직화하는 계기’라는 것이며, 따라서 그 기본적 일반적 경향성은 ‘더 많은 사회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위한 변혁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는 다음의 언급을 명확히 인식·수용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창시자들은 새로운 사회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 형식들과 메카니즘을 고안해낸 적은 결코 없었다. 그들의 현실의 사회적 삶에, 즉 그 시대의 혁명적 노동계급운동의 실제에 기초하면서 사회주의적 이상을 완성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자본주의의 과도적 성격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였으며, 혁명적 사회세력들에게

서독의 콜수상이 제안하는 바는 흡수통합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동독의 그것은 ‘군사중립’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향한 이론적으로 혁신적인 ‘투쟁의 슬로건’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단계의 사회발전으로 전환해야 할 역사적 필요성 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였다. 고전주의적 이론가들은 사회적 실제의 인식과 개조의 바람직한 방향을 가리키는, 사회발전 경향의 일반적인 모델만을 제시하였다. 자본주의를 대체하여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구조에 대해서는 주로 그 근본적인 원칙들에 입각하여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만 언급하였던 것이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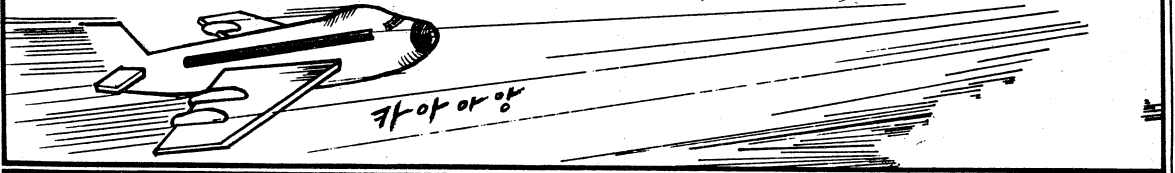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예언서가 아니다. 현실의 혼란과 약간의 지체(그것이 반동이 마련한)는 오히려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굳건히 하고 상호대립과 모순의 해결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으로 담보하게 해주는 ‘미약의 시기’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가능한 전망은 변화의 합법칙적, 합목적적 경향성들이 제세력간, 분파간 역관계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데, 현실의 과정은 대체로 일반적 경향성의 정착 및 발전으로 될 것이다.

40) 고르바쵸프, 앞의 논문, 앞의 책, p.131.

훗날이다
신호탄이다
선전포고문이다!

그린아해: 만주마살대 [redacted]
[redacted] 한번 동경임

공안통치 압축의 대기에 통일외의 꿈볼 지르기 위하여 스스로의 가슴에 칼을 꽂으며 달려오던 분노로 당당한 눈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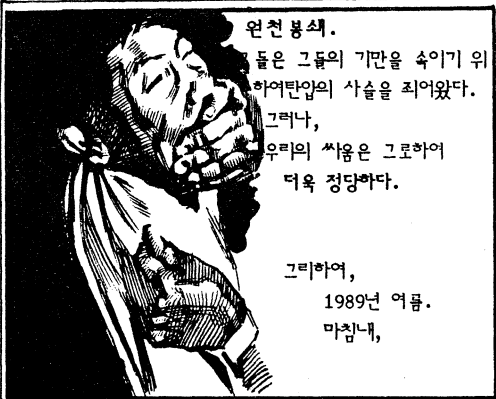


더이상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다. 이제 냉전의 본산지인 유럽에서도 서서히 긴장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의 드디어는 민족의 운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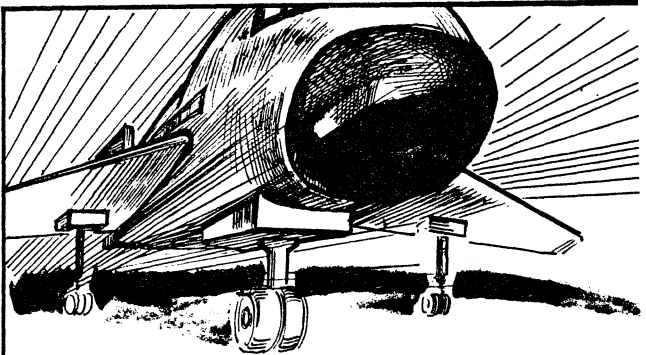
풀려가고 대립과 적대에서 화해의 관계로 현실은 어찌하여 갈수록 긴장이 높아가고 핵폭풍 전야에 서게 되었다단 말인가.

그렇다.
이제 더이상 가만히 있을수 없다!





원천봉쇄.
 그들은 그들의 기만을 속이기 위
 하여탄압의 사슬을 죄어왔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로하여
 더욱 정당하다.
 그리하여,
 1989년 여름.
 마침내,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



"전대협 비판 통일학도 의 이름으로 !"



제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예
 "임 수경양이
 6월 30일, 평양예

참가하기 위해
 도착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실정법이라는 무서운 울타리, 가족에 대한 조작된 비난! 이런 것들은 불탄서 유학을
 가고 불어 고수가 되고 싶었던 20수위 세대에게겐 엄청난 괴로움이었다.
 그러나, 영혼마저 잃어버린 채 빈껍데기로 살아갈수 없었기에 환상속의 겨울 무지개
 일수없는 하나된 조국을 찾아 울보 임 수경은 방북후 겪게 될 수많은 고초에도
 당당하게, 억압받는 공간에서 자유로이 또 하나의 조국으로 날아갔다.

엄마, 아빠.
 수경이는 이제 엄마, 아빠만의 딸이 아닙니다.
 하나된 조국의 자랑스런 딸이고자 합니다.
 통일된 조국의 자랑스런 딸이고자.....



남부조국의 딸이 너무도 반가워서
 손목이라도
 보고싶어
 함도 많았
 손목에 이
 한 번 안지켜
 하시누분의
 -제
 량지~



우리의 조국은 하나입니다.

7월 19일, 임수경양이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 평화대행인이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7월 20일 아침 행진단이 백두산 삼지연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역시 수많은 주민들이 몰려오면서 '조국통일' '이타거나' '조선은 하나다' 라고 외치며 점점 임수경양쪽으로 몰려들었다. 축전기간에도 끝없이 열광을 받아온 남부조국의 딸, 무엇이 휴전선 저쪽의 딸에게 '주민' 들은 그렇게 열광을 하는가?

7월 21일, 오전 10시 집은 구름이 덮여 있는 백두산 천지어머님군 주민 수백명과 함께 출정식을 거행했다. 공동출정선언서를 낭독하자

집은 구름으로 덮여있던 백두산 정상에 갑자기 맑게 개되면서 천지가 그 순결하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7월 22일, 백두산근처 대흥단 근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풍물패가 앞서서 한창 흥을 돋구는데 느닷없이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나, 행진대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함차개행진, 대흥단 농장에 도착했다

7월 23일, 개안고, 또 개안으면서 몸부림치는 협육, 우리의 협육.

7월 24일, 평양 체육관앞에서 환송식을 가진 후 도보행진으로 평양을 떠났다. "시민들은 오늘도 울고 있었다."



조국통일 조선은 하나다 임수경



남북 청년학생 공동 선언문

남과 북의 우리청년학생들은 '조국은 하나다'라는 외침으로 이선언을 시작한다.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이 타의에 의해 겪어온 본연의 45년은 민족적 비극의 45년이었다. 조국의 남과 북이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통일의 대장정은 이제 마무리지을 영광의 종착점을 향해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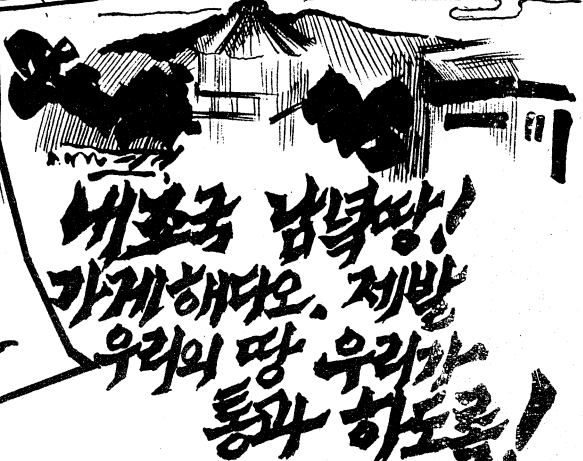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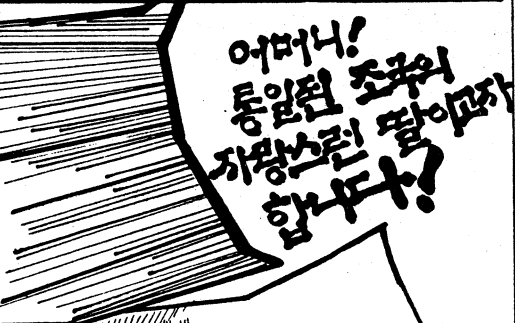
애국적 열정과 구국의 의지가 굽아치는 이 통일대행진의 자랑스러운 대오에는 남과 북의 우리 청년학생들이 기수로 나아가고있다. 조국통일은 남과 북의 우리청년학생들의 삶과 투쟁의 최우선적 목표이다. 이제 남과 북의 우리 청년학생들은 시대와 민족앞에 정진 송고한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진행되고 있는 북녘땅 평양에서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을 위한 공동의 선언을 내외에 알린다.

1. 우리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한다.
2. 우리의 조국통일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이룩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반대한다.
3.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이 조국통일의 전제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철수와 남북불가침선언을 채택하며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투쟁한다.
4. 우리는 남북교차송인과 UN동시가입등 본단상태를 영구화하려는 단계의 한국책동을 반대 배격한다.
5. 우리는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조건에서 쌍방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며 민족 대단결에 기초한 하나의 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하여 과감히 싸워나간다.
6. 우리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과 북사이의 당국대화와 함께 민간대화들을 활발히 진행하며 당국이 통일논의와 대화창구를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우리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청년학생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비롯한 남북 사이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기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8. 우리는 남과 북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공동투쟁을 벌여나간다. 그날까지 힘차게 진군하자.

.....외하여 임수경
..... 김창룡 1987,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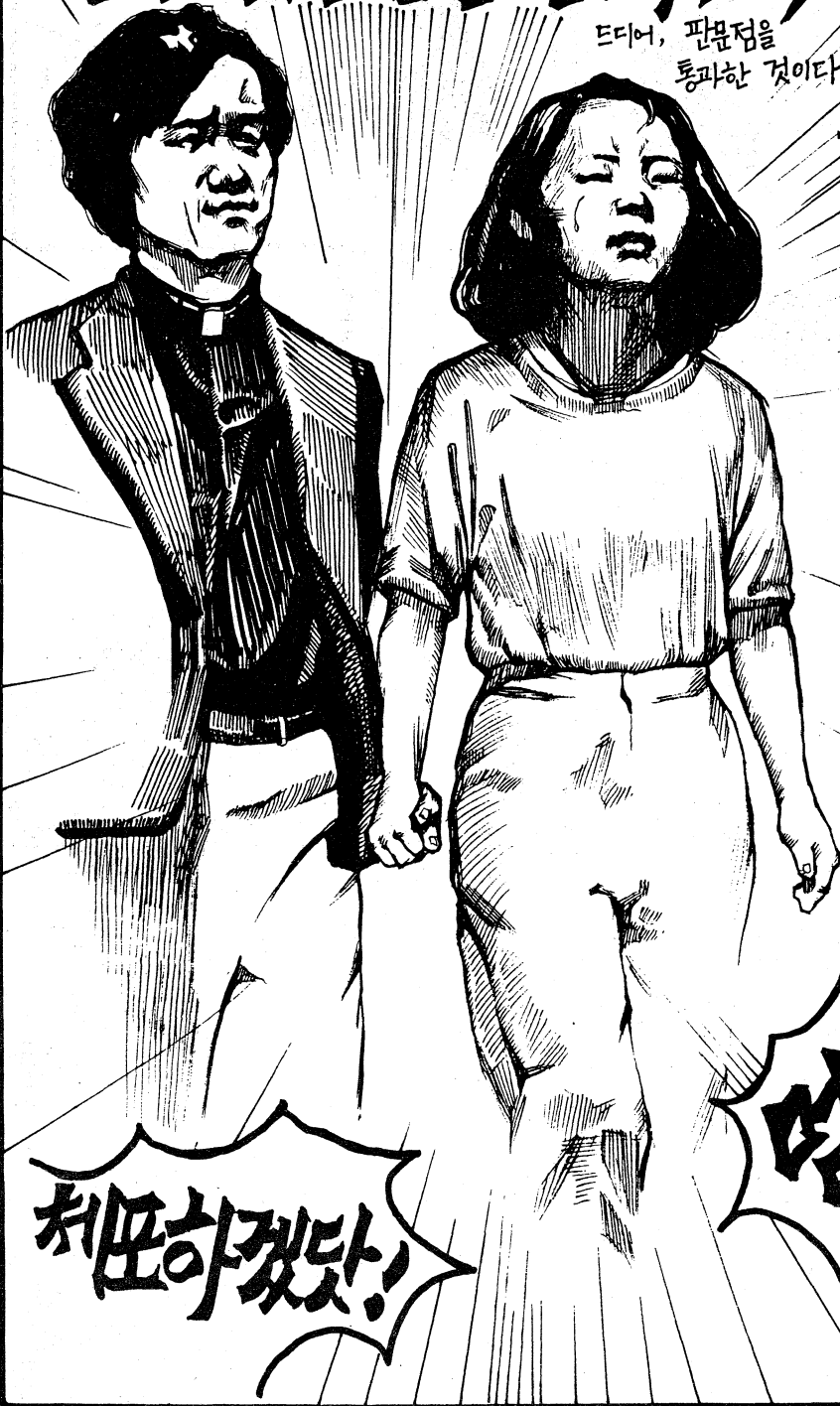


괴하여 "아자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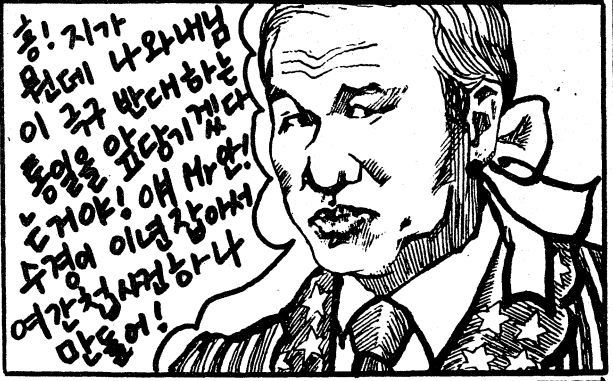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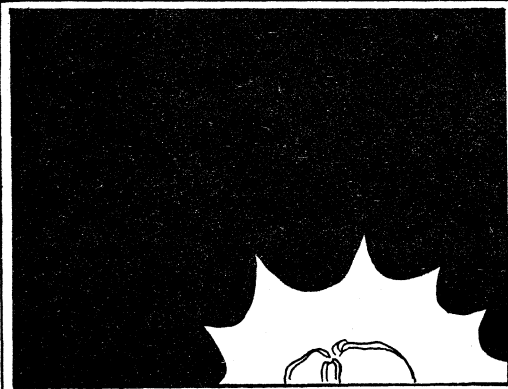
분단 44년 8월5일 오후 2시 22분!

드디어, 판문점을
통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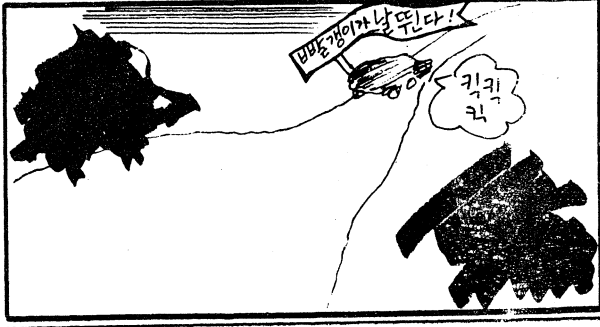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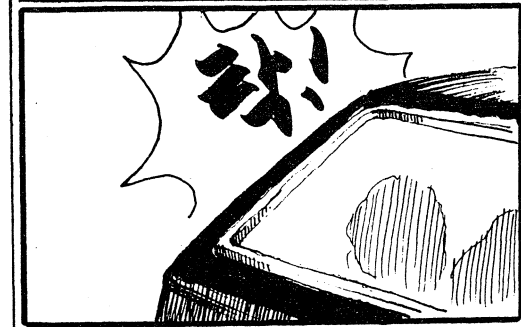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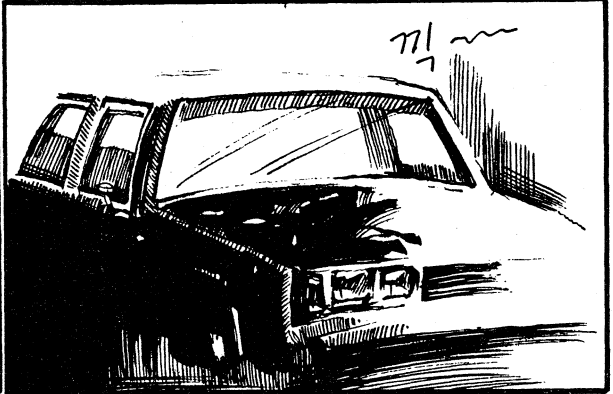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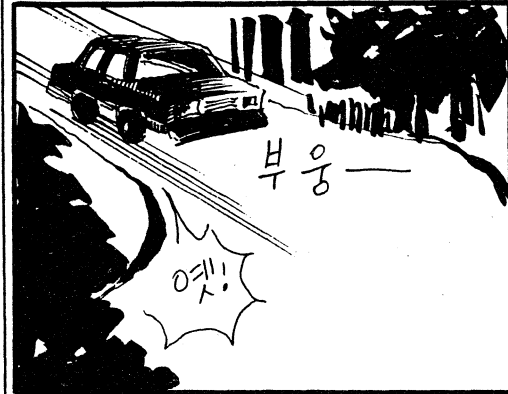


체포하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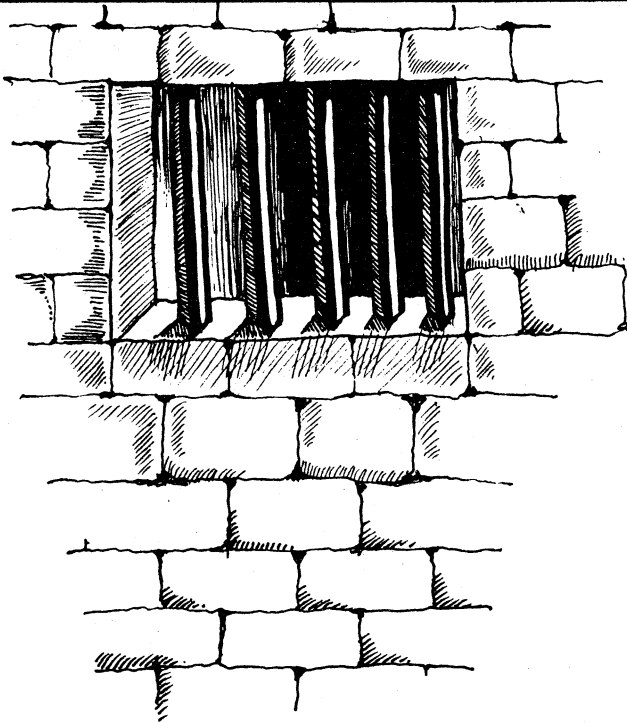
엄청!



흥! 자가
원데 나와내
이 귀 반대하는
동일한 표정에
노기야! 애 씨
수경이 이년잡아서
여간찮사할하나
만들어!



민둥쟁이 나쁜단다!
끼
끼
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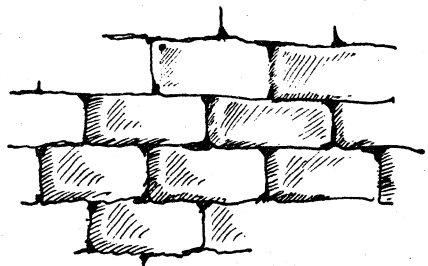


포승줄에 묶여 차가운
감옥에 갇혀버린
동일의 깃!

"어머니,
통일된 조국의 자랑스런
딸이고 싶어요."

저들은 애국의 열정으로
분단의 벽을 넘었던
우리의 자랑스럽고 사랑스
러운 딸에게 엄청난 간첩
조작의 그물을 씌우려
하는데 000

고려나!



여러분!
통일의 꽃은 결코
산라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친구야!
불씨를 모으자, 장작을 모으자
... 마침내 환 환 타오르자-!

우리학교 여학생들의

여성문제 인식에 대하여

— 다양한 내용의 답을 위해 설문내용을 서술형으로 했기 때문에
설문지 분석사항을 표로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쭉 숙영(독문3)

글의 순서

1. 들어가는 말
2. 설문지 내용
3. 우리학교 여학생들의 여성문제 인식
4.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여성문제 인식의 확산
5. 맺는 말—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몇가지 제언

1. 들어가는 말

여성들은 대부분 차별받는다고 말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성들은 대부분이 차별받으며 그 차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싶어한다.

언제는 여성도 사회진출을 해서 자아실현을 해야 된다고 하더니 또 언제는 ‘우리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여성들은 과연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여성해방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저 웃으면서 건성으로 넘겨 버리거나, 세상을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야 하느냐고 반박하거나, 또는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은 따로 있다고 하면서 여자는 그저 착하고 예쁘면 된다고 말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반응을 보게 된다.

우리는 여성들 속에서도 두 부류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이고 의존적

으로 살아가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까지 여성차별은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고, 여성해방을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전자가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면 후자는 여성 피해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대학 4학년이 되면 모두들 취업에 대해 고민한다. 이곳 저곳 이력서를 내고 열심히 취업시험을 준비하지만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아예 남자를 찾는 편이 더 수월했을 거야'라고 얘기한다. 물론 이들 중에는 취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몇 개월 후에 직장을 그만 두면서 다른 직장을 찾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이들을 직장동료로 생각하기 보다는 먼저 한 사람의 여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여성차별을 느낀다.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유행가 가사에서까지도, 그러나 우리는 모든 면에서 발끈발끈 성을 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여성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성해방은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알아야 한다.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각종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각 학교에 총여학생회가 존재한다. 여성해방에 대한 문제는 많은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동안 사람들의 의식은 많이 변화했다. 그렇다면 우리학교 여학생들은 여성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까? 이것을 파악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뿐 아니라 여러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다음의 설문지와 여학생회 활동

을 중심으로 우리학교 여학생들의 학교생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도, 여성의 사회 진출과 이에 따른 가사노동과 육아, 그리고 여성해방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려고 한다.

2. 설문지 내용

1)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은 들러리나 악세사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입니까?

2) 지금 현재 학교생활에서 여성차별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3) 여러분의 학생회나 동아리에서의 활동은 어떤 의미를 지니며, 활동 정도는 어떠했습니까? (활동분야, 활동하게 된 동기, 이후 전망은?)

4) 여러분이 평가하기에 우리학교 여학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떠하며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5) 여성문제에 대한 책을 어느 정도 읽으셨습니까? 읽었다면 어떤 동기로 읽게 되었으며 어떤 책을 읽었고, 그 책을 읽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6) 여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점들을 느꼈으며 없다면 주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7) 여러분의 학년에 따른 의식의 변화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문제, 사회문제, 학생회에 대한 의식의 변화)

8) 여대생으로서의 여러분의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일반적으로 여성의 능력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10) 여성의 사회진출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결혼 후 사회생활시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11) 남자 형제보다 여러분에게 가사일을 도와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12)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여성차별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학교생활에서 그리고 이후 사회에 진출해서)

3. 우리학교 여학생들의 여성문제 인식

1) 학교 생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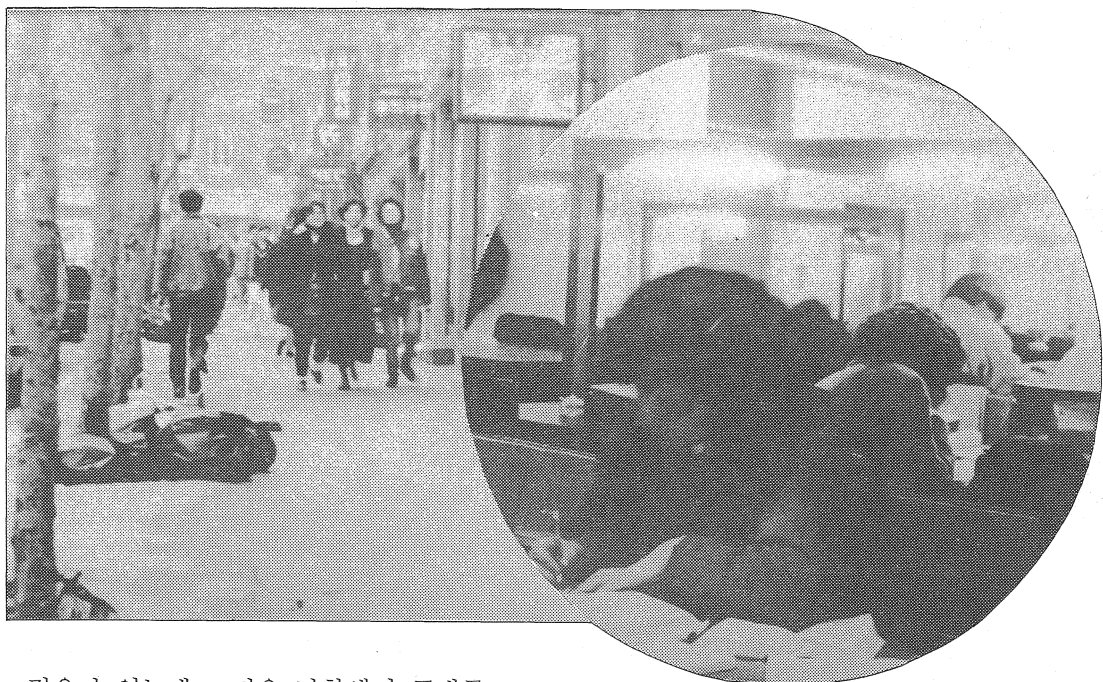
우리학교 여학생들은 조금 사치스럽지만 활발하고 진취적이라고 스스로를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활발함과 진취성은 소속감과 단결력의 부족으로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다.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은 들러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별로 느끼지 못하며 그런 생각은 될 수 있는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여학생들이 예전에 카페를 많이 찾았던 것에 비해 술집을 많이 이용하며 동아리 모임이나 과활동 후에 뒷풀이로 술을 마시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학교생활에서 여성차별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했으며, 차별을 느끼는 것은 모든 단체의 대표가 대부분 남자라는 것과 아르바이트를 할 때 여자를 꺼려하거나 보수를 적게 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우리학교의 경우 대부분이 과대표는 남자, 부과대표는 여자이다. 물론 문과대학이나 사범대학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여자가 과대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남학생이 군대를 가서 여학생만 남은 경우이거나, 4학년 때는 남학생들은 취업때문에 과대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이다. 미술대학의 한 여학생은 '미대는 여자가 과대표가 될 수 없다, 원통하다'라고 대답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과대표의 남녀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남자가 과대표, 여자는 부과대표라는 생각은 주도적이며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남자가 하고, 부수적이며 도와주는 형태의 일은 여자가 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입학할 때 같은과의 학생으로서 동등하게 들어오지만 어느새 우리의 역할은 성별로 나뉘어지고 만다. 굳이 체육대회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학생들은 학교의 거의 모든 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다.

우리학교 여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여성차별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있지만 우리의 자치활동은 남학생 위주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적응한 여학생들은 비교적 잘 지내지만 그렇지 못한 여학생들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거나, 강의가 한시간 밖에 없는 날은 아예 학교에 오지 않는다.

2)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사노동 및 육아에 대해

일반적으로 여성의 능력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게 나타나는 이유로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자기 비하에 의한 구속, 여자라는 잠재의식 등을 들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한 문제라고 대답하지만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한다.

또 결혼 후 사회생활시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나는 질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직장을 갖지 않거나 직장생활과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잘 해결

해 나갈 수 있다고 대답한다. 또 사회생활은 하고 싶은데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대답이 있기도 하다.

이상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남녀차별의 원인을 여성 자신에게서 찾고 있으며, 또한 가사노동과 육아를 여성의 일, 여성이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여선생님들을 기억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시장에 가신다는 선생님, 임신을 하셨어도 나올 수 있는 날까지 학교에 나오시겠다고 하시더니 제왕절개 수술을 하시고 그나마 산후 조리도 제대로 못하시고 미안해 하시며 다시 힘든 몸을 움직이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굳이 선생님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위에서 맞벌이 부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물론 이들 중에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도 있고 남편의 월급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터에 나온 여성도 있다. 이들은 가정부나 파출부를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남성의 임금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비교적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언론, 출판, 번역, 통역, 전산, 교직 등을 선호하지만 이들 부문에서의 여성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으로 많은 대졸여성 실업자가 생겨난다.

우리학교 여학생들의 취업과 가사노동 및 육아에 대한 응답에서 우리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요구되고 있다고 떠들다가지도 아이들이 빼뚫어지고 있다고 경고하는 언론의 일관되지 못한 논리의 영향들을 발견한다.

직업을 갖는 것이 남성과 여성을 떠나 모두에게 중요한 일인듯이 여성이 출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는 여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것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될 부분이다. 가사노동도 마찬가지이다. 가사노동은 다른 사람이 해주거나 자신이 그 일을 해야만 생활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대부분 여성들이 맡아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사노동은 일의 고약스러움에 비해 하찮게 취급되고 있으며, 여기에 여성들 또한 같은 취급을 당하기가 쉽다. 이렇듯 가사노동과 출산 및 육아는 단순히 여성들의 일이라고 취급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취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들은 여성들이 결혼 후에는 책임감이 없어지고 무능해진다는데 일조한다.

3) 여성문제에 대해

설문지를 통해서나 일반적으로 대화를 통해서도 여성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공통적으로 강한 거부반응을 나타낸다. 이것은 여성해방을 소비자 보호운동이나 여성상위주의 등으로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여성차별은 여성 스스로가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설문지 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성의 자기비하와 여자라는 잠재의식에서 여성차별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여성문제에 대한 책을 읽었느냐는 질문에 남녀 구별을 하는 것부터가 싫어서 읽지 않았다는 경우와 읽었어도 문제제기의 수준이었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는데, 여기서도 강한 거부반응을 볼 수 있으며 여성문제를 남성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여성문제에 관련된 책들이 다양하지

못하며 편협된 시각에서 쓰여진 책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성차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냐는 질문에 유교적 풍습, 성차별 교육 등을 들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모르겠다는 대답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대생이라는 위치가 어느 정도는 여성차별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실제로 학교 내에서는 사회에서 보다 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4.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여성문제 인식의 확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학교 여학생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진출면에 있어서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가사노동이나 육아 그리고 여성문제 전반에 관해서는 무관심이나 거부반응을 보인다.

이렇듯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여성해방운동이 자칫 흐르기 쉬운 대남성투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며 졸업반이 되어 취업문제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무지와 잘못은 용서받는다.

그러나 또한 너희의 잘못은

여자이기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이유로 길들여진 것이다.

너희가 차별당하는 것 만큼이나

너희와 동시대의 남자들 또한 억압당하고 있다.’

‘이불훔침을 께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의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것이에 방청소에 고추장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달라 물달라 옷달라 시켰었다.

동료들과 노조일을 하고부터

거만하고 전제적인 기업주의 짓거리가 대접받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자행되고 있음을 아프게 직시한다.’

위에서 제시된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위하여’의 서문과 박노해씨의 ‘이불을 께매면서’라는 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의미를 상실할지도 모르지만 여성해방이 어디로부터의 해방인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듯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정도가 다른 가운데서도 그 인식을 넓히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되었는데 학교 내에서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학교 여학생들의 여성문제 인식의 확산을 살펴보려 한다.

1) 심포지움

제5대 여학생회에서 학술부 주최로 ‘여성해방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했는데 주제선정의 문제와 진행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들의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는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많이 참석했으며 이후 토론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예전의 자주강좌에 대한 무관심과 비교해 볼 때, 학우들의 인식이 발전했으며 관심도 많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학생회 심포지움 이후에 과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산업공학과 '다물서당'의 '참사랑을 위하여'라는 심포지움은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참사랑을 위하여'에서는 남녀차별의 원인과 올바른 남녀관계, 그리고 주변인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 준비 부족과 토론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科)차원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여성학

우리학교에서의 여성학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 여학생회 집행부서의 부원들의 여성학 소모임을 비롯해서 수학교육학과 89학번들의 자생적인 여성학 소모임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여성학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문제제기도 여성학에 대한 인식의 확대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과에 국한되며 전체적인 확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이화여대와 서울시립대에는 여성학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들 대학 여학생들의 인식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여성학 강의를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성학을 교과과정 안에 포함시켰을 때의 효과는 상당하리라 본다. 우리학교에서는 89년도에 여학생회에서 여성학 개설을 추진했는데 이때의 설문조사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성학 개설을 찬성했으며 교과과정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첨가되었다.

이렇듯 여성학 개설문제는 여성학을 교과과정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여성문제

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며 또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찾아나가는 교과과정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데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5. 맺는말—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여성해방’이란 말처럼 어느 곳에서나 적용되는 말은 없다. 그것은 여성해방이 단순히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개 어떤 불합리한 문제를 느꼈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을 살피려 하기 보다는 나타나는 현상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원인 또한 현상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그 근본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그래야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여성문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여성문제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언제부터 여성문제가 가속화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해결의 고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현재 여성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은 성별분업구조와 성별분업의 고착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강화이다. 여성은 가사노동 전담자이고 남성은 생산노동 전담자라는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의 임금은 생계보조적이라는 이유로 낮게 책정되고, 이러한 여성들의 저임금은 남성들의 임금까지 저하시킨다. 또한 여성들의 노동을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취급하며, 가정에 있는 여성은 자본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성별분업구조와 이데올로기는 자본가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여성들은 억압당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서 여성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성운동은 단순히 성차별을 없애는 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자주·민주·통일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학교에서는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제언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고등학교 때와 비교해서 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는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자칫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활에 빠지기 쉽다. 우리는 흔히 ‘대학이라는 곳은 찾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이런 말은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고 ‘무엇을 어디서 찾으란 말이야?’ 하고 반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찾아야 하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과성원들이 한테 어우러지는 모습은 매우 아름답다. 불문과는 ‘시와 상송의 밤’을 통해서 공동체를 구현하고 건축학과는 작품전을 통해 같이 고생하며 결실을 맺는다. 과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속에서 과성원들과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이 속에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같은 동료로서 만나게 된다.

둘째,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한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이것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현재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은 잘못된

다. 우리는 직장여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 어머니의 삶을 안타까와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서는 안되며 우리 딸들의 삶 또한 그래서는 안된다. '많이 알고 옳게 실천하는 것' 이것을 '힘'이라고 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아왔다. 억압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해방의 몸부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해방'이란 말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만 스스로 생각해 보면 '해방'이란 말이 얼마나 고귀한 말인가를 알 수 있으며, '해방'이란 말에 거부감을 갖게 되는 이유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셋째, 우리학교 여학생회는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학우들의 여성문제 인식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조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심에 두어야 하며, 체계만을 중시하여 총여학생회를 만든다거나 단대 여성부장을 세우거나 해서는 안된다. 우리학교에는 우리학교 실정과 우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조직형태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수학교육학과에서 자생적인 여성학 소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이 소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 것, 즉 커리를 보완해주거나 발표회를 통해 성과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 어느 곳에서든지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 이 모임들을 활성화 해야 하며 이러한 모임들이 항상 여학생회와 연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여학생회의 사업은 학우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단지 행사뿐인 사업이 될 것이다.

'벗들이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아직은 비록 우리가 소수이고 힘 또한 저들보다 적은 듯하여도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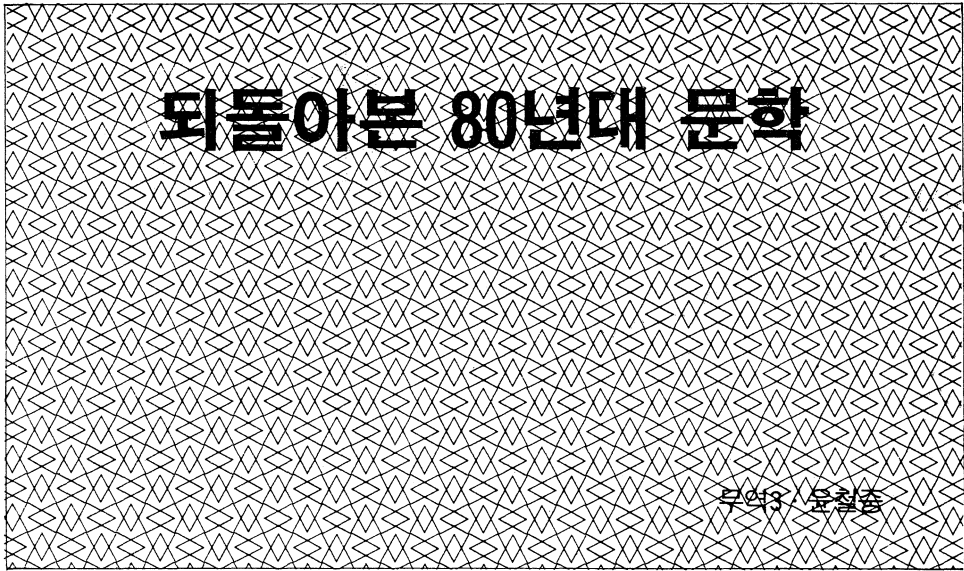
울지 않은 자들과의 싸움이므로 거짓된 자들과의 싸움이므로 어찌면 이미 이기고 있는 싸움입니다. 지금 이렇게 외로운 우리 몇몇만 손을 잡고 있다 해도 결국은 많은 이들이 함께 이 길에 나섭니다'

도종환님의 '벗들이여 우리는 승리합니다'에서 얘기하듯이 여성은 반드시 해방된다. 물론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이미 우리는 조금씩 승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우리들의 작은 해방의 몸짓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짜임글 II



- 1) 되돌아본 80년대문학
- 2) 활성화되는 사무직 여성노동운동



I. 들어가며

I. 들어가며

1. 문학과 현실
2. 80년대 개괄과 문학

II. 소설

III. 시(80년대 네가지 흐름)

1. 고은, 신경림을 중심으로
2. 김남주, 김용택을 중심으로
3. 황지우를 중심으로
4. 박노해, 백무산을 중심으로

IV. 마치며

80년대 한국 사회가 급속한 전환을 이루어 내었다고 함은 그 누구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다. 광주의 피의 참극으로 시작한 80년대는 87년 6월 민중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과 대통령 선거를 거치는 전환의 일대 격동의 시대였다. 즉, '변화에 대한 지향성'의 80년대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는 없을 것이다.

시와 소설 등 문학에 있어 그 문학이 사회성, 역사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올바르게 반영(모사라는 의미는 아니다)해야만 할 때 80년대 문학 역시 8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며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열망과 그 실현을 향한 많은 노력이 문학이나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일상화되었다는 점에서 80년대는 진정한 전환기로써 진가를 발휘한다. 자기결단적이고 선도적인 그러나 다수 민중의 동의와 지지, 지원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새로운 역사의 단계를 만들어 낸 80년대였으며, 이는 70년대까지 이어온 한국 사회의 온갖 모순들이 한껏 쌓여오다 끝내는 정치, 사회적으로 터져나온 것이며 이는 이후 변화, 변혁의 지향성을 더욱 확산, 강화시켜 내는 물질적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80년대와 그 반영으로서 “문학’을 다시한번 되돌아 봄으로 이후 90년대의 문학적 과제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그 문학적 과제 속에서 객관적 현실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변화·변혁에의 지향성을 더욱 강화시켰으면 하는 의도로 일련의 논문을 정리, 발췌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문학과 현실

문학이 세계관이나 종교, 학문과 마찬가지로 이념적 현상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학은 이념에 의해서 인간의 삶을 반영하며 이념의 총화에 의해, 비로소 인간의 사회적 체험은 문학 창작의 동기로부터 내용, 주제, 형식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용해된다. 즉,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사랑과 미움, 가치와 무가치 등과 같은 현실(사회, 역사)의 반영이 없는 작품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 가치가 어디에 속하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 가치가 소수 특권층의 보수적 범주에 속하는 것보다는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훨씬 가치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 생각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문학이 단순하게 진보적 이념적 시야만 반영하거

이념의 총화에 의해, 비로소 인간의 사회적 체험은 문학창작의 동기로부터 내용, 주제 형식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용해된다.

나 전달하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야와 더불어 거기에 대응하고 그 표현에 도움을 주는 형식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다(내용과 형식이 변증법적 결합을 이루어야 한다).

2. 80년대 개괄과 문학

한국 사회가 급속한 전환기였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이의 구현을 위한 제반 제도와 법률 등의 사회 상부 구조로는 더이상 한국 사회의 쌓여왔던 모순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배 세력의 반동적 폭거와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수탈 구조의 최하층에서 가장 많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던 노동자, 농민 등을 필두로 한 민중들의, 폭거에 대한 끊임없는 항쟁의 연속이라는 두 핵심 축이 맞물려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이다. 그리고 변화에의 지향성이라는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들의 자주적 진출로 인한 사회 전반의 모순 해결을 위한 변화의 욕구가 크게 부각되어졌음이다.

문학에 있어 70년대의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을 중심으로 지식인 문학가들에서 보여지는 민중 지향성을 가진 진보적 소시민 계급의 문학의 비약적인 성취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80년대의 문학은 사회의 변화만큼이나 변화하게 된다. 즉, 민중 지향성의 문학에서 창작의 주제나 창작의

내용 면에서도 민중성의 문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60, 70년대를 통해서 대의 의존적 경제가 구조화되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임기응변적인 경제 정책만이 행하여졌다. 민중이라 일컬어지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그리고 중소 상인층까지 독점 재벌에 대한 격차가 확대, 심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민족 이익이 침해, 수탈되는 이 양자가 상호작용하여 모순을 누적시켜왔던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꾸준히 또 급격하게 성장되어 온 노동자계급과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순들이 매우 첨예하게 나타난 속에서 노동문학 혹은 노동해방문학 등의 문학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70년대의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을 중심으로 하여 소위 보수 문단에 대항하는 소그룹을 이루어왔던 진보적 문학인의 양상은 80년대 더욱 다양화되었고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보다 좀 더 뚜렷한 색채를 지니면서 문학운동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사회과학적인 여러 이론과 문학이론이 긴밀하게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Ⅱ. 소설

80년대 문학을 이야기하는데 광주 민중항쟁 이후 한국 사회의 변혁운동의 변화된 국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 민중항쟁을 기점으로 변혁운동의 내용은 이전의 시민 민주주의 또는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80년 광주 민중항쟁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하여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라는 과학적 사회운동의 틀로 변화한다. 또한, 이전까지 추상적이었던 민중의 개념이 더욱 구체성을 가지게 되며, 과학적 변혁이론을 창출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이에 반대 급부로 권력의 대대적인 폭거—80년 광주에서 보여지듯



—를 자행하게 된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의해 80년대는 소설 부재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초반에는 거의소설이 부재했으며 이는 시나 여타의 문학 장르와는 달리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으로 인해 그 암울했던 시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시켜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특성과 시대적 제약이 있었음이다. 즉, 시와 같이 집약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로써 보다는 산문으로 기록되어지며 구체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속에서 발표된 80년대 초반기의 소설은 민중소설이 활발해지기 전으로 이동철의 「어둠의 자식들」, 「꼬방 동네 사람들」 등 하층민의 룬펜 프롤레타리아 소설들이 '대리 만족용'으로 발표되었으며 김홍신의 「인간시장」이 이러한 세대소설 중 가장 상업적으로 흥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소설의 부재 속에서도 우리 민중사의 맥락을 더듬는 장편 대하소설 황석영의 「장길산」, 박경리의 「토지」 등의 소설적 성과가 있었으며 이후 조정래의 「태백산맥」으로 대표되어지는 빨치산 활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게 되는 큰 성과 또한 남긴다.

80년대 소설의 많은 부분이 '분단'을 다루고 있음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거 분단소설을 답습하고 있거나 분단을 한(恨)의 차원으로 파악하려는 미진한 소설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김원일의 「겨울 골짜기」와 분단 이상의 이데올로기 문제까지 나타낸 80년대 후반 박완서의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등의 몇몇 작품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연출하는 문제를 부각시키는 성공을 거둔다. 진정한 분단문학은 현 시기 분단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순을 폭로하고 그 대안을 찾아내도록 하는 통일문학

진정한 분단문학은 현 시기 분단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순을 폭로하고 그 대안을 찾아내도록 하는 통일 문학 이고, 민중 문학이어야 한다.

(혹은 통일지향의 문학)이고, 민중문학(혹은 민족문학)이어야 한다. 즉, 이는 분단의 정지가 아니라 민중에 의한 통일로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한다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윤정모의 「님」은 바로 통일문학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리얼리즘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 홍희담의 「깃발」, 윤정모의 「고삐」, 정도상의 「친구는 멀리 갔어도」를 위시한 여러 작품, 소설 부분 중 노동계급의 문학적 성과라 할 수 있는 방현석의 「새벽출정」 등이 80년대 후반 소설 분야에서 탁월하다 하겠다.

소설 작가 중 80년대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모은 상업적 작가는 바로 「이문열」이다. 79년 문단에 등단한 그는 「사람의 아들」, 「젊은 날의 초상」,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등 연속해서 초대형 베스트 셀러들을 양산했다. 그러나, 그는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작가라기 보다는 '탁월한 이야기꾼'으로, 변혁과 민중성의 의지를 다루는 작가라기 보다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작가라 볼 수 있겠다. 「사람의 아들」과 함께 조성기의 「야훼의 밤」 등이 베스트 셀러가 됨으로써 80년대 한국 사회의 일반 대중에게 '존재'에 대한 고민의 일반화 형태가 종교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즉, 사회적 모순에 대해 '종교'라는 존재론적 관심

으로 일반화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강석경의 「숲속의 방」이 널리 읽힌 것은 80년대 가장 선도적인 실천적 집단인 학생운동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준 것이라고 하겠다.

III. 시(80년대 네가지 흐름)

1. 고은, 신경림을 중심으로

민중적 차원에서 파악한 민족문학은 70년대 민중을 위한 민중 지향적인 문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중에 의한 민중의 민족문학, 즉 민중 주체의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생각하며 이것들은 한결같이 민족의 삶과 정서를 민중적 차원에서 파악하려 한다.

80년대 한국 문학은 사회적 이념적 환경에 대해, 한편으로 진보적 전문 문학작가들에 의한 민중적 차원의 민족문학과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가 주축을 이룬 민중 스스로의 민중 주체의 민족문학(혹은 민중문학)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진보적인 민족문학의 이런 민중지향적이고 민중 주체적인 성격은 70년대 민족문학의 주역들, 즉 80년대의 젊은 민족, 민중 작가 시인의 선배들에 의해서 생산된 이 시기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이 계열의 시인으로는 고은, 신경림, 김지하, 문병란, 조태일, 양성우, 민영, 박용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시기에 고은은 그 자신의 수많은 시들에서 민중의 기쁨과 슬픔을 죄다 포용하는 넉넉한 사랑과 그들의 지칠줄 모르는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커다란 신뢰를 보여 준다. 거기서 그는 급진적 이념이나 진보적인 사상을 직접 내세우기보다 민중이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감내해가는 구체적 삶의 과정을 일상적인 민중 언어의 용법과 문체를 활용하여 박진하게 그려냄

으로써 이 시인 특유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야말로 갈퀴 없으면
손으로 긁어
나무 한 짐 해오는
기달이 할머니
누가 뭐라고 해도
산 주인이 뭐라고 해도
눈 딱 감고
나무 한 짐 해오는
기달이 할머니
(중략)
웬만한 갈퀴보다
그 갈퀴손
갈퀴 열 묶 단단히 하고
비 오는 날
잠자는 동안
그 갈퀴손도 잠자는구나
비 그치자
산들바람 한 자락.

‘갈퀴손’으로 표상된 할머니의 생활 모습은 우리 민중들의 건강한 생명력을 전형화한 것으로, 「만인보」 제3권의 일부 분이다. 여기서 역경에 굽히지 않는 할머니가 고은의 민중에 대한 튼튼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삶의 모습 또한 절묘하게 그려내고 있다.

신경림의 시에서는 민중 자신의 의식 각성에 대한 존중이 엿보인다. 가난하고 억눌린 민중의 원한과 설움에 겨운 삶을, 이념을 무시하거나 초월한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계급적 시각에서 서사시적인 형태와 민중적 가락으로 압축하여 그린 것이 그 특성이라 하겠다. 그의 서사시집 「남한강」 중 「쇠무지벌」 7장의 4 부분이다.

속아서 빼앗긴 땅
보릿말 쌀뭉텨에 빼앗긴 땅
나라가 안 찾아주면 우리 힘으로 찾고
나라가 안 지켜주면 우리 힘으로 지키리
라

여기서 신경림의 역사 주체로서 민중을 인식하는 민중관이 여실히 드러나며 자신의 착취와 외세의 침략에 국가권력이 민중을 외면하는 만큼 민중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되찾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고은, 신경림 등등의 민중적 민족시인의 시들은 다소 상이한 이념과 형식, 감수성과 운율을 지니고 있으면서 오늘의 민중문학을 한층 넉넉하게 깊이있게 발전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여겨진다.

2. 김남주, 김용택을 중심으로

민중적 혹은 민족적 시각으로 작품 활동을 해온 젊은 시인들로는 김용택, 이동순, 하종오, 정희승, 고정희, 이시영, 정호승, 김정환, 김남주, 김진경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농촌시를 쓰는 김용택과 이동순은 오늘날 우리 농촌이 본래의 건강성과 순수성을 가장 잘 온존하고 있으면서 사회 현실, 역사현실의 모순된 실상도 예각적으로 집약하고 있다고 본다. 김용택의 경우 그의 시들은 자연이나 인간에 대한 맑고 짙은 정서와 역사 및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과 비판을 농민의 토착적 일상어로 생생하게 옮겨놓고 있다.

또한, 김남주의 경우 가히 혁명적이랄 만큼 강렬하고 직설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다. 그의 시에서는 미국(제국주의)과 자본가에 대한 적개심으로 그득하다. 그러나, 그의 시에서 보이는 강렬함 만큼이나

미국과 자본가에 대한 적개심으로 통일에 대한 뜨거운 갈망으로 승화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가 살아있는 이 땅의 현실에 대한 -분단과 점령, 미국과 자본가, 권력의 횡포와 반동성-문제 의식과 심각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걸리라 마침내
지상에 깃대를 세워 하늘에 내걸리라.
나의 슬로건 '조국은 하나다'를
키가 장대 같다는 양키들의 손가락 끝도
언제고 끝내는 부자들의 편이었다는
신의 입김도
감히 범접을 못하는 하늘 높이에
최후의 깃발처럼 내걸리라
자유를 사랑하고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식민지 모든 인민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겨레의 슬로건 '조국은 하나다'를!

그의 시 "조국은 하나다" 중 일부이다. 여기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아파하고 그 아픔이나 안타까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자본가에 대한 적개심으로 통일에 대한 뜨거운 갈망으로 승화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3. 황지우를 중심으로

흔히 김수영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더니즘」이라는 시를 실험성, 난해성, 다의성 혹은 의도적인 말의 축조성, 기성 문화에 대한 반항과 새로운 인식, 현대 과학문제

에 대한 주관적 조명, 감수성의 참신성과 복잡성의 강조, 그리고 객관적 현실의 폭넓은 이해보다 인간 삶의 한 측면(특히 내면세계)에 대한 집착으로 정의할 때 여기에 적합한 시인을 찾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 비교적 그런 경향에 가까운 시인을 든다면 황지우, 황동규, 정현중, 오규원, 이성복, 최승호, 최승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황지우는 초현실적 세계로의 지향과는 달리 자신의 일상적 삶과 역사적 현실의 변혁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다양한 시형식의 실험에도 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초기의 두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겨울 - 나무로부터 봄 - 나무에게」에서 더욱 새로운 시형식 창출의 노력이 엿보이며 이러한 새로운 시적 표현의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현실을, 지배체제에 의해 은폐된 현실을 제대로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3번째 시집 「나는 너다」에서는 올바른 사회발전을 위해 고통받는 민중의 해방을 위해 단결하여 진군하자는 「205·징」을 비롯 새로운 형식의 실험보다 인간의 궁극적 해방을 위해 ‘우리’가 되고자 하는 총체적 시각을 보여준다.

가자

개항이후 온갖 야욕과 무명과 거짓과
반혁명과
제국주의가 삼킨 익명들이 되살아난다.

가자, 저 중심으로
살아서 가자
살아서, 여럿이, 중심으로
포로된 삶으로부터
상처의 핵심으로
해방의 징으로

그러나, 황지우의 시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적 요소보다는 내면적이고 무의식적인 요소가 더 많음을 알지만 행동적 요소가 적다하여 그 특유의 시적 가치를 배격하거나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싶다. 즉, 여러 억압적 상황에 대한 반항성으로 그 상황을 빈정거리고 부정하는 작가의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4. 박노해, 백무산을 중심으로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진출한 노동자 계급의 각성의 정도에 따라 노동자 스스로의 창작들이 눈에 띄게 부각되어지는데 바로 박노해, 백무산, 김석주, 김해화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노동현실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에 토대한 노동자의 감정과 의식이 살아있는 모습의 노동문학 혹은 노동해방문학을 양산하게 된다. 먼저 박노해의 경우 「노동의 새벽」에서 확실히 보통 지식인 시인이거나 전문적 시인의 시보다 그것에서 느끼기 어려운 신선하고 진지한 느낌을 준다. 동 시집의 해설에서처럼 노동현실의 구체적 체험에 깊이 뿌리박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절망과 슬픔, 원한과 분노의 정서를 놀랍도록 생생히 담아낼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인간다운 삶을 향한 주체적 일어서 속으로 녹아들어가 일궈내는 민중해방의 정서를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쟁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가지

(중략)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벽을
기어코 깨뜨려 솟구칠
거칠은 땀방울, 피눈물 속에
새근새근 숨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수줍잔을
돌리며 돌리며 붓는다
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오를 때까지

힘겨운 작업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노동자의 불안한 정서와 절망감을 나약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햇새벽이 올때까지 노동자의 단결된 사랑과 억압자와 착취자에 대한 투쟁을 역설하고 있다.

박노해의 이러한 삶의 고통과 분노의 정서는 「만국의 노동자여」라는 시집을 낸 백무산에 이르면 한층 가열된 증오와 투쟁의 정서로 강화된다.

이제는 돌아오라
깃발도 핏물이 들었다.
잃어도 아깝잖은 찢은 살림
홀홀 털고 돌아오라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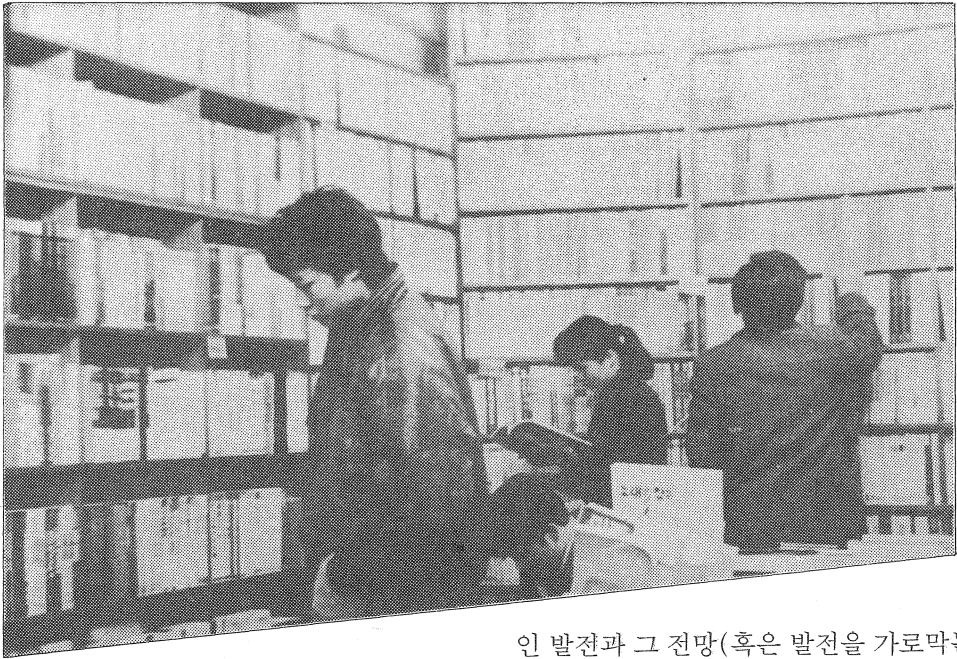
이제는 편견을 갖고 돌아오라
알량한 협박에 떨지 말고 돌아오라
올가미 화합 문서 북북 찢고 돌아오라
우리가 먼저는 아니다
편견을 갖고 돌아오라
노동자의 편견이 없는 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그렇게 돌아오라

박노해의 경우, 노동운동 속에서 요구되는 부문이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요구에 부응하는 시가 그에 의해 양산되어...

「편견을 갖고 돌아오라—현대중공업 결사대에게 바친다」라는 이 시는 단호하게 급진적인 노동자 계급의식을 뚜렷이 부각시킴으로써 이념성의 명쾌함을 돋보이게 한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억누르는 세력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은 계급적 이념뿐만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고 급할 수 없는 행동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백무산의 시에서는 그런 차원의 정서와 의지를 살리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점 또한 존재한다. 그의 시에서 그러한 노동자의 요구와 저항의 정서가 단순한 앙갚음이나 복수의 감정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계급적 이념은 선전 선동적인 구호의 진술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이 노동문학의 예술적 질을 높이는 데 일정정도 장애의 요소로 작용될 소지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직관적인 노동해방사상이란 말에서 나타내듯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함축되어짐이다.

그러나, 박노해의 경우, 노동운동 속에서 요구되는 부문이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요구에 부응하는 시가 그에 의해 양산되어졌기 때문이다. 최근의 ‘씨받이 타령’이나 시사시와 같은 경우 대중에게 친숙해있는 여러 양식들을 사용함으로써 노동대중에게 깊이 파고들어갈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밖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조직창



작' 혹은 '집단창작'이 70년대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80년대 들어 시작되고 활기를 띤 사실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문학창작이 개인의 전유물만이 아니며, 문학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이며 또한 현실이 변화한 결과이다. 즉,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본질적으로 대변하지 못할 때 문학은 점점 고립되고 파격적인 내용이나 형식실험으로 시선을 두러워 하거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유희행위로 전락될 것이라는 문제제기 속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80년대 시 중에서 많은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던 서정윤의 「홀로서기」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과 이해인 등의 시인들과 그 작품은 논외로 하고자 한다.

IV. 마치며

우리 삶의 본질, 전체성과 사회, 역사적

인 발전과 그 전망(혹은 발전을 가로막는 제 모순들)을 훌륭하게 형상화하고 예술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고 기여하는 형식을 내용과 발전적으로 결합시키고 조명하며 추구해 나가도록 많은 노력을 벌여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80년대 문학과 현실을 조명함으로써—앞에서 서술했던 바 80년대를 '전환기'로 규정지었다 할 때 문학예술은 다른 여타의 변혁세력과 마찬가지로 현 시기를 타개해 나가지만 특히 '문학'이라는 강위력한 무기로 현실모순에 대한 폭로와 미래에 대한 올바른 전망이 정확히 결합된 내용과 형식으로 사회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즉, 이후 문학이라는 장르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개인주의적 문학관이 문학운동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가지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남게 되는 계급적 한계를 벗어나 대중성을 획득해야 하고 역사 발전에 합법칙성을 문학으로 나타내고 또한 그 합법칙적 발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활성화되는 사무직 여성노동운동

하성아(특문3)

I. 들어가는 말

쭉쭉 뻗은 빌딩 속 세련되게 배열된 사무집기 속에서 바쁘게 일손을 움직이는 사람들. 소위 고급인력으로 여겨졌던 사무, 전문·기술직은 생산직 노동자에 비해 다소 나은 대우속에서 연장 초과근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사회적 지위상승과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향해 70년대를 매진해 왔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고속성장의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이들 사무직·전문직 노동자들에게도 억눌림과 빼앗김의 정도는 강화되기 시작했다. 즉 생산의 직접 담당자인 생산직 노동자 이외에도 생산과정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맡아온 이들 사무직 노동자들의 일이 대량화·자동화·단순화되면서 차츰 노동의 자율성 상실에 따른 지위하락의 길을 걷게 되고 70년대의 초고속 승진이 현저히 둔화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실업의 위험성마저도

글의 순서

- I. 들어가는 말
- II.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현황
사무직 여성노동의 구조 및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의식을 중심으로
- III. 여성차별의 실태와 그 대응
 - 1. 차별임금
 - 2. 결혼퇴직, 차별정년
 - 3. 비인격적 대우
- IV. 맺는말

느끼게 된다. 이리하여 상대적 안정감과 우월감에서 잃어버렸던 임금생활자로서의 노동자의식을 다시 갖게 된 것이다.

여기에 87년 6월 민주화운동에 이들이 높은 민주화의 열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은 지금까지의 경영진, 관리진의 낙하산식 임명, 불공정한 인사관리, 권위주의적 통제, 임금의 정체와 직급·직종간 차이와 차별의 심화, 학력간 차별과 성차별 등에 대한 불만과 이어져 직장내의 민주화를 요구하게끔 되었다.

나아가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겪으면서 이러한 요구를 표출할 조직적 틀로써 대중적이고 합법적인 공간인 노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어 수많은 사무, 전문, 기술, 서비스직 노동조합이 생겨났다.

이처럼 사무관련직 노동운동은 87년 6월이후 가장 활발한 운동중의 하나로 자리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그 내에 조직화되기 시작한 사무관련직 여성노동자의 움직임도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사무직 여성노동자는 현재 6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사무노동의 자동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의 여성화경향을 따라 당분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방대한 규모의 여성들이 여성노동의 대열에 새롭게 등장함으로써 여성노동과 노동운동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은 이 운동의 앞날을 밝게 해주는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으며, 여성들의 정치세력화라는 측면에서도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졸업 후 사무·전문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므로 이들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이 글에서는 현재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의 현황, 즉 그들의 노동구조 및 의식,

사무관련직 노동운동은 87년 6월이후 가장 활발한 운동중의 하나로 자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성차별의 현실과 그 대응들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는 것으로 하겠다.

II.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현황

사무직 여성노동의 구조 및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의식을 중심으로

총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3년 34.8%에서 1987년에는 40.4%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표1). 60년대 이래 취업자 수나 비율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직종은 서비스직, 생산직, 사무직 등이다. 1963년과 1987년을 비교하면 서비스직과 생산직은 절대 수에 있어서 6~7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사무직은 20배에 가깝게 늘어 사무직 여성취업자 수의 증가는 놀라운 것이다. 비율에 있어서도 전체 사무직 취업자 중 여성비가 1963년 11.3%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 13.4%, 1980년 32.7%, 1987년 36.9%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렇게 현저히 증가해 온 사무직 여성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는 경리원 및 출납원, 문서 및 보고사무원, 교통안내원, 속기사, 타자원 및 전신타자원 등이다(이들 분야의 여성 비율은 1986년 현재 90% 이상으로 여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에 사무원 감독자나 운수 및 통신사업 감독자,

〈표 1〉 직업별 취업자 수와 여성비율 추이

(단위 : 1,000명, %)

		1963	1970	1980	1987
총 취업자	총수	7,563	9,617	13,683	16,354
	여자	2,633	3,513	5,222	6,613
	(A)	34.8	36.5	38.2	40.4
	(B)	100.0	100.0	100.0	100.0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총수	247	462	732	1,233
	여자	53	85	186	387
	(A)	21.4	18.4	25.4	31.4
	(B)	2.0	2.4	3.6	5.8
사무직	총수	266	575	1,268	1,886
	여자	30	77	415	696
	(A)	11.3	13.4	32.7	36.9
	(B)	1.1	2.2	7.9	10.5
판매직	총수	765	1,194	1,984	2,452
	여자	343	509	867	1,157
	(A)	44.8	42	43.7	47.2
	(B)	13.0	14.5	16.6	17.5
서비스직	총수	393	615	1,078	1,781
	여자	169	349	626	1,082
	(A)	43.0	56.7	58.1	60.7
	(B)	6.4	9.9	12.0	16.4
농림수산직	총수	4,760	4,827	4,648	3,543
	여자	1,1814	2,042	2,033	1,603
	(A)	38.1	42.3	43.7	45.2
	(B)	68.9	58.1	38.9	24.2
생산직	총수	1,131	1,944	3,974	5,459
	여자	222	453	1,095	1,688
	(A)	19.6	23.3	27.5	30.9
	(B)	8.4	12.9	21.0	25.5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1987.

(A) 각 직종내의 여성비율

(B) 여성취업자 중 각 직업별 종사자의 비율

물품관리원, 자재수급 및 생산관리원은 여성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어서 사무직 내에서도 여성이 편중되어 있는 직종은

대부분 단순, 하위직임을 알 수 있다.

연령계층별 구성을 보면, 사무직 남성이 25~44세에 집중되어 있음에 비해(74.

2%), 여성은 15~24세가 70% 정도로 대부분이 미혼의 연소연령층 여성으로 구성되고 있고, 교육정도별로는 86%가 고졸자이며, 사무직 남성의 37%가 대졸자임에 비해 사무직 여성은 5% 정도만이 대졸자이다. 최근에는 전반적인 학력의 상승추세로 인해 여성노동자의 학력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고용형태는, 아직까지 상용고가 압도적이다(95.2%). 이는 생산직의 상용고 비율이 62%, 임시고 비율이 22%임에 비해 사무직 여성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근속년수를 본다면, 남자의 평균 근속년수 5~6년에 비해 여자는 그 절반인 3년 밖에 되지 않으며, 10년 이상 근속층은 3.1%에 지나지 않는다. 5년 이상의 경력층에 절반 정도가 속해 있는 사무직 남성과는 대조적으로 사무직 여성은 5년 이하의 경력층에 85%, 3년 이하 경력층에 60%가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전직율이 낮는데, 이는 재취업이 쉽지 않고, 어디로 가나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전직보다는 그냥 눌러 있다가 결혼 후 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의 노동시간은 월평균 25일(213시간)이고 일평균은 8.6시간이다(1985).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통계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길다. J사의 L씨는 월말이 되면 약 1주일간은 10시, 11시에 퇴근하는 일은 다반사이며 철야도 1~2일은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기간의 노동이라야 잔업의 개념에 포함될 뿐 '매일매일의 일과에서 1~2시간 정도 늦는 것은 잔업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J전자의 K씨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하루 정규 노동시간이 오전 8시30분 출근, 오후 9시30분 퇴근으로 아예 못박혀있어. 대부분의 여직원들이 남직원들보다 30분내지 1시간 가량 일찍

출근하여 사무실 청소, 정리·정돈을 하며 남자들과 출근시간은 같지만 사무실 정리는 여사원 몫이기 때문에 대체로 조금씩 일찍 나온다. 이것은 가외의 노동시간이 여성에게 강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간에 대한 댓가는 치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환경은 어떤가?

'한마디로 밀폐된 공간입니다. 공장에서 유독가스 냄새, 기계소음 때문에 괴롭다면 우리는 순환안되는 공기, 각종 기기의 소음 등으로 괴롭습니다. 공기 정화기가 있다지만 그것이 무슨 효과가 그리 있겠어요? 하루 9시간, 10시간 있다 나오면 저녁 때는 머리가 멍하고, 목구멍이 아파서 호흡기 병에 유달리 잘 걸려요'(L중권, P씨). 환경 자체에서 오는 직업병과 함께 사무실 여성노동자의 작업도구인 타이프라이터, 컴퓨터 영상 단말기의 사용에 따른 직업병의 문제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이 실제 하는 일을 살펴보면, 타이핑, 키핑, 복사문서 및 장부정리, 관리, 문서수발, 경리, 세금계산서 정리, 전화받기, 은행심부름, 외부 심부름, 전산입출력, 실적보고, Telex, Fax 업무, 전표작성, 창구업무, 사무실 청소, 미화, 남직원 업무보조, 남직원들 커피·담배 심부름, 손님접대, 그외 상사의 비서역할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자면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노동의 일반적인 모습은 위계상 하위체계에서 사무실의 남성사무직 상급자 내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분절화된 단순노동(타자기, 팩시밀리, 복사기, 컴퓨터 등)들을 기계를 사용하여 수행하면서 동시에 전통적으로 여성이 해야 한다고 간주되어 온 청소, 심부름, 손님접대, 사무실 미화 등등의 잡일도 담당하는 것이다.

사무실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는가? 흔히 사무직 여성들은 자신을 노동자라기 보다는 '직장여성'이라고 자칭하는 허위의식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최근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 사무직 여성노동자들도 스스로 '노동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친근감이나 자신이 생산직 노동자로 이동하는 것에는 완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데 이는 아직까지 양 집단간에 존재하는 물적조건의 편차와 사회적 평가의 차이를 사무직 여성들이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재 노동운동의 전반적 고양속에서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자의식,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절대 다수가 조직의 바깥에 있으며 의식도 지체되어 있어 운동의 가능성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훨씬 큰 실정이다.

사무직 여성의 노동자 의식의 고양과 참여의지의 확산과 함께 노동자 계급의식으로써의 확고한 정체성, 연대성, 회사내 위계체계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인식 등등은 아직도 미흡한 채 혼재적 의식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 사회의식 역시 그러하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을 노동자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노동자층과의 연대의식, 통합적 계급인식의 수준으로까지 도달해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또한 현재까지는 생산직과 노동현장과 생활상의 객관적 조건의 차이가 일정 정도 작용하므로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수준도 높은 편은 아니다.

자본과 노동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즉자

대부분의 여직원들이 남직원보다 30분 내지 1시간가량 일찍 출근하여 사무실 청소, 정리정돈을 하며...

적 대립감과 함께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인식의 틀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며 그 틀안에서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의식이 높아져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치적·사회적의식 역시 이 틀안에 있으며 그 수준은 더욱 낮은 편이라고 느껴진다.

Ⅲ. 여성차별의 실태와 그 대응

사무직 여성노동자들과 집단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가장 분노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직장내 성차별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 여성이 노동현장에서 느끼는 성차별 문제는 다음 세가지로 집중된다. 차별임금(직무차별, 승진·승급차별 포함), 평생 노동권(결혼퇴직, 차별정년, 모성보호), 인격적 대우의 문제이다. 아래에서 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차별임금

차별임금은 사무직 여성노동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을 얼마씩이나 받고 있을까?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동일한 고졸학력내에서 사무직 남녀의 임금격차는 100 : 55이다. 초임에서도 평균 100 : 57로 차이가 나고 이 격차는 근무경력이 오래되어도 바뀌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된다. 성별격차는 대기 업일수록 심하여 30~99인 규모 기업에서

평균 100 : 54, 30人 이상 499人 규모에서는 100 : 50, 500人 이상 기업에서는 100 : 48로 벌어진다.

이상에서 보듯 사무직 여성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다.

남녀 임금격차가 비교적 적다는 은행의 임금대비표를 보자(표2).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단일호봉제를 채택한 은행에서도 여행원은 별도의 임금체계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여행원'은 단지 여자행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직급을 나타내주는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일학력일지라도 기본급과 금융수단에서 각각 차이가 날 뿐 아니라 6급 분리호봉하에서 남자의 기본 호봉차액은 매년

사무직 여성 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절반정도의 임금을 받는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다.

7,000원(합계 승급액 : 9,800원)인데 비해, 여자의 기본호봉차액은 매년 3,000원(합계 승급액 : 4,200원)이고, 5급 분리호봉하에서는 승급액 격차가 더욱 심해져 임금 절대액과 임금비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즉, 직급이 올라갈수록 남녀 임금격차는 커지며, 같은 일을 함에도 단지 여성이라

〈표 2〉 은행의 남녀 임금대비표

	남 행 원			여 행 원			차 액		비 율
	기 본 급	금 융 수 당	계	기 본 급	금 융 수 당	계	기 본 급	차 액 계	
1	137,000	54,800	191,800	118,000	47,200	165,200	19,000	26,600	86.1%
2	144,000	57,600	201,600	121,000	48,400	169,400	23,000	32,200	84.2
3	151,000	60,400	211,400	124,000	49,600	173,600	27,000	37,800	82.1
4	158,000	63,200	221,200	129,000	50,800	177,800	31,000	43,400	80.3
5	165,000	66,000	231,000	190,000	52,000	182,000	35,000	49,000	78.7
6	219,000	86,800	303,800	175,000	70,200	245,000	42,000	58,800	80.6
7	225,000	90,800	315,800	179,000	71,600	250,600	46,000	64,400	79.5
10	249,000	99,600	348,600	191,000	76,400	267,400	58,000	81,200	76.7
15	292,000	116,800	408,800	211,000	84,400	295,400	81,000	113,400	72.2
20	337,000	134,800	471,800	231,000	92,400	323,400	106,000	148,000	68.5
25	392,000	152,800	534,800	251,000	100,400	351,400	131,000	183,400	65.7

(1987.11)

〈표 3〉 A회사의 고졸출신 남녀의 업무내용 및 임금비율 비교표

(원, %)

	업 무 내 용	초 임	임금비율
남	영업, 관리, 선적관련 업무, 기획	233,500	100
여	영업보조, 회계정리, 대장정리, 전산입출력 각종 서류작성, 문서수발, 타자 등	158,500	67.9

는 이유로 여성 노동자의 기본급이 남성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다.

기본급의 차이는 수당의 차이를 가져온다. 수당의 종류는 각 기업에 따라 다양한 이름과 명목으로 지급되지만 기본급에 준해 정율로 지급되는 가계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신탁수당 등이 있으며, 남녀직무에 따라 남성에게 절대액이 훨씬 많이 지급되는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이 있다. 또 이런 기본급과 수당의 차액은 상여금 절대액의 차이로 귀결되어 결국 실제 월급의 총액은 큰 격차를 보이게 된다.

S투자의 경우 창립당시 5급 여직원에게 남자 고졸과 동등한 직책수당이 있었으나 타사 평균보다 많다 하여 받고 있던 사람만 인정된 상태에서 이후 5급 여직원에게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5급 여직원이 현재 4급으로 승급되지 못하고 가호봉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비교적 남녀차이가 적고 노조의 힘이 강력한 편인 금융권의 사정이 이러한 때 여타 기업의 사정은 불문가지로써 대재벌인 D사의 경우 고졸 여직원은 10년이 되어야 고졸 남직원의 초임과 같아진다. 각 직급별, 남녀별로 호봉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근속년수가 늘수록 불이익을 받는 사정이 역시 같고, 수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사고과가 능력급제도로 전환된 기업에서는 대체로 여직원이 희생양이 되고

임금격차는 이 때문에도 벌어진다.

이상 차별임금 실태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격심한 차별임금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 아래서 시행되고 있는가? 남녀간의 직무차별, 승진, 승급제도의 차별과 그에 따른 분리 임금체계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 직무분리

남녀 임금격차를 낳은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남녀간에 직무자체가 분리되어 양 직무에 임금차별이 엄청나고 나아가 직무분리의 장벽이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표3). 이러한 단순·보조업무에 따른 임금격차는 대졸 단순사무직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전문직 여성의 경우는 남자와 비교할 때 초임에 있어서 90% 정도(삼성 : 91.9%, 웅진출판사 : 96.4%, 서강대 : 95.9%, 현대대상화재 : 90%)의 격차를 보이는 데 반해 단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대졸 사무직 여성은 동일 학력 남성임금의 60~70%정도(동서증권 : 61.8%, 금성 : 72%)를 지급받거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고졸여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H화재), 고졸출신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어(H투자), 남녀직무 분리체계가 차별임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승진, 승급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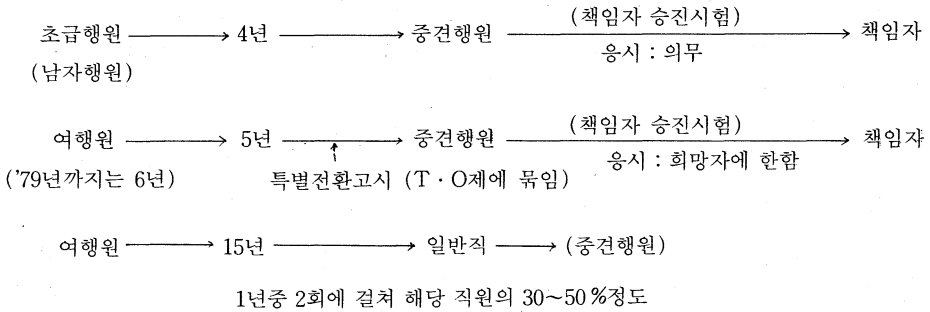
사무직 여성노동자는 애초에 보조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리되어 채용되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대다수 기업에서는 사무직 여성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직무분리의 벽 안에 가둬놓았다. 일부 통로를 열어놓는 기업에서도 여러 장애 때문에 사무직 여성들에게 남자 직급으로의 승진, 승급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제한적이거나 승급, 승진제도가 마련된 은행의 경우를 보자(표4). 77년 5월을 전후하여 실시된 중견여행원제도, 여행원에서 일반행원으로 될 수 있는 특별전환고시, 보통승격고시(책임자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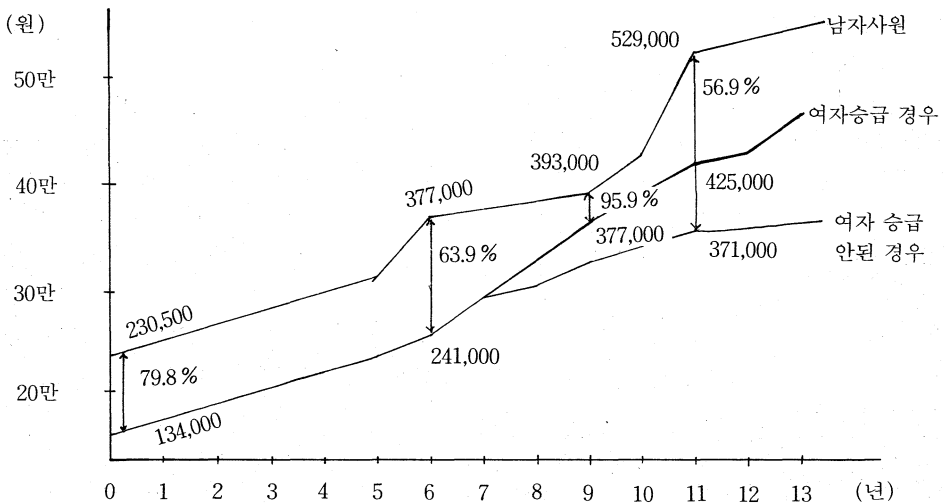
시험), 15년 이상 근속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 등에 의해 여행원의 직위향상과 승진, 승급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여행원들이 평등의 쟁취를 위해 끈질기게 싸워온 덕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인 은행내의 현 위계질서의 골격은 그대로 둔 채, 주변의 편법으로 문제를 무마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들 제도들이 큰 실효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표5).

아래에서 차별임금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해 본다.

〈표 4〉 승진에 있어 고졸 남녀행원의 대비표



〈표 5〉 B증권 승진여부에 따른 임금 비교선



●H화재 : 평사원을 기준으로 남성에 대한 여성 임금비율이 48%였다. 단체협약 체결 때 결혼퇴직 철폐, 산전산후 휴가, 체력단련 휴가, 여직원 승급제도 등을 포함시켰다. 노조에 여직원이 열심히 참여 하는 것이 뒷받침이 되었다. 그 결과 5급을 20호봉(173,000)에서 만 5년 근무하면 4급을 19호봉을 신설하여(273,000) 여직원의 승급길을 열었다. 이후 5년이 지나면 4급급 18호봉으로 승급(347,000)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여직원은 6년이 되어야 남자 고졸초임과 같고 11년이 되어야 4년 경력의 남자와 같게 된다는 격차는 존재하며 이 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D신탁 : 여직원회가 중심이 되어 동일 학력에는 동일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 노동위원장에게 여직원의 의사를 건의하여 85년 9월, 은행의 전환고시제도를 도입하여 입사후 6년이 경과한 여직원에게 승급시험제를 도입하여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토록 하였다. 그러나 어려운 시험문제와 합격자에 대한 지방발령으로 1회 실시 때 2명 합격 후 채용시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전직고시 합격할 경우와, 아닌 경우 80%의 임금격차가 있으므로 재도전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Y증권 : 86년에 고졸 남녀 동일임금 체계 확립, 87년 고졸남녀의 임금격차를 4호봉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2호봉만 줄였다.

●H투자 : 5년 되면 시험보고 4급을 승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 결혼퇴직, 차별정년

88년 4월에 제정되고 89년에 개정, 시행되고 있는 남녀고용 평등법에서는 성차별적 정년·퇴직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제 ‘결혼퇴직’ ‘조기정년’은 부당하다는 것이 보편화된 가치관인 것처럼 보인다. 사실 여직원의 의지만 있으면 별 마찰없이 다닐 수 있게 된 회사도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금지된 결혼퇴직, 차별정년은 과연 사라져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여성에 대한 이러한 불평등한 강제는 없어질 것인가? 그 답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우선 결혼퇴직관행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기업이 너무나 많고, 남녀고용 평등법 시행이 널리 선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여성노동자가 많음을 기화로 종래의 불법적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또 결혼퇴직각서를 받는다는가, 사표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교묘한 탄압-예를 들면 지방발령, 심리적 압박 등-을 통해 결국 손을 들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탄압을 이겨내는 노동자들의 강인한 단결이 필수적이다. 다음에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짚어보자.

●영남의료원 교환원 장영이씨 사례

영남의료원에서 교환원으로 근무해오던 장영이씨가 만28세 퇴직이라는 내규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사건이다. 장영이씨는 영남의료원측의 부당한 성차별에 대해, 일할 권리를 되찾고 만 28세 조기정년의 부당함을 개선시키고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각계에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대구여성회를 중심으로 대구여성단체들과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펴나간 바 있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측은 복직불가로 강경히 맞서고 있을 뿐 아니라 장영이씨 해고이후 교환원을 임시직으로 채용하였다.

●대한투자신탁 주소녀씨의 사례

대한투자신탁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86년 1월에 모범사원 표창까지 한 주소녀 씨(당시 31세)에게 사표를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신혼여행 후 출근한 주씨의 책상을 없애버렸다. 주씨는 '여성의 전화'에 지원을 요청, 공식항의로 결혼퇴직 강요가 철회되었다. 그러나 이후 지방발령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견디지 못한 주씨는 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단체 연합에 도움을 청해 신속하고 집요한 항의로 서울로 복직된다. 이후 주씨는 계속되는 추궁과 압력속에서 사표를 내고 말았다.

• 민주노조가 중심이 되어 해결된 사례들

1983년 단자회사 중 최초로 노조를 결성한 한일투자금융노조는 84년 1차 단체협약 때 여직원 결혼퇴직 부분을 삭제, 큰 무리없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87년 교육보험노조 역시 노조결성과 함께 여직원들의 독소조항인 30세 정년과 결혼퇴직을 철폐시켰고, 현대화재해상보험노조도 87년 12일간의 단식농성 과정중에 여직원의 결혼 후 계속 근무규정을 단체협약에 명문화시켰다.

결혼퇴직, 차별정년의 거부는 평생노동권 확립의 직접적인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노동권은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로 전체적인 불평등의 해결없이는 온전하게 확립되어 어렵다는 점을 견지해야 한다.

3. 비인격적 대우

회사내의 가부장적 관리방식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기를 제압하여 고분고분한 노동자들을 만들려는 통제책의 일환이다.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통제책의 일환이라는 성격과 함께 사회내

의 뿌리깊은 여성비하 관습에 의해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측면도 강한듯이 보인다.

사무직 여성이 꼽고 있는 비인격적 대우는 대체로 두 종류로 나뉘볼 수 있다. 하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맡은 직무외의 일을 시킨다든가, 이른바 여성적인 일을 아예 직무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런 일에는 사무실의 정리·정돈, 차접대, 사소한 심부름 등이 주로 포함된다. 대부분의 경우 모멸감과 불만을 느끼지만 현재 그것이 업무내용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왜 여직원이 사무실 청소를 하는가에는, 상사의 요구로, 관례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고 담배심부름, 그외 사적인 심부름도 '스스로 안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답한다.

반말, 음담패설, 희롱 등도 사무직 여성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비인격적 대우'의 내용들이다. 사무직 여성의 80%가 직장에서 반말로 업무를 지시받고, 그외 성적인 희롱도 적지 않다.

IV. 맺는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무직 노동여성의 실태를 바탕으로 평등한 노동을 위한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 다섯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평등한 고용체계가 확립되어야만 한다.

둘째, 차별임금이 철폐되어야 한다.

셋째, 결혼퇴직, 차별정년이 폐지되어야 한다.

넷째, 성폭행·희롱·욕설·반말·구타 등 여성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가 근절되어야 한다. '미혼의 용모단정한 여성'을 채용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순종적·

종속적으로 만드는 노동통제책도 없어야 한다.

다섯째, 모성의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정책의 철폐는 모성의 보호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위의 문제들과 더불어 이에 얽혀 있는 더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 남성노동자들, 심지어 여성노동자들 스스로가 성의 차별을 당연시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차별은 불가피하며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체득하여 비판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차별채용, 결혼퇴직, 승진승급 등의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줄기찬 노력과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모습들,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사무직 여성들의 요구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노동현장 내에서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남성노동자의 문제인 동시에 곧 전 노동자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노동자들의 힘이 하나로 뭉쳐져 조직적인 힘으로 발휘될 때만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결혼 퇴직, 차별 정년의 거부는 평생노동권 확립의 직접적인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을 알 수 있다.

여직원회, 노동조합, 단위사업장을 뛰어넘은 연대를 이루어 나감으로 현재의 한계와 역부족을 극복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혼퇴직제, 승진·승급보장, 성별임금 격차 해소가 하나의 궤를 달리는 여러 언론을 한 얼굴을 한 문제들이요, 궁극적으로 여성의 인간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이를 막고 있는 조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극복자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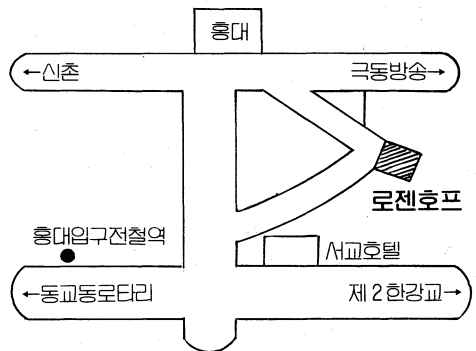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지난 몇년간의 변화의 물결을 체험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속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살고 있다. 길지 않은 사무직 여성운동의 역사속에서 우리 앞에 던져진 문제들은 결국 올바르게 적극적인 실천활동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사무직 여성의 현실과 운동」, 한국여성 민우회, 석탑.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모성보호 확보를 위하여(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력)」, 정강자, 새벽3호.
- 「사무 전문직 노동자의 계급적 범주와 역할」, 장명자, 새벽7호
- 「사무직 노동운동 현황」, 정강자, 창지 15호
- 「사무직 여성노동자 운동의 현실과 전망」, 박주미, 잉태2호
- 「사무직 전문·기술직 노동운동中 1장-민주화운동 직장청년회」, 백산.

여명 4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로젠호프



여명문단



- 시 : 나의 고향은
밤을 지내며
- 수필 : 사랑하는 나의 여인아
내 생활의 자신감은?
대학1학년, 나의 일기
- 서평 : (전태일전집)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 영화평 : 매춘 II
「사고 팔리는 性」에 분노하며

나의 고향은

영어교육 3. 정 활

노래한다
나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아가진달래

옛 동네 하수구, 샬넬악취로 숨가쁘고
뛰놀던 길에는 딸라가 훑날리며
희끗희끗 시커멓고 이국말 짚금
모르는 목공소 이씨 아저씨
눈뜬 장님된
여기는

나의 고향은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 언제부터이던가
주인과 객 낮과 밤
物과 의식이 제자리 못찾아
애꿎은 우리네 사는 식만 욱먹는
여기는

땅은 분명 진달래의 터
하늘은 필시 반만년의 나이테를
만천하에 내보이는데
그렇다면 진정 그렇다면
나는 우리
자유대한 사람인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닌가보다 나는 우리
조선사람일진대

나의 고향은

밤을 지내며

경영학과 2. 백 혁 현

나를 부르다 숨이 턱 막히는
여름철 무더위의 정조같은 칼날
발을 딛는 곳마다
무너지는 조각들을 주울 때면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로 묶어낸다.
하얗게 익어나가는 눈동자 사이에도
그믐달 목덜미를 바라보는
이름없는 들풀같은 질기움
그 힘겨움을 짊어진
앓된 얼굴 가리우는 얇은 수작들.
손가락 끝에서 부터 타기 시작하는
어찌면 장렬한 분신의 시작으로
들뜬 목숨 걷어올리는,
나를 부르는 숨소리마저 식어가는
그런 밤을 지내며
청명하니 가까운 산속 어린시절
기꺼이 벗어부친 옷도리 심지되어
잠자리도 불붙게 하는 힘 앞에
나방마냥 뛰어드는 나를
나를 자꾸만 부르는 달아오른 밤을 지내며.

사랑하는 나의 여인아

정 도준(건축3)

1. 동트는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며 / 개인의 설움과 恨은 민족과 민중에 대한 사랑으로 / 믿음과 의지는 굳건한 투쟁력으로 승화시켜 / 끈질기게, 끈질기게 나의 삶을 계속하는 한 / 그대 앞의 나의 사랑은 / 가장 순결하고 청아한 사랑이요 / 너무도 절실한 사랑이 될 것이요. / 나 오직 그대를 사랑하오 /

겨울

2. 겨울

그것은 곧 만남이었다.

그저 흔들리는대로 흔들리던 그러나, 저 밑바닥에서부터 고요히 잠재해 오던 주먹만한 심장이 처음으로 하늘을 본 것이다.

저기 저 어둔 구석에서 홀로 웅크리며 서서히 굳어갔을지도 모를 나에게 그대는 내 손을 잡아주었고, 무의미하던 내 가슴을 포근히 감싸주었나이다.

그대와의 만남으로 나는 일어섰고 이제는 감히 그대 곁에 서려합니다.

그때 아직 눈도 뜨지 못한 나에게 그대는 충격이었고 실로 엄청난 존재이었으니 그대는 웃음도, 분노도, 눈물도, 기쁨도 가진 참 모습이었고, 이 지독한 겨울속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는 벽찬 희망이 가득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나이다.

지금도 찬바람이 부는 이 겨울별판을 견노라면 이마의 땀방울을 닦으며 가볍게 미소짓는 그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웃음에 맨손으로 언 땅을 일구어 내일을 심고, 아픔일랑 웃고름에 흘려보내는 그대, 나에게겐 언제나 강한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대를 나는 꿈쩍히도 사랑합니다

3. 지금의 시대에서 나는 웃을 수밖에 없다 / 웃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이 괴롭기 때문이다 / 여기에서 웃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살을 당하는 행위이다 / 나는 치밀하고 완벽하리니 / 웃음은 철저히 나를 지켜줄 것이며 / 한번 웃을때 그만큼의 분노는 내 가슴에 잉태되는 것이다 / 오랜 산모의 고통으로 수천번 웃음이 짓밟힌다해도 / 끝끝내 얼음판 위에서 불을 피우고 / 메마른 땅에서 꽃을 피우리라 / 기다리는 자는, 그리고 아파하는 자는 행복하다 / 기다림이 진실할수록 하늘은 푸를 것이며 / 아픔이 클수록 땅은 풍성할 것이다 / 울수도 웃을 수도 없는 지금의 시대에서 나는 또 한번 쓰러지며 웃는다 / 쓰러지고 부서지며 그 웃음이 허공가를때 육신은 생명이요, 영혼은 자유일지니 / 호흡한다 하여 어떻게 다 살아있는 것이며 / 눈감았다 하여 어떻게 다 죽었다 말할 수 있는가? / 귀막고서 들어보아라 / 얼음속에서 물흐르는 소리를 / 동토에서 씨앗이 숨쉬는 소리를 /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되는 소리를. / 아! 이 얼마나 가슴벽찬 일이란 말인가? / 웃자. / 그리고, 분노할 건 분노하자 / 사랑할건 미치도록 사랑하자.

추 위

4.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전해오는 감각은 그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처마끝에 떨어지는 빗물은 파문을 이루고 고개숙인 그대모습 그 위에 아른거리는 데 오늘도 나는 이렇게 한숨쉬고마누나. 땅바닥에 무릎꿇고 앉아 손끝이 갈라져 피흐르도록 그대이름 써보아도 무섭게 짓누르는건 잔인한 고독

간절히 간절히 너를 부르며 가슴 활짝피고 하늘을 안고 싶다. 그리고 그 하늘에 내가 안기고 싶다.

5. 외롭다

자꾸만 그대 모습이 희미해진다.

견디기 힘겨운 갈증으로 이젠 황토라도 한웅큼 집어삼켜 사뻏건 파를 토하고 그 속에서 새롭게 일어서야겠다. 그러데 여긴 황토도 없구나.

온통 푸석푸석한 모래뿐이구나.

그저 이렇게 흔들리며 서 있을 순 없다. 나는 하나이고 싶다.

오직 나의 사랑하는 여인과 그리고 이 땅과 하늘과.

그러기에 나는 강하게 서 있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허나 흔들리면 어떠하랴 또 쓰러지면 어떠하랴. 나는 오늘도 웃으며 살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그대의 체온도 느낄 수 있을텐데.

6. ○○년 ○월 ○일

오늘도 나는 이 지독한 시간속에서 굶주린 눈빛으로 어둠을 더듬어 별을 찾는다. 땅바닥에 거꾸로 처박혀 무덤을 파헤치고 두손 고이 모아 합장하며 눈감아 버리고 싶어도 단 한번 그대의 눈물을 지울 수 있다면 내 어찌 그리하오리까. 습기가 녹녹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사방으로 조여오는 압박감에 무릎꿇어 고개 숙이고 싶어도 단

한번 그대의 웃음을 느낄 수 있다면 내 어찌 그리하오리까. 나 그대를 사랑한다는 하나만의 이유로 온몸이 쇠사슬로 묶이고 차디찬 채찍질에 피멍이 들지언정 그 옛날 새끼 손가락 약속은 잊을 수 없나이다. 하루에도 수십번 머리칼을 쥐어 뜯으며 남몰래 그대모습 가슴에 그려보지만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 하늘아래 거꾸로 설곳을 잃어 갑니다. 그대의 하늘은 어떠한 빛인지요. 그대의 땅은 얼마나 풍성한지요. 또한 지금 그대는 어디에 서 있는지요.

서서히 마비되는 이목구비에 설령 방향감각마저 상실할지라도 나는 그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랑하는 나의 여인아, 그대 머리에 꽃 꺾어 꽃아줄 수 있다면 그대 입술에 뜨거운 입맞춤할 수 있다면 나는 끝끝내 어둠을 제치고 별을 찾아 그대에게 하나 가득 비추오리다. 나는 끝끝내 어둠을 끊고 새벽을 열어 그대에게 하나가득 햇살 드리오리다.

7. 5월의 햇살 만큼이나 눈부신 너를 / 나는 거역할 수가 없다. /

어느새 바람은 차다. / 단추와 단추 사이를 파고든 찬 기운이 / 심장을 얼리우고 나의 육신을 마비시키려 한다 / 언손,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너를 그린다 / 너에 대한 그리움은 / 이방에 나를 놓게 하지 않는다. / 개인의 실존적 고독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아픔이다 /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다 / 일찌기 나는 너를 보았다 / 처절한 절망과 허무, 만성적 외로움 속에서 처음 너를 만났다 / 나는 너를 사랑한다 / 너는 거역할 수 없는 나의 여인이다 / 몸서리 처지도록 가슴아픈 사랑이다 / 밤이다 / 묶인 밤이다 / 나는 이밤에 옷매무시 바로잡고 / 너를 기다린다 / 달려가 으스스리도록 안을 수 없어 / 이렇게 뜨거운 체온으로 너를 기다린다 / 이렇게 서러운 그리움으로 네 이름을 쓴다 / 묶인 밤에 / 사랑이라고.

그리고

8. 이렇게 팍팍 팔딱 뛰는 심장을 가지고서도 난 그만 너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리움이 살아서 길길이 날뛰어도 고작 이름 한번 부르고선 뒤로 감추었다. 단지 너의 밝음이 맑음이 그저 느끼기만 해도 숨막힐듯한 그 미소가 나에겐 유일한 에덴이었고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결국 난 에덴을 등지고야 말았고 새롭게 다가온 고통은 나를 부정하였다. 결국 사랑을 이론적으로 파악하려던 이제까지의 노력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것은 현실에서 유리된 독단이었으며 사물의 외관에 현혹되지 않으려 스스로 눈을 뽑는 식의 왜곡된 실제에서 출발한 가설이었기 때문이다. 돌아가리라. 이제 이런 무모한 방향은 끝나야 한다. 그대속에 들어가 침잠할 때이며 실제의 사랑과 대면할 때이다. 사랑은 반드시 나의 길고 애절한 부름에 그리고 지난날 부터의 간절한 추구에 응하리니 기어이 돌아가리라

이제 남은건 선명한 에덴 언덕의 기억뿐, 거추장스러운 의식과 절차는 벗어던지고 오직 순결한 나신 하나로 돌아가리요. 일찌기 느끼지 못한 너의 눈부신 전나를 내 뜨겁게 포옹하리다. 현재의 나를 긍정할 수 없는 지금 내 어찌 pen을 들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인가 돌아가리라.

흑백논리는 이제 과거의 아픔. 바람에 부서지는 모래성이 바람만을 원망할 수 없는 법. 에덴은 결코 이브를 유혹하던 뱀이 아니거늘 너에게 가는 길 비록 무지개 빛 아닐지언정 주저않고 가리라 내 기거이 돌아가리라

돌아가서는 그곳에 무덤을 파리라

낡은 곳으로 되돌아감은 자연스러운 본능, 일찌기 너는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지 않았던가, 사랑하는 나의 여인아.

9. 비다, 가을비...

의식하고 있던 것보다는 가을은 진한 향기를 품고 있었다. 정녕 이 계절은 따스함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남모르는 그리움도 잉태하고 있나보다. 벅찬 가슴 부여안고 pen을 잡는다. 허나 아직 감각을 갖추지 못한 언어는 나로 하여금 백지 공포증을 느끼게 한다. 그래도 나는 기쁘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미소를 머금는다. 단 하나 진홍빛 가슴 설레임을 두손에 고이 받드온다는 것, 그건 분명 내 존재의 확인이요, 또한 너무도 가슴아픈 그리움과 서러울 정도로 간절한 기다림에 대한 해맑은 햇살의 암시이다. 비맞은 낙엽이 잠깐 움추려 드는 것 같더니 바람결에 더욱 강한 가을을 내뿜는다. 난 일시적인 현기증에 눈을 감는다. 순간 나는 내 모습에 소스라쳐 놀랐다. 무엇이 이토록 나를 설레이게 하는가? 무엇이 이토록 나를 가득하게 하는가? 사랑하는 나의 여인은 그리움이 깊을수록 훨씬 아름다웠다. 그러기에 보다 맑고 밝은 여인으로 창조하리라. 이제 나는 철저히 나를 사랑하련다. 내 어찌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대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어찌 그대를 사랑하지 못하고 동지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은 결코 유희가 아니거늘, 사랑은 결코 만족이 아니거늘 사랑은 진정코 가시밭길 십자가일 수도 있는 것을...

아! 정말이지 넘치도록 사랑하련다. 온몸으로.

사 랑

10. 사랑하는 나의 여인아

나는 결코 현실도피자도 패배주의자도 아니며 Anarchist도 liberalist도 아니요. 단지 나의 순수한 감성과 양심을 존중하며 나 자신의 존재를 누구보다 사랑할 따름이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나를 부정하여 다시금 새롭게 나를 부정하는 과정일진데, 내 어찌 나를 값싼 욕망에 내던지겠오. 그저 언제고 나의 하늘을 사랑하며 끝내 해방의 그날에 안기는게 간절한 소망일 뿐이오. 사랑하는 그대여! 하늘을 사랑한다 하여 이땅을 저버릴 순 없오. 우린 너무 오랫동안 높은 곳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왔오. 난 아직 63빌딩의 꼭대기를 올라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오? 아마도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찬사하며 발발의 모든 세상을 차디찬 냉소로 대하리라 짐작되오. 또한 그 어마어마한 높이에 있는 자신에게 싸가지 없는 자만심을 간직할 것이오. 난 이땅의 똑똑하고 가진 자들이 다시금 바벨탑의 착공식을 가지지 않은게 의심

이 날 정도요. 아니 지금 그들은 틀림없이 준공식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요. 평범을 자부하며 도덕성을 앞세우는 한줌의 무리들이 바벨탑의 높이에만 관심을 가질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나머지 비범한(?) 인간들은 소리없이 쓰러지며 까마귀의 위장을 채워주었다는 사실을 그대는 아는지요.

사랑하는 그대여.

우린 그래도 조금 더 배웠다는 대학인이요, 대학인은 곧 지식인 계층일지니 참된 지식인은 일체의 기성관념에 구애되지 않는 실증적 태도와 진리에 대한 겸허한 자세로 학문을 탐구하며, 자유와 정의의 실현으로 我를 찾는 것 아니겠는지요. 허나 우리 주변의 많은 대학인 중에 진정 지성인이라 칭할 수 있는 학우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오.

대학,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시오? 또한 더 배운 자로서의 책임의식마저 망각한 채 곳곳에서의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을 느끼지 못하겠오? 난 솔직히 구역질이 나오.

때로는 내 자신이 대학인이라는 사실에 환멸을 느끼곤 하오. 이에 나는 과감히 나를 부정하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뺏개치지 않을 것이며 내 눈감는 그날까지 진리에 겸손하며 양심에 솔직할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며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 모두는 냉철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주위를 살필줄 알아야 하오. Campus에 첫발을 디디던 옛날을 생각해 봅시다. 입시지옥이라 불리는 험한 길을 헤치고 대학의 문에 들어서면서 젊은 우리는 제일 먼저 자유를 논하였오. 그러나 우리가 머리에 학사모를 쓸때까지 찾은 자유는 진정 무엇이겠는지요.

성적표에서의 A+와 보장된 장래?

Disco Club에서의 격렬한 몸부림?

Free Sex?

폭주로 인한 이성의 마비?

아니면 Scrum 대열에의 참가와 투석할 수 있는 영웅심?

아니오.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오.

값비싼 등록금은 절대로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비용이 아니오. 물론 존경할만한 대학인들도 많이 있으오. 자신의 학문이 무엇이며 어떻게 쓰여져야 하며 자신은 어떠한가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학우들이 오늘도 곳곳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니오.

허나 지금의 우리들은 역사의식이 미약하고 Egoism이 팽배해 있으며 진정한 용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오. 무의촌의사가 되겠다던 소박한 희망도 고학번이 되면 망각하고, 시대적 한계상황을 극복하겠다던 야망도 입사시험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나마 백성민을 느끼고 역사를 인식하며 이땅의 해방을 부르짖던 학우들도 결국엔 하나, 둘 Whit Collar를 동경하게 되는 우리의 나약함이 못견디게 가슴아플 따름이오. 때로는 내 자신이 비정상인 인가도,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건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오. 그러나 난 지극히 정상이고 건강하오. 그렇다고 그들이

비정상이라고 하기엔 이 시대가 너무나 가혹한 것 같으오. 철저한 약육강식, 생존경쟁의 흐름속에서 내 어찌 그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오. 나 역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한 데 말이오. 허나 분명한건 약한 자 힘주시며 강한 자 바르게, 외로운 자 손잡으심이 역사의 진리요, 주님의 말씀이며, 부처의 가르침일찌니, 그대들 모두 바벨탑을 찬미한다 하여도 나 오직 하늘을 사랑하리오. 그대와 더불어 땅에서 번성하리오. 사랑하는 그대여!

사고방식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도 우린 모두 형제야니던가.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소박한 희망과 불타는 야망을 한데 모아 民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며 철저히 나를 부정하고 다시금 나를 해방시켜 문제제기 후 해결의 고리를 제시하지 못하는 배타적 엘리트 의식을 배격하고 가진 자의 유희와도 같은 알팍한 Humanism은 내밀지 맙시다. 또한 시대착오적인 환상을 저버려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노예화시키는 욕망을 억제해야 할 것이오. 그리하여 우리는 이땅과 더불어 숨쉬고 형제와 더불어 땀흘리는 가장 값진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오. 그대, 나는 나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약속하오. 내 진정 나를 거역하지 않겠노라고. 내 진정 형제를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내 생활의 자신감은?

송 하림(전자공학3)

‘여성학을 많이 보급시키며 하늘의 절반인 여성의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선거철이면 여학생회 선거공약 중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다. 나는 그때마다, ‘여성학? 보건학하구 비슷한 거겠지, 뭐’하고 무심히 지나가 버리곤 했다.

50명 중에서 단 두울! 무수한 남학생들의 시선을 받으며 대학생활을 시작하였고, 교수님, 선배님, 동료들의 각별한 배려와 보호속에서 재미있게 생활했었다. 그렇지만 수업시간이나 도서관 심지어 집에서까지 내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왜냐하면 과남학생과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거나 견제되면 그 따가운 눈총, 그리고 곧 과 전체에 야릇한 소문이 퍼지게 된다. 그 탓인지 나는 같은 과 여학생이 결강을 하는 날이면 점심을 혼자 먹지 못해 수없이 끼니를 거르곤 했다. 혼자라는 것이 무척 창피하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화장을 하고 가면 ‘호박에 색칠한다고 수박되니?’ 파마를 하면 ‘너희집 베개에 불났니?’ 귀걸이를 하면 짓궂게 건드리고, 온갖 장난을 다하는 과남학생들. 결코, 밉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은 무척 힘들었다. 가방까지 들어다 주는 배려가 어느 때는 동정으로 느껴졌고, 둘만 남겨놓고 당구장으로 몰려갈 때는 야속하기까지 했다.

취업문제도 무척 고민이 되었다. 일학년 초겨울, 4학년 선배들은 무척 바쁘셨다. 한 분 계시던 선배언니는 쪽 장학생이셨다. 그런데 그 겨울, 언니는 내내 소주를 들이키셨구, 얼굴에는 수심과 분노로 가득차 있었다. 여자라서 대기업에선 시험볼 기회를 주지 않는구나? 결국 무척 작은 사무실로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셨지만 여자는 결혼 후 가사, 육아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다.

난 학교생활이 무의미하고 덧없어졌고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힘들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몹시 괴로웠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여성학 공부를 할 기회가 주어졌고 '보건학'과 비슷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성학은 내가 왜 대학 2년을 무의미하고, 힘들어하면서 보냈어야만 했는지, 앞으로 내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예를 들자면, 여자는 남자를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나는 내 자신이 고집세고 무언가 이상한 여자라는 데서 찾지 않아도 되었고, 올바른 이성관계란 남녀가 인간으로서 만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보다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술이나 담배는 기호품이지 남자들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런 것들이 남자들에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라면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술, 담배를 잘 한다고 해서 여성이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두들 고민하는 취업문제, 가사노동과 육아를 분담해 줄 수 있는 남편이나 손주를 귀여워하시는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는 이상 여자는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난 세상을 자신감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난 그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해결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 또 여성학은 남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고 있던 나를 창피하게 했다. 왜냐하면 여성해방이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전의 나의 천박한 여성해방론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이 해방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조그만 노력 하나하나가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도 알게 되었다.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자들은 항상 뭉쳐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내몸 구석구석에서 억압의 사슬들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느낀다. 해방의 몸부림이다. 90년에는 교과과정에 여성학이 포함된다고 한다. 올바른 내용의 여성학이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많은 남녀학생들이 듣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안다는 것, 그리고 실천한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대학1학년, 나의 일기

정 연희(산공과1)

내가 대학의 문턱에 들어선지도 어느 덧 1년을 넘기고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 본다는 것이 왠지 무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어둡다면 어둡다고 할 수 있는 공간속에서 혼자 목표없이 헤매고 다녔고, 진실에 대해 회피하려 들었고, 또한 그러했던 나의 태도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헛되어 보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힘겹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여러 경험을 했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위안을 삼고 싶다. 그러나 애써 지우려하고, 이 자리에서 머무르려 한다면 그런 방향은 단순히 방황으로만 끝날 것이고 또다른 방향을 낳을 게 뻔하다. 그리고 난, 더불어 살아가는 속에서 가장 현명하고 진실한 답을 찾고 싶고 또 그래야 한다.

어떤 목적의식도 없이 안일한 생활을 누리려 했을 때 결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보람도 없었다. 그런 속에서 여름방학을 기다렸고 방학동안 생각할 기회가 필요했다. 방학조차 그냥 보내긴 했지만 2학기 개강 후 학회에 참가해서 교사선배와, 동기들과 같이 이것저것 토론하고 알아감으로써 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고, 기쁨도 느꼈다. 그래서 학회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학회의 이름은 '다물서당(다물은 '나라를 되찾는다'는 뜻이다)'이고 회원 이름도 같은 학렬인냥 비슷한 어조로 짓게 되었고, 교사선배도 '훈장님'이란 칭호로 통했다. 세미나하는데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렀고, 문제제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훈장님의 제의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다. 학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회원들간의 동료의식을 갖고 또한 집중적 공부를 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주제가 문제였는데 재미없어 하고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은 피하려 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애정론'이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흥미거리 정도로만 생각했던 내 생각이 정말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료는 대충 애정론에 관한 사회과학책이나 소설, 또 몇가지 복사를 등이었다. 준비도중 부족한 내용소화와 짧은

기간동안 성실하지 못해서 빚어진 비체계적인내용정리, 홍보부족 등으로 애를 먹으며 준비를 했다. 그런데 난 준비마관에 다달았을 때 자신이 없어서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고도 싶었다. 내가 맡아 발표할 부분의 내용정리를 심포지움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제대로 간추리지 못할 정도였다.

심포지움의 부제는 ‘참사랑을 위하여’였고, 목차는 남녀차별, 이성간의 우정, 이성간의 사랑, 올바른 결혼관, 주위사람들에 대한 사랑 등이었다. 심포지움이 시작되었을 때 참가인원은 고작 20~30명 정도였고, 도중엔 수준미달(?)로 애를 먹기도 했다. 선배들도 많았는데 그 앞에서 조무래기들이 뭘 안답시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떠들어대는 것이 우습기도 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엔 질문에 대해 우리가 대답을 확실히 못하고 방청석에서 토닥거리다 문제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직도 완전한 소하나 확실한 주장을 펼 자신은 없지만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동기들끼리 얻은 결론과 또 내 생각들을 난 이렇게 읊기려 한다.

여성차별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듯 과거와 현재의 사실이다. 여성차별의 경우를 낱낱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크게 인식면과 제도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인식면에선 인격체로서 완전히 평등하지 못하고 더불어 제도적인 뒷받침 또한 잘못된 것이 많다. 학교 교과도 그렇고, 직장문제, 무보수 가사노동, 맞벌이 부부에서의 여성의 2중 노동, 자녀양육 등 이외에도 아주 많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면서 여성해방 즉, 인간해방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차별만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다. 여성해방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해방이요 노동해방인 것이다. 여성해방을 주장하는 여성과 남성에게 비슷함정도로 자기 생각을 내타내는 이도 있는데, 그건 진정한 해방의 의미를 인정하려 들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일을하고 똑같은 사고를, 행동을 한다는 여성의 ‘남성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그렇다고 개성까지 말할하려 든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일 것이다). ‘남성화’의 예로 여성 스스로가 여성임을 탈피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가 남존여비 사상에 완전히 매몰되어 자신만은 남성의 위치로 가야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또한 그것은 진정한 해방이 아닌, 자신만의 위안이고, 자신만은 뭔가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이기도 하다. 많은 여성들이 인격체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아니면 알면서도 운명이러니 생각하고 남성의 명령에 복종이나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유교주의적인 사고방식도 잘못된 것이요, 요즘 서양문화가 급작스레 도입되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진 남성에게만 의존하려는, 소위 말하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젖어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은 여성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여성과 남성 모두 함께 인간해방을 이루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여성은 모든 남성을 적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남성또한 스스로 우월감에 빠진다거나 착취하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남성과 여성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인격체로서 존중해주고 동등해지는 것이 진정한 여성해방이 아닌가 싶다.

이런 바탕위에서 참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참사랑이란 남녀의 종속관계가 아니고, 또 감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동반자적인 관계여야 하고, 서로의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이성의 힘(노력)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외의 동성간의 우정이나 이성간의 우정 그리고 그외 많은 주변인들에 대한 애착과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사랑(?)도 결국은 깨지기 마련이다. 이성간의 참사랑은 결코 환상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활을 전부 팽개치다시피하고 도피처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성간의 관계도 사회관계의 일부이고, 또한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이 글에 쓰인 것만으로는 심포지움 내용을 포괄적으로 전달하지 못했다. 몇몇 선배님들의 도움과 다물서당 동기들의 많은 노력에서 얻은 결과를 나의 생각과 함께 얘기했으므로 내 의견이 많이 주장되어진 듯하다.

지금까지 심포지움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난 그 속에서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 실천하면서 발전하려는 태도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느꼈다. 아깝게 흘러보낸 1년을 후회하지 않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겠고 이 글을 쓰면서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내 길을 잘 찾아나가고 싶다.

전태일 전집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김 미에(영교2)

돈이 숭배되는 사회에서는 돈을 지배하는 자는 편안하게 자기 신화—부르조아 이데올로기—를 뿌리고 다닌다. 호암이 그러하였고 또 요즈음엔 「…할 일은 많다」고 한 어떤 재벌총수가 그러하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팔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에선 제 몸뚱이 이외에 가진 것이 없는 이는 제 몸을 태우거나 프레스에 빨려들어가 몸이 걸레가 되어야 제 얘기를 알릴 수 있다. 여기 불타버린 육신의 댓가로 태어난 글과 현실이 있다. 전태일 전집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시다는 하루 열 네시간 노동에 커피 한 잔 값인 일당 50원을 받는다. 함께 일하는 열 두어 살 먹은 소녀들은 대부분 누렇게 뜬 얼굴에 못먹어서 썩한 눈동자를 한 채 기관지염, 안질, 빈혈, 신경통이나 위장병을 앓고 있다. …졸음을 막으려 타이밍을 먹으며 뽀족한 바늘 끝으로 제 살을 찌어댄다. 손발이 마비되도록 일하는데도 늘 하루 생계가 위태롭기만 하고….’ 이러한 1960·70년대 산업화·도시화의 실상은 곧 자본축적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은 저임금, 노동강화, 노동시간연장 등을 통한 노동력착취와 외자도입을 기반으로 진행된 자본의 축적과정이었고 이 자본의 축적과정은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성장과정이었다. 70년대로 들어서면서 격화된 예측 자본주의의 모순은 외채부담의 가중, 무역역조 심화와 국제수지악화, 기업의 자본축적을 돕기 위한 인플레이션 정책, 차관기업의 독점강화와 중소기업의 위축 등으로 표출되며 이런 위기들은 모두 노동자계급에게 전가되었다. 파쇼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착취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조직성, 전투성이 결여된 채 대한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분파 및 파벌투쟁과 노동대중에 기초하지 않는 어용성으로 조직과 의식 양면에서 침체와 방향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70년 11월 13일의 한 사건을 계기로 남한 노동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일대에는 이곳저곳에 삼엄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경찰 대들 때문에 자못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기계취급을 받으며 업주들에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바보처럼 짝소리 한 번 못하고 살던 삶을 극복해 보고자 만들었던 ‘바보회’에서 해보았던 ‘청원’과 ‘진정’ 대신 더 적극적 투쟁방법을 계획하는 ‘삼동회’를 중심으로 모여든 오백여 노동자들 앞에 갑자기 하나의 불기둥이 솟았다. 악에 받친 처절한 요구가 불꽃처럼 튀어 공중에 박힌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불길이 꺼지고 참혹한 시신-숯덩이 하나가 남았다. 옷의 영덩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신이 숯처럼 시커멓게 타고 온 살결은 화상으로 터지고 그의 눈꺼풀은 뒤집히고 입술은 퉁퉁 부르텃지만 그의 가슴을 찢으며 나온 소리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한 재단사-전 태일-의 분신투쟁의 파문은 상상 이상으로 커져 유신통치의 강압 속에서도 이전의 자연발생적 기층 노동대중의 투쟁은 보다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져 80년 초 산업별 노조중심으로 노총의 민주화와 제2노총의 건립 움직임 등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80년 5·18이후 등장한 새로운 군부독재는 어떻게 하든지 노동대중의 단결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자 지배 계급의 ‘합법’을 가장한 폭력장치로써 노동악법을 제정한다. 자본과 정권의 결탁속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탄압속에서도 각 단위 사업장에서의 파업투쟁과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투쟁을 통해 성장·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드디어 88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불꽃으로 타오른 그 날, 4만여명이 여의도 광장에 집결하여 천지개벽할 구호를 외치게 되었다.

‘천만 노동자 일치단결

노동해방 앞당기자!’

그-전태일-가 불살라지던 그 때와 노동자계급의 대중운동에 당파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이런 기초위에서 전노협의 자본가계급을 향해 포크레인의 삼날을 겨누고 있는 지금, 드러나는 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있는 결코 변화하지 않는 모순을 볼 수 있다. 약 80년전 러시아의 한 노동자가 파업 현장에서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동지들! 우리가 공장을 멈췄다. 우리가 자본가의 세계를 멈췄다. 보라!

얼마나 조용한가! 이 공장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이 세계의 주인도 바로 우리 노동자 자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세계의 주인공인 노동자는 현재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

전태일 열사가 불타며 외쳤던 근로기준법의 문제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그의 죽음소식을 듣고 모여든 여공들의 구호에서도 드러나듯-‘우리도 사람이다. 16시간 노동이 웬말이냐!’-근로시간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본주의가 일찍 발전한 미국에서 1886년 5월 1일-메이데이(노동절)의 호시-에 당시의 노동자들이

내세웠던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이들의 요구가 자본가 계급의 앞잡이인 경찰이 30여만 노동자들의 평화적인 집회에 폭탄터지는 소리를 신호로 난폭하게 갈겨대던 총탄앞에서 무자비하게 저지당했던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살해되거나 불구가 되었다)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이것은 각 파업 사업장마다 투입되어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구사대와 백골단 그리고 전노협 건설을 저지하려는 정권의 탄압 책동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노동운동의 발생과 그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무자비한 대응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모순에서 기인하는 필연적인 모순임에 분명하다. 한세기 전의 현상과 현재의 상황들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뽑아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은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는 아무리 지배계급이 개량적 조치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일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두 계급간의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다. 이러할 때 우리는 역사와 세계의 주인으로 우뚝 서가는 노동자계급의 편에 서서, 역사의 합법칙성을 거부하지 않는 것임을 명백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편에 서서 물론 당위적인 선언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태일 역시 이같은 결단을 내리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였던가!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나는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란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자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자.'

이러한 고민은 이제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고학력 노동자가 자본의 요구에 의해 그동안 그들이 누렸던 상대적 특권마저 점차 상실해가며 점점 더 직접적으로 자본으로부터 수탈당하는 현실에서 진실에 항상 눈떠있으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어떠한 인간적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 문제이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박탈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세대에서, 나는 절대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어떠한 불의도 묵과하지 않고 주목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 최소한의 수면 시간조차 빼앗겨 비틀거리고 다음날의 노동력을 팔 여유조차 없는 생활에선 자신의 가능성과 창조성을 개발하고 생활의 활력을 솟구치게 할 수 없다. 장시간 노동에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노동자들 2천5백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이렇듯 동물적인 삶으로 허덕이고 있다면 이 사회는 진보된 문명사회가 아니라 야만적 사회에 불과하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체제에 맞서 싸워나가는 전노협을 지지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요, 권리인 것이다. 이렇듯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전노협건설을 바라보며 노동자의 현실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강인한 의지를 가슴 깊이 느끼기 위해 열사가 불타오른지 스무해 되는 올해 이 책을 학우들에게 권해본다.

「사고 팔리는 性」에 분노하며

—매춘Ⅱ를 보고—

소미아(수학교육4)

“UIP 수입영화 반대한다”는 우렁찬 목소리가 한날 우리 어른들에게 ‘광대’로 인식 되어 천대시되어왔던 영화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커다란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86년 6월 매캐한 최루탄 속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던 자랑스런 민중들이 일구어놓은 사회전반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우리 영화인들에게도 그간의 통속, 오락, 퇴폐로 물들여진 영화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고발을 시도하는 영화로 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한 영화 중 하나가 ‘매춘’이 아닌가 싶다. 간혹 예술인가, 외설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지만 매춘에 대한 사회문제를 바르게 인식하여 영화화한 매춘Ⅱ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 지면을 통해 여명의 독자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나영’이라는 고급호스티스가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호스티스에게서 덜어주고자 하는 선한 쌀롱의 여주인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이 쌀롱이 날로 번창하여 고객을 독점하게되자 이런 향락산업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폭력집단들에게 도전을 받게 된다. 이에 주인공 나영은 호스티스도 이 나라 국민이기에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해보지만 한갓 헛된 생각으로 치부되어버리고 폭력배들에게 납치되어 모욕적인 폭행을 당하자 나영은 분노를 참지못하여 상대 남자를 살해하게 된다. 얼굴엔 온통 붉은 피로 물들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이제 세상이 떠들어 주겠지! 나는 할 일을 했을뿐이야’라는 눈물섞인 그 한마디를 남기고, 푸른 수의복을 입게된다. 다행히 그 남자가 죽지 않아 살인미수로 그치게 되고, 여러가지 사실을 참조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한편으로 나영의 첫사랑이었던 준호라는 남자는 나영이가 한창 성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재미동포로 가장하고 나영에게 접근하게 되는데, 나영의 가게경리일을 보고 있는 인애를 속여 나영의 모든 재산을 갈취하고난 후 인애는 사창굴에 팔아넘겨 버린다. 석방이 된 나영은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인애를 찾아나선다. ‘엄마가 섬그늘에 굴따러 가면 아가는 혼자남아 집을 봅니다. ...’라는 노래를 즐겨불렀던 인애를 창녀촌에서 어렵사리 찾아낸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며 매달리는 인애를 나영은 자신의 실수로 나아린 인애까지 망쳐놓았다면서

새롭게 인애와 장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인애는 자신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으면서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준호의 친구를 만나 준호와 만나게 된다. 인애는 준호와 함께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죽어갔다. 영화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다. 영화의 전반적인 화면이 쓸데없는 정사장면이 자주 나오므로써 썩 좋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화면처리를 정성스럽게 한 것 같다. 그리고 과연 매춘이 사회악인가 필요악인가 하는 문제제기와 돈앞에서는 사랑도, 진실도, 양심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매춘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단순히 감성에 호소하거나 영웅적인 개인의 처사으로써 대응해내거나 하는 등도 아직도 우리 영화가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싶다. 그리고 포주로써의 나영이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점, 그리고 매춘 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내에서만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던 점 등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한참동안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꽤 심각했었는데 이는 향락산업에서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심해질수록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기생적으로 살아가는 룸펜프롤레타리아들 또한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간들이 폭력배, 강도, 인신매매범으로 둔갑하여 사회분위기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독점자본가들에 의해서 몰락해가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향락산업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런 사회구조적인 모순속에서 발생하고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향락 퇴폐풍조는 결코 묵인될 수 없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혀 나갈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째,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혁파하는 것이다. 둘째,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들의 성욕의 분출을 정당화시켜 성을 산다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소위 주체적으로 변혁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남성들까지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여전하다. 그러면 왜 이런 잘못된 관념들이 만연해 있는 것일까? 남성 개개인들의 잘못인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상품화시킬 수밖에 없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이러한 의식은 더욱 더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우월성에 빠져있는 남성들에게 이런 것이 더욱 쉽게, 노골적으로 자기합리화 되는 것이다.性に 대한 올바른 인식하에서 서로의 性愛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성관계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된다는 사회적 관념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제국주의의 경제적인 수탈에 의해서 우리나라 민중들은 더더욱 초과 착취당할 수밖에 없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다방으로 쌀롱으로 직업을 옮기는 것이다. 영화에도 동생의 학비를 벌기위해 목과 웃음을 팔다가, 결국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누나에게 동생과 사회가 준 것은 멸시 천대와 값싼 동정뿐이었다. 이처럼 처음부터 스스로가 희망해서 매춘을 시작하는 여성은 없다. 여성이라는 단지 그 이유하나만으로 저임금에 시달리게 하는 이놈의

세상이, 사랑에 배신당해 타락해가게 하는, 썩어빠진 남성우월주의라는 관념이, 매춘 여성을 만드는 것이기에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일한만큼의 댓가는 지불되도록 이 사회의 경제구조를 변혁시켜야 한다. 그럼 이런 일들은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건 분명히 우리 여성자신일 수밖에 없다. 한국 여성운동의 특수성 중 하나가 매춘여성의 숫자가 생산직 여성노동자보다 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현재는 교회 여성운동단체에서, 외부에서 교육을 통하여, 그들을 자각하게 하고 있고, 생존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매춘의 문제가 결코 여성문제 일반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기에, 전 여성의 단결된 힘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는 지배자들이 말하는 강냉이 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도, 일당독재로 전 민중의 입과 귀가 막히는 사회도, 전쟁을 좋아하는 사회도 결코 아니다. 그 사회는 일한만큼의 댓가가 충분히 지불되고 사회범죄가 최소화되는 사회, 배우는 학생이 진학때문에 결코 목숨짚지 않는 사회, 여성과 남성이 상호 의존하며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 비록 평범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사회인 것이다.

매춘Ⅱ를 보면서 눈물을 남몰래 흘려내야 했던 이유는, 주인공 나영이 첫사랑에 배신당해서도, 폐암으로 죽어간 한 창녀의 인생이 불쌍해서도, 배경음악이 처절해서도 아니다. 그 눈물은 이런 모든 것을 생산해낸 이 사회부조리를 온상시켜 확대재생산해 내는 집단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복수의 눈물이었다. 아니 지배집단을 더이상 이 땅에 존재케 할 수 없다는 투쟁의 눈물이었다.

한가지 한국영화에 대한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소재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과 벗기는 영화가 너무 많다는 것에 속상하다. 하지만, 보다 많은 영화인들이 문화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이의 실천을 위해 단결한다면 좋은 영화는 생산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습지만 결코 웃고 넘길 수만은 없었던 주인공 나영의 대사를 기억해 보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출근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는 주인 나영에게 일하는 아가씨들이 차라리 출근비를 내고 속편히 일하겠다고 하는 종업원들에게 했던 이야기이다.

‘야! 너희들은 오기도 없냐! 너희들도 너희들의 권리를 내세워 테모라도 해보지 왜 항상 이런식이야! 그러니까 별수없는 것들이란 소릴 듣지.’

가족법, 어떻게 바뀌었나?

— 편집부 —

‘친족상속법’ 즉 가족법은 1958년 제정되고 60년 시행된 이래로 계속해서 개정운동을 벌였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가족법은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구현이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기나긴 싸움이었고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지만, 1989년 12월 1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가족법개정안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번 가족법 개정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지 않고 개정된 부분의 소개와 국회에 제출된 가족법개정의 제안이유를 제시하려고 한다.

1. 가족법개정의 제안이유

우리 민법 중 친족상속편(이하 “가족법”)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종법제에 의한 가족제도를 기준으로 남계혈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제정이래 1977년에 있는 제2차 가족법의 개정으로 그 내용이 일부 완화는 되었으나, 아직도 현행 가족법에는 “家” 중심적이며 남존여비사상에 바탕을 둔 가부장제 가족제도적 요소가 남아있는 바, 이는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크게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를 선언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국민의 법앞의 평등을 선언한 우리 헌법 제11조와, “혼인 및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우리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 정신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며,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국민의식구조의 민주화로 인하여 법률상의 호주제도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한편, 법률상 가족개념과 현실의 괴리현상과 이로 인한 존법정신의 약화가 심각히 우려되는 외에, 남계혈통중심의 현행 가족법은 남아선호사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인구정책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써 가족제도의 체계는 사회의 가치관 확립에 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 바, 합리적인 가족법은 가정의 행복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고유의 전통은 법으로써가 아니라 본래의 모습대로 가르침을 통하

여 전승될 것이나, 실정법제도로써의 가족법은 그의 상징성외에 지극히 현실적인 분쟁해결의 수단이므로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차별적 규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의 이익이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진정한 가정의 민주화를 위하여서도 하루속히 전근대적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불식하고 인간의 존엄과 남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내용의 가족법으로 보완하고자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가족법 개정안의 주요골자

(1) 친족의 범위

- 1) 부계혈족, 모계혈족은 각각 8촌이내로 하고, 인척은 4촌이내로 함(案 제77조).
- 2) 자매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되도록 함(案 제768조).
- 3) 인척중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삭제함(案 제769조).
- 4)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되도록 함(案 제775조 제2항)

(2) 호주제도

- 1)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함(案 제980조)
- 2) 호주상속비용(案 제983조), 호주상속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案 제988조), 대습상속(案 제990조), 분묘 등의 승계(案 제996조) 규정을 삭제함
- 3)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함(案 제991조)
- 4) 여호주의 家에 그 家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입적하더라도 호주승계가 개시되지 아니하도록 함(案 제980조 제4호)
- 5) 호주의 한정재산 신고청구권과 입적동의권을 삭제하고(案 제9조, 案 제784조 제1항),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거가금지(案 제790조), 호주의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권(案 제798조), 호주의 사고와 그 직무대행(案 제799조), 호주의 부양의무(案 제797조)를 삭제하고, 가족의 불명재산에 대한 가족의 공유추정규정(案 제796조 제2항) 등을 뒀으로써, 호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대폭 정리함.
- 6) 호주의 변경과 여호주 규정(案 제792조)을 삭제함으로써 여호주는 그 家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그 家에 입적하더라도 가족의 지위로 격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혼인의 취소나 이혼시 또는 부가 사망한 때에 처와 부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을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함(案 제787조)

3.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

법적 친자관계로서의 계모자관계·적모서자관계는 폐지하며 인척관계로 함(案 제773조 및 제774조)

4. 약혼해제사유

(1) 약혼해제사유 중 “폐병”을 삭제하고, 새로이 “불치의 정신병”을 삽입함(案 제804조 제3호)

(2) 약혼해제사유 중 “2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1년 이상의 생사불명”으로 함(案 제804조 제6호)

5. 부부동거장소규명을 개정하여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불성립시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함(案 제826조 제2항)

6. 부부공동생활비용을 부부가 공동부담하도록 함(案 제833조)

7. 이혼시 자녀의 양육책임

(1)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案 제837조 제1항)

(2) 이혼후 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함(案 제837조의2 제1항)

(3) 가정법원은 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案 제837조의2 제2항)

8.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

(1)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案 제839조의 제1항)

(2)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관여하도록 함(案 제839조의2 제2항)

9. 입양제도

(1)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하여서는 후견인이 동의함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案 제871조 단서)

(2)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案 제872조)

(3) 부부공동입양제도를 부부평등하게 하도록 함(案 제874조)

(4) 부부의 일방이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함(案 제874조)

10. 家를 위한 양자제도

- (1)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함(案 제867조)
- (2)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의 입양금지규정을 삭제함(案 제875조)
- (3) 서(孀)양자제도를 폐지함(案 제876조)
- (4) 유언양자제도를 폐지함(案 제880조)

11. 부모의 친권행사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함(案 제909조 제4항)

12. 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규정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933조의 순위에 의함(案 제934조)



13. 상속제도

- (1) 상속인의 범위를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시킴(案 제1000조 제1항)
- (2)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사망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도록 함(案 제1003조 제1항)
- (3) 직계비속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균등하게 상속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함(案 제100조 제1항·제2항)
- (4)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者の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함(案 제1008조의2 제1항)
- (5)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의 경우 소정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者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者 등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者の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여할 수 있도록 함(案 제1057조의2)
- (6)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고유의 상속분에 그 5할을 가산하도록 한 현행제도를 폐지함(案 제109조 제1항단서)



제5대 여학생회 활동보고서

1. 들어가는 말

‘통일의 땀줄을 움켜잡고 어머니의 한을 통곡하라. 그대 홍익의 딸들이여’라는 힘찬 외침으로 출발한 제5대 여학생회가 이제 자신의 공연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제5대의 1년동안의 공연은 단순히 관객을 대상으로한 출연자들만의 몸짓이 아니었기에, 여기 이렇게 공연내용을 다시금 정리하여 제5대의 공연을 홍익의 2,700여 여학우 관객들과 함께 공유하고 평가하여 다음에 올려질 공연을 더욱 더 짜임새 있는 더욱 더 관객과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공연으로 준비하여 ‘막’을 올리고자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은 하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여성으로 보다는 ‘반쪽’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서 억압과 굴종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옛 선조들이 삼종지도와 칠거지악을 강요하며, 가정이란 울타리 속에 우리 어머니들을 가두어 두고서 우리 어머니들의 입과 귀, 눈을 막아 억압했다면 오늘날 우리 여성들은 자본주의 모순의 굴레속에서 자신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보장받고 있지 못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전락하였고, 설사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본의 착취구조 속에서 이중의 억압으로 초과착취당하고 있으며, 조기정년퇴직을 강요받으면서 평생노동권 조차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 여성의 처지가 이러할 때, 소위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여대생에게 있어서도 그 차별적 대우는 어김없이 행해지고 있다. 대학내의 성차별, 졸업후 고용기회의 불평등, 임금·승진에서의 불평등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기에 더욱 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계급·계층일수록 그 자신의 처지를 옳게 이해하고 자각하여 ‘권리’를 주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여학생회’라는 여학생들의 자치조직

은 여학생, 나아가 여성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여학생을 단결케 하여 자기 동력을 가지고 운동의 주체로 일떠세우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2. 제5대 여학생회 사업내용 보고

‘앞서가는 여성, 다가가는 우리, 함께하는 여학생회’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매시기 사업속에서 여학우들과 함께 함으로써, 여학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나아가 이 땅 여성운동의 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하지만 성과있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현실적으로 여학생회의 조직적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제5대 여학생회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지 일정을 도표로써 간단하게 살펴보자.

<3월>

- 신입생수련회—올바른 남녀관계와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 신입생에 대한 홍보선전사업—참으로 아름다운 세상….

<4월>

- 과별여대표회의
- 호신술강습회
- 탁아소활동가 모집과 교양
- 여성신문발간
- 해방터—영화상영후 토론

<5월>

- 여성한마당
- 여성신문발간
- 이경현 방패살인규탄대회

<6월>

- 북한음식 시식회

<7월>

- 농활—부녀반활동

<8월>

-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

<9월>

- 심포지움—여성해방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
- 안기부 항의방문투쟁
- 전교조기금마련 일일차집

<10월>

- 여성신문발간
- 여성학 교양강좌 개설에 대한 설문조사와 홍보

〈11월〉

- 제6대 여학생회 선거

〈1월〉

- ‘여명’회지 발간준비

3.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

(1) 과별여대표회의

여학생회의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대중에 의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각 과의 여학생들의 이해와 요구가 옹계 수렴되어야 하는데 현재 여학생회는 각 단대나 과에 여학생대표가 부재함으로써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일정정도 극복하기 위하여 각 과의 ‘여대표’들이 이 회의에 참가하여 과의 여학생들을 대표해서 여학생들의 지향과 요구에 대해 보고하고 중앙에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공유·결의하는 장으로써 3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표성과 집행력이 담보되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후에 각 과에 ‘여성학회’를 꾸려내고 실질적으로 학회원들이 과학생회 체계내에서 여학생부나 여학생회의 전망을 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해방터-영화상영

‘피고인’과 ‘안개기둥’이란 영화와 ‘당신들의 性천국 코리아’란 비디오를 상영한 후 각각의 영화에서 제기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점과,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가정에서의 위기에 대해서 토론했었다. 여성문제의 본질을 보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확산시키고자 마련되었던 ‘해방터’는 다수 남녀학우들이 참가하여 많은 성과는 있었지만, 토론내용을 풍부하게 준비해내지 못한 것과, 행사이후 조직화방도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함으로 1회적인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 대중교육의 장으로 해방터를 계승 발전시키고, ‘여성학교’를 알차게 마련하여 더욱 풍부하고 깊이있는 대중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고 여성학교에 입학했던 많은 대중을 다양한 방도로써 ‘조직화’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한겨레신문과 여성신문구독반, 여성학교 동문회 등등.

(3) 여성한마당

5월말에 여성한마당을 ‘통일과 여성’이라는 커다란 주제아래서 진행했었다. 상시 행사로써 민속놀이와 여성문제, 그림전시회, 탁아소활동 기획전을 실시했고, 통일에 대한 강연회와 초청공연으로 사회적 여성노동자들의 애환을 그린 노래극을 진행했으며, 대중놀이를 마지막으로 한마당은 마무리되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학우대중들과 함께 하고자 “여성한마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앙 집행부만 움직이게 되었다. 이후에는 ‘여성주간’을 선포하여 준비·진행·마무리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공개되고, 많은 학우들에 의해서 꾸며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각 단대나 과의 행사가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

공간을 통해서 여성이 한 인간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주적 문화와, 양성문학 풍토를 정착시켜내야 한다.

(4) 심포지움—여성해방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

‘학술부원’들이 주체가 되어 준비된 심포지움은, 그 대상을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폭넓게 사고하지 못하는, 선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학우들이 먼저 깨닫고, 전파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상설정을 그렇게 하였다. 사전 선전작업을 소자보, 찌라시, 플랭카드 등 여러가지로 홍보했고, 당일에는 오전에 등교하는 학우들에게 정성들여 만든 홍보물—겹에 작은 찌라시를 붙였다—을 배포하면서 직접적으로 학우들을 만나면서 심포지움을 선전했었다. 심포지움이 준비에서부터, 주체마련까지 모범적인 행사가 아니었나 싶다. 그 성과물은 선진적인 학우들에게 여성해방에 대한 올바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심포지움 주체들의 심도깊은 학습을 통해, 여성문제에 정통한 간부가 부재한 여학생운동내의 핵심간부를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사전 홍보작업에서도 기간에 대자보만 써붙이면 모든 홍보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버린 것에서 탈피하여, 직접 대중속에 들어가 적극적인 선전을 함으로써, 단순히 심포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간부대오의 선동력을 크게 향상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심포지움을 준비했던 주체들이 이후 여·회간부로 흡수되거나, 각 기층 과에서 학술부 사업을 벌이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탁아소 자원봉사활동

여학생회의 모든 사업이 단절적이고 시기적이라는 평가에서, 일상적이고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탁아소 자원봉사활동가’를 모집했었다. 이들에 대해 ‘봉사’의 참의미에 대해서, 빈민지역의 아동들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받고 실제 염리동 탁아소에서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학교내에서의 활동은 계속해서 활동가를 모집하는 것과 빈민지역에 대한 선전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이 조직화·의식화된 대중들로서 그 성과가 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여학생회를 강화시켜내지 못한 것과, 활동가들과 여학생회 집행부가 분리되어 사업을 진행했었던 점이 큰 오류로 지적된다.

(6) 신문 ‘여성’ 발간

여학생회의 소식과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사업으로써 격월로 발간되는 여성신문이, 몇 사람의 참여로만 만들어지던 것이 차츰 많은 학우들의 글이 실리게 되고, 배포도 손수 나누어줌으로써 신문을 통해 학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다. 또 진행되는 정치정세속에서 여학우대중에 대한 선전선동과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 근거한 투쟁에의 실천을 제시하고는 했었다. 그런데, 편집부가 다른 많은 일을 맡게 되면서 독자적인 사업에의 집행력을 보장받지 못한 결과로 신문이 시급하게 만들어지곤 하는 한계가 있었다.

(7) 전교조지지 기금마련 일일찾집

한번의 정치투쟁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에 여학생회에서는 간부 몇몇만이 참가했을 뿐 어떻게 여학우대중들의 실정에 근거해서 실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었다. 그리하여 제5대 여학생회에서는 ‘일일찾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여대중들이 쉽게 참여하면서도 전교조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하였었다. 이를 옹계 계승하여 이후 정치투쟁을 전개할 때 단순히 실천에서 뿐만아니라 선전선동에 있어서도 여학우대중들의 지향을 틀어질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노협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분과 이후 여성노동자로—생산직이든 사무직·전문직이든—살아갈 우리 여대생들에게 있어서도 전노협은 꼭 사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나오는 말

이렇게 제5대의 공연을 다 정리해 보았다. 공연을 지켜보았던 관객들은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가장 컸던 오류는 관객과 분리된 공연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6대의 공연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출연자와 관객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서로 부대끼며 ‘여학생회’가 철저하게 대중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찌면 무미건조한 출연자들의 피터지는 연습도 없었던 공연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순간순간 대사를 잊어버린 순간에도 애써 기억해내려 했고, 관객이 던지는 시선 하나하나에 정성들여 온갖 몸짓으로 대답하려 했던 공연이었기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

편집후기

인쇄물의 범람속에서
 여명 4 호가 얼마만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여성문제를 느끼면서부터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고 벅찼었는데,
 여명 4 호가 부디 여학우들에게 가슴뿌듯한
 한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책을 만들 때 짜증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원고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SY 44 -

책을 만든다는 일이 매우 자랑스러웠었는데
 막상 책이 나오려고 하니까 부끄럽다.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홍익의 3천 여학우와 5천 남학우에게 무한한
 사랑을 담아 여명 4 호를 바쳐본다.

- 영 신 -

눈이 유독 많이 내렸던 지난 겨울 고생스럽게
 뛰어다니며 준비했던 여명 4 호가 드디어 나왔다.
 책이 '나왔다'는 것에서가 아니라
 학우들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고 싶다.

- 정 숙 -

자랑찬 여명 4 호를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이
 많이 읽으시고
 함께 고민해 주세요.

- 광 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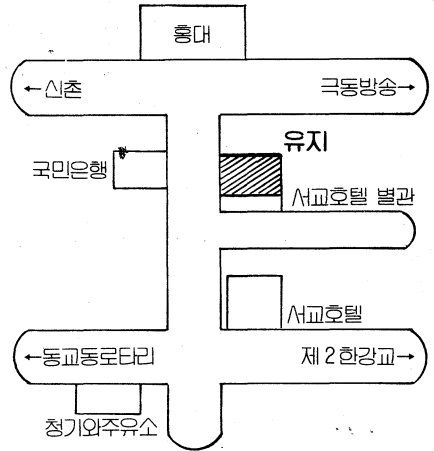
S·I·N·C·E·1·9·7·4·1·0

youjee

D·U·B·R·E·S·T·A·U·R·A·N·T

서교호텔 별관 옆 홍대입구

D·H·O·N·E·3·2·4·8·1·1·3



홍익호프

여명 4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홍익서림

여명 4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홍익안경원

보이는 기쁨을
모든이에게 ...

☎ 332-6640
(대표: 정진태)

구내식당

여학생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